머 리 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고 한평생 주체의 혁명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류의 태양이시다.

탁월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 강철의 령장이시며 신념과 의지의 제일강자, 제일배짱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류례없이 간고한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고 세계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과 투쟁업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의 교과서입니다.》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만년초석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그 내용의 풍부성과 심오성, 크나큰 감화력과 생활력으로 하여 혁명의 참다운 교과서로 된다.

혁명의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깊이있게 학습하여 자신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대한 **김정은**선생님의 령도따라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

차 례

제1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 개척

〔주체1(1912). 4－주체20(1931). 12〕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

혁명적가정에서 탄생

주체의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1(1912)년 4월 15일 평양시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였다.

그때 우리 나라는 날강도 일제침략자들의 구두발밑에 짓밟혀있었다.

조선을 집어삼킨 일제는 우리 인민을 소나 말처럼 부려먹고 닥치는대로 잡아가고 죽였으며 나라의 재부를 마구 빼앗아갔다.

조선은 말그대로 인간생지옥으로 되였으며 인민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나 같았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인민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일제와 싸웠다.

의병들은 창과 칼을 들고 떨쳐나섰으며 독립군은 화승대로 원쑤놈들과 맞섰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큰 나라를 찾아다니며 우리 나라의 독립을 도와달라고 호소하였으며 안중근렬사처럼 품속에 권총을 감추고 다니면서 일제우두머리를 쏘아 죽이였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들은 그때마다 실패하고 온 나라는 붉은 피로 물들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을 옳바로 이끌어줄 령도자가 없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들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줄 령도자를 애타게 기다렸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민족의 찬란한 태양으로 탄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은 우리 인민의 반만년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가장 큰 기쁨이며 민족의 대경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앞에는 밝은 앞날이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가정은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일가는 원래 평양 중성리에서 사시였다. 그런데 살림이 너무 어려워 증조할아버님대에 평양에 사는 지주놈의 묘지를 보아주기로 하고 만경대로 이사오시였지만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시였다.

그러나 혁명에 대한 굳은 신념과 그 누구도 당할수 없는 배짱, 불굴의 혁명정신을 특출한 기질로 지니신 만경대일가분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시였다.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미국놈들이 침략선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침입해왔을 때 인민들의 앞장에서 용감히 싸워 놈들의 배를 불태워버리시였다.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께서는 늘 《남자는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시면서 아드님들과 손자분들을 혁명투쟁에 내세우고 적극 뒤받침해주시였다.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께서도 일가분들이 대바르고 굳세게 살도록 하시였으며 한생을 혁명가의 어머니, 할머니답게 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계실 때였다.

일제놈들은 어리석게도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을 돌려세워보려고 한동안 할머님을 만저우(만주)의 눈덮인 험한 산발로 데리고 다닌적이 있었다.

그때 할머님께서는 못되게 노는 놈들에게 유격대의 총알을 받고싶거든 네놈들 하고싶은대로 해봐라고 큰소리를 치시여 놈들을 쩔쩔매게 하시였다.

이처럼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는 아드님들과 손자분들을 나라찾는 혁명의 길에 내세우시고 일제놈들의 모진 박해를 꿋꿋이 이겨내며 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억세게 살아오시였다.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나라 찾는 싸움에 한생을 바치시였다.

《지원》의 큰뜻을 품으신 아버님께서는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시였다.

아버님께서는 인민들을 선진사상으로 교양하여 묶어세우시였으며 주체6(1917)년 3월에는 조선국민회를 무으시고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시였다.

> **조선국민회**
>
> 김형직선생님께서 주체6(1917)년 3월 23일 평양에서 일제를 반대하고 나라를 찾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로 조직하신 반일지하혁명조직이다.
>
>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자는것이였다.

나라 찾는 싸움을 이끄시던 아버님께서는 그해 가을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평양감옥에 갇히게 되시였다.

아버님께서는 감옥안에서도 놈들을 반대하여 꿋꿋이 싸우시였으며 나라 찾는 싸움을 더 크게 벌려나갈것을 구상하시였다.

감옥에서 나오신 아버님께서는 압록강연안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시였다.

참으로 김형직선생님은 나라와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치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께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시였다.

녀사께서는 집안의 크고작은 일을 도맡아하시며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우시였다.

때로는 망도 보시고 어려운 비밀련락도 다니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신 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우시였다.

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녀성조직인 반일부녀회를 무으시고 녀성들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이처럼 강반석녀사는 나라의 독립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삼촌이신 김형권선생님과 동생이신 김철주선생님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

을 위한 투쟁에 몸바쳐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들이시였다.

외할아버님이신 강돈욱선생님과 외삼촌이신 강진석선생님도 나라를 찾기 위한 싸움에 한생을 바치신 열렬한 애국자, 불굴의 반일투사들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일가는 이처럼 증조할아버님으로부터 외삼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미제와 일제를 비롯한 외래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신 열렬한 애국자, 참다운 혁명가들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가정은 가장 인민적인 가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대로 소작살이를 하다나니 우리 집안은 매우 어렵게 살았다.》

만경대일가분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주놈의 땅을 얻어 소작살이를 하시였다. 그러다보니 온 가정이 부지런히 일하시여도 살림은 나날이 쪼들려가기만 하였다.

그래서 고기와 같은것은 생각할수도 없었고 껍질도 벗기지 않은 수수로 타개죽을 쑤어 끼니를 에우시지 않으면 안되였다.

집안살림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만경대고향집에서는 할머님께서 그처럼 부러워하시던 벽시계를 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끝내 사다 걸지 못하였다.

이처럼 어렵게 사시였지만 일가분들은 돈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인덕이 없이는 살수 없다고 하시며 친척들과 이웃사람들을 도와주고 받들어주며 화목하게 사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가정은 수령님께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실수 있게 한 터전이였다.

반일부녀회—강반석녀사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주체15(1926)년 12월 26일에 무으신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녀성대중조직.

녀성들의 사회적해방—녀성들도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뛰여난 천품을 지니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번 보고 들은것은 잊지 않으시는 비상한 기억력과 어떤 문제든지 끝까지 파고들어 해명하고야마는 탐구심을 지니시였다.

그리고 동무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뜨거운 마음과 어떤 난관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굳센 의지, 활달한 성품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었다.

이처럼 뛰여난 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부모님으로부터 혁명적교양과 영향을 받으며 혁명가로 자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일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이 나쁜 놈들이며 식민지사회가 나쁜 사회라는 교양을 받았습니다.》

어린시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일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그놈들만 잘사는 세상은 나쁜 세상이라는 교양을 받으시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산좋고 물맑은 아름다운 나라이고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슬기로운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리실 때 명신학교에 달려든 일제경찰놈들에게 잡혀가시면서도, 그후 평양감옥에서 악착한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놈들과 꿋꿋이 맞서 싸우시는 아버님의 강의한 모습을 보시였다.

> **명신학교**
>
> 김형직선생님께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하여 주체5(1916)년 봄에 세우신 학교이다.
>
> 평양시 강동군 봉화리에 있다.

그리고 봉화리살림집에 달려든 경찰놈들과 완강하게 맞서 싸우

시는 어머님의 모습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과정에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힐줄 모르는 불굴의 정신을 키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부모님의 혁명적교양과 함께 자신의 꾸준한 학습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교에서 배워주는 학과목을 열심히 학습하시는 한편 자체로 많은 책을 읽으시였다.

을지문덕, 강감찬, 리순신 등 우리 나라의 애국명장들과 레닌을 비롯한 세계에 이름난 사람들에 대한 책과 여러가지 혁명적인 소설들을 읽으시면서 혁명의 큰뜻을 키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2(1923)년 3월에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 조국에 나오시였다.

조국에서 공부하시는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력사와 지리, 문화를 잘 알게 되시였으며 우리 인민은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이라는것을 깊이 알게 되시였다.

그리고 비참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보시면서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을 때려부시고 새 세상을 세워야 가난한 사람들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느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나오신지 두해만에 아버님께서 또다시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시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으려는 결심을 품고 주체14(1925)년 1월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시였다.

만경대를 떠나 13일만에 포평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니신 소학교

린쟝(림강)소학교—주체9(1920)년 봄에 입학하여 주체10(1921)년 여름까지 다니시였다.

바다오거우(8도구)소학교—주체10(1921)년 여름 2학년에 편입하여 주체12(1923)년초에 졸업하시였다.

창덕학교—주체12(1923)년 4월 5학년에 편입하여 주체14(1925)년 1월까지 다니시였다.

푸쑹(무송)제1소학교—주체14(1925)년 4월에 편입하여 주체15(1926)년 초봄에 졸업하시였다.

나라를 찾기 전에는 조국땅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너 바다오거우에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푸쑹에서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아버님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우시였다.

그리고 대중속에서 일제를 반대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주의사상을 선전하는 사업도 진행하시였다.

특히 아버님으로부터 뜻을 원대하게 가질데 대한 《지원》의 사상과 혁명가는 굶어죽을수도 있고 얼어죽을수도 있으며 맞아죽을수도 있다는 3대각오, 혁명을 하자면 동지들을 많이 얻어야 한다는 사상과 두자루의 권총을 유산으로 물려받으시고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 굳은 각오를 다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부모님의 혁명적교양과 영향, 자신의 꾸준한 탐구와 실천투쟁을 통하여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풍모를 지닌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

2. 혁명활동 개시,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주체15(1926)년 6월 화디엔(화전)에 있는 화성의숙에 입학하시였다.

화디엔은 푸쑹에서 300리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있다. 이곳에는 살길을 찾아온 조선사람들이 많았고 독립운동자들도 자주 드나들었다.

화성의숙은 민족주의자들이 독립군의 간부를 키워내기 위하여 세운 2년제 군사정치학교였다.

이 학교에서는 다른 중학교에서 배워주는 과목외에 군사를 더 배워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성의숙에 들어가면 다른 과목들과 함께 군사도 배울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시였다.

이런 큰 기대를 안고 학교에 입학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과학습에 힘쓰시였다. 그리하여 화성의숙에서 공부를 시작한 첫날부터 단연 첫 자리를 차지하시였다.

다른 학생들은 어려워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학문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쉽게 풀군 하시였다.

수학뿐아니라 어느 과목, 어느 문제도 막히는것이 없이 환히 알고계시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부하시는 과정에 점차 화성의숙에서 배워주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였다.

제일 마음에 들지 않은것은 말로만 독립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뚜렷한 방도를 가르쳐주지 못하는것이였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싸우자면 그에 맞는 싸움방법이 있어야 하겠으나 군사교원들은 덮어놓고 몸과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총도 없이 목총을 가지고 락후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켰다.

위대한 수령님을 더욱 실망케 한것은 학교가 사상적으로 매우 뒤떨어진것이였다. 학교에서는 지난날 왕의 력사와 같은 낡고 뒤떨어진것을 가르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성의숙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으로는 나라를 찾을수 없다는것을 깨달으시고 조선혁명이 나가야 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품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선진사상을 탐구하기 시작하시였다.

그때 화디엔에 있던 아버님 친구의 집에는 선진적인 책들이 많았다. 그런데 화성의숙에서는 이런 책들을 절대로 읽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책을 읽다가 들키면 학교에서는 퇴학까지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교에서 이처럼 엄격히 통제를 하였지만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시고 선진적인 책들을 부지런히 읽으시였다. 아버님 친구의 집에서도 읽고 강기슭의 수풀속에서도 읽으시면서 책의 내용을 우리 나라 현실과 결부하여 보시였다.

이 과정에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자면 새 세대 청년들로 혁명의 핵심력량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화성의숙의 청년학생들을 혁명의 핵심력량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화성의숙의 학생들은 거의다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로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선 용감한 애국청년들이였다. 그들을 잘 이끌어준다면 능히 참된 혁명가로 키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동무들과 친숙해지기 위하여 힘쓰시였다.

앓는 동무가 있으면 밤을 새우며 간호해주시였고 색다른 음식도 가져다주시였으며 멀리까지 가서 귀한 약도 구해오군 하시였다.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계시는데다가 동무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고매한 풍모는 인차 학생들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화성의숙의 학생들은 저마다 제노라고 하는 청년들이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 매혹되여 수령님을 진심으로 따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혁명적인 책들을 돌려가며 읽게 하시였다.

새로운 길을 찾아 모대기던 청년학생들은 시간 가는줄 모르고 혁명적인 책들을 읽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들속에서 혁명적인 책을 읽는 분위기가 높아지자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조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론회가 열릴 때마다 몸소 참가하시여 동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조선혁명을 잘하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도록 이끄시였다.

이 과정에 학생들의 사상은 날을 따라 몰라보게 달라져갔다. 그들은 낡고 뒤떨어진 사상에서 벗어나 점차 새로운 혁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핵심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핵심력량이 마련되자 그들을 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조직을 내오고 대중을 그 두리에 묶어세워 그들의 힘으로 나라를 해방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동무들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하루빨리 조직을 내오자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조직을 내오자면 그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조직에 받아들일 청년들을 정하고 그들을 잘 교양할데 대한 분공을 주시였다.

핵심성원들은 청년들을 선진사상으로 교양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나갔다.

그리하여 혁명조직을 내올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5(1926)년 10월 10일 조직을 내오기 위한 예비회의를 여시였다.

회의에서는 조직의 이름은 어떻게 달고 그 조직이 어떤 조직으로 되여야 하며 무엇을 위해 싸우고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ㅌ.ㄷ》)의 결성을 선포하시고 동맹의 당면과업과 최종목적을 밝힌 투쟁강령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이며 최종목적은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는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것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은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이였다.

그리고 최종목적은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는 모든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ㅌ.ㄷ》의 투쟁강령은 회의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회의참가자들은 앞을 다투어 토론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혁명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다 바치겠다는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책임자로 높이 모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전위조직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혁명조직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활동이 개시되고 조선혁명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후 우리 나라와 만저우의 넓은 지역으로 조직을 넓혀나가시였다.

전위조직—투쟁의 앞길을 헤쳐나가면서 전체 혁명력량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하는 혁명적인 조직.

강령—정당, 정치단체 또는 국가가 자기의 지도사상, 성격, 투쟁목적, 과업등을 밝힌 문헌.

3. 지린에서의 청년운동

비밀독서조 운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후 혁명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기 위하여 화디엔을 떠나 지린(길림)으로 자리를 옮기시였다.

그것은 화성의숙에서 배워주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은데다가 화디엔은 너무도 구석지고 뒤떨어진 곳이기때문이였다. 이런 곳에서는 다른 지방들과 련계를 가지기가 힘들었으며 날을 따라 넓은 지역으로 늘어나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조직을 옳게 이끌어나갈수 없었다.

이러한 불리한 점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원들과 후날 지린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시고 주체15(1926)년 12월 화디엔을 떠나시였다.

화디엔을 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께서 계시는 푸쑹으로 가시여 얼마간 계시다가 지린으로 가시였다.

지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을 크게 벌리시는데 매우 좋은 곳이였다.

이곳에는 조선사람들이 많이 살고있었으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중심지였다.

사방으로 길이 뻗어있어 다른 지역들과 련계를 맺기에도 좋은 곳이였다.

지린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린육문중학교(길림육문중학교) 2학년에 편입하시였다.

학교에 편입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보다도 선진사상을 탐구하는데 더 열중하시였다.

육문중학교 도서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많이 리용하신 학습장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교도서관 책임자로 되신 좋은 조건을 리용하여 혁명적인 책들을 사들이시고《공산당선언》과《어머니》를 비롯한 선진적인 책들을 많이 읽으시였다.

책을 읽으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겠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연구하시였다.

그리고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선진사상으로 무장한 새 세대 청년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하겠다고 결심하시였다.

지린육문중학교

주체6(1917)년에 세워진 사립학교이다.

10여채의 단층건물로 되여있었다.

당시 지린시내 많은 학교들가운데서 진보적인 학교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6(1927)년 1월부터 주체18(1929)년 가을까지 이 학교에 다니면서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청년학생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비밀독서조를 무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화전에서 얻은 경험을 참작하여 뜻이 통하는 몇몇 동무들로 먼저 육문중학교안에 비밀독서조를 조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뜻이 통하는 동무들로 먼저 육문중학교에 비밀독서조를 조직하신 다음 시안의 다른 학교들에도 독서조를 내오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문광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에도 비밀독서조들이 무어지게 되였다.

독서조 성원들이 늘어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내에 있는 정미소의 방 한칸을 얻어 도서실을 꾸리기로 하시였다.

그런데 맨주먹밖에 없는 조건에서 책도 사오고 책장도 갖추자니 어려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남학생들은 철도공사장에 가서 침목을 메나르거나 강가에서 자갈을 나르는 일을 하였고 녀학생들은 정미소에서 쌀에 섞인 벼알을 골랐다. 이

렇게 한푼두푼 힘들게 번 돈으로 도서실을 꾸렸다.

도서실을 꾸려놓은 다음에는 시내의 여러곳에 간단하면서도 구수하게 책을 소개하는 글을 써서 붙이였다. 그러자 많은 학생들이 앞을 다투어 도서실에 모여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책읽는 기풍을 세워주기 위하여 재미있는 소설책을 빌려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점차 혁명적인 책들을 읽도록 하시였다.

처음으로 선진사상이 담겨진 책들을 보게 된 청년학생들의 독서열의는 대단히 높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들속에서 선진적인 책들을 읽는 기운이 높아지자 독서발표모임을 자주 조직하시였다.

비밀독서조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 초시기 지린시안의 여러 학교들에 비밀리에 내오신 독서조이다.

비밀독서조의 목적은 청년학생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였다.

지린례배당이나 베이산(북산)공원 같은데서 독서발표모임을 여시고 《우리는 조선혁명을 어떻게 할것인가》, 《조선혁명의 현 단계》와 같은 우리 혁명에 써먹을수 있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게 하시였다.

이 시기 학생들속에서는 어느 한 국제회의에서 조선의 독립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다가 실패하자 배를 가르고 죽은 리준의 방법이 옳은가, 조선을 침략하는데 앞장섰던 일본의 이등박문놈을 쏘아죽인 안중근의 방법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벌어진적이 있었다.

그런데 토론에 참가한 학생들이 저마다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다보니 론쟁은 결판이 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례배당에 조선인학생들을 모여놓고 그 문제를 충분히 토론하게 한 다음 명백한 결론을 찾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마침내 청년학생들은 안중근이나 리준과 같은 방법으로는 나라를 찾을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지린에서는 비밀독서

조들이 더욱 활발히 운영되였다. 그 과정에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선진사상으로 무장하게 되고 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였다.

《공산당선언》—로동계급이 자본가계급을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세울데 대하여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밝힌 문헌.

소설 《어머니》—1906년에 창작된 로씨야의 장편소설로서 공장마을의 평범한 어머니가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강의한 투사로, 열렬한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형상한 작품.

청소년조직 결성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계속하시면서 그들을 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지린으로 가시기에 앞서 푸쑹에 가시여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하시였다.

당시 푸쑹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학교에 다니실 때 함께 공부하던 동창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많은 동무들이 살림이 어려워 상급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 파묻혀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쳐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주체15(1926)년 12월 15일 새날소년동맹을 무으시였다.

새날소년동맹에는 푸쑹시내와 그 일대의 애국적인 소년들이 망라되였다.

새날소년동맹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혁명적소년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지린에서 합법적인 청소년조직들을 무으시였다.

먼저 지린시안의 조선인소년들로 주체16(1927)년 4월에 조선인지린소년회(조선인길림소년회)를 내오시고 뒤이어 조선인려지학우회(조선인려길학우회)를 조선인류지학우회(조선인류길학우회)로 개편하시였다.

조선인려지학우회는 조선인류학생들로 무어진 조직이였는데 민족주의자들의 뒤받침을 받았다. 그러다보니 혁명적인 조직으로 되

지 못하고있었다.

이것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려지학우회를 혁명적조직인 조선인류지학우회로 개편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지린소년회나 조선인류지학우회가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강연회, 토론회, 가창대 등 여러가지 활동을 벌려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지린일대에서 청년학생들의 혁명활동이 활발히 벌어지자 이 소식은 넓은 지역으로 퍼져갔다. 그러자 여러곳에서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린으로 모여왔다.

이러한 청년들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나가자면 그들을 묶어세울수 있는 혁명조직이 있어야 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공산주의를 따르는 핵심청년들만이 들어갈수 있는 조직이였다. 따라서 일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수 있는 대중적인 조직이 필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16(1927)년 8월 2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시였다.

반제청년동맹은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청년들을 다 받아들이는 대중적인 지하혁명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넓은 지역들에 소년조직들과 청년조직들이 수많이 나오고 그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전위조직이 있어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16(1927)년 8월 28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의 선봉대로서 각계각층 대중단체들을 조직지도하는 전위조직이였다.》

공산주의청년동맹은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공산주의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조직이였으며 여러 혁명조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혁명적인 전위조직이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자기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여러 혁명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잘하며 청년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무어짐으로써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을 많이 키울수 있게 되고 전반적조선혁명을 통일적으로 밀고나가는 위력한 전위조직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동맹휴학, 지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조직에 묶어세운데 기초하여 그들을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지린육문중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육문중학교는 지린시내에서 그중 진보적인 학교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학교에 편입하여 혁명활동을 적극 벌리시자 학교는 더욱 혁명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학교가 점차 혁명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지자 반동군벌들은 이 학교에 제놈들의 앞잡이들을 교원으로 가장시켜 박아넣었다. 이놈들은 학교안의 진보적인 교원들과 학생들을 탄압하면서 불량한 청년들을 제놈들의 주위에 끌어당기였다.

학교안에 반동적인 교원들과 학생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공부도 마음대로 할수 없었고 혁명활동도 계속해나갈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동교원들을 내쫓기 위한 동맹휴학을 벌리기로 하시고 그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면밀한 준비를 갖춘 학생들은 주체17(1928)년 여름 일제히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반동교원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고 학생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들이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의 투쟁기세를 돋구기 위하여 반동교원들을 쫓아내라는 삐라와 격문들을 시내 곳곳에 붙이도록 하시였다.

한편 시내의 다른 학교들에서도 육문중학교 학생들의 투쟁에 따라나설 준비를 갖추게 하시였다.

육문중학교의 투쟁이 점차 지린시내의 다른 학교들에까지 번져질 기미가 보이자 겁을 먹은 반동군벌들은 하는수 없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훈육주임을 비롯한 반동교원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학생들의 투쟁은 승리로 끝났다.

동맹휴학의 승리는 일제와 반동군벌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청년학생들에게 단결하여 투쟁하면 얼마든지 이길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맹휴학의 승리에 기초하여 일제의 지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지회선이란 지린과 조선의 회령사이를 련결하는 철도를 말한다.

일제는 이 철도를 놓아 만저우를 침략할 군대와 군수물자를 빨리 실어오고 략탈한 물자를 제 나라로 더 많이, 더 빨리 가져가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이러한 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지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조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베이산공원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책임자회의를 여시고 투쟁목적과 의의, 투쟁구호와 투쟁방법, 행동방향을 밝혀주신 다음 시위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비가 갖추어지자 지린시안의 학생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주체17(1928)년 10월 각 학교의 학생들은 약속된 시간에 일제히 학교에서 모임을 가지고 거리에 떨쳐나섰다. 거리는 잠간사이에 수많은 학생들로 차고넘치였다.

그들은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자!》,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여 투쟁하자!》라는 구호를 힘차게 웨치며 군중대회가 열릴 광장으로 행진해갔다.

수백명의 군대와 경찰이 대렬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리 조직한 규찰대를 대렬앞에 세우고 적들의 총칼을 헤치며 군중대회장소로 대오를 이끌어가시였다.

시위대오가 광장에 도착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중대회를 여시고 학생들과 군중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광장에 모인 수천명 군중들에게 조중청년학생들은 단결하여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자고 호소하였다.》

군중대회를 끝마친 청년학생들은 일본령사관앞으로 행진해가서 반일구호를 부르며 기세를 올리였다. 그런 다음 지린의 여러 거리를 누비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시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였으며 일제침략자들과 반동군벌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투쟁기세가 높아진 청년학생들을 일본상품을 배척하는 투쟁에로 이끄시였다.

시위자들은 일본인상점에서 일본상품들을 끌어내여 불태우거나 쑹화강(송화강)에 처넣었다.

그해 11월까지 계속된 이 투쟁은 중국의 넓은 지역에로 확대되여 일제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40여일간에 걸쳐 벌어진 지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본상품배척투쟁은 우리 인민이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반일대중투쟁이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이 투쟁을 통하여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것을 심장깊이 느끼였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목마르게 기다리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향도성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다.

차광수, 김혁선생님을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모시겠는가를 생각하였다.

생각을 거듭하던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한별**동지 즉 한 일자와 별 성자를 써서 **김일성**(金一星)동지로 부르기로 하였다.

그것은 조선인민을 캄캄한 어둠속에서 해방의 새벽길로 이끄는 새별이 되여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였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칭송한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도 지어 보급하였다.

이 존함과 노래에는 탁월한 수령을 맞이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의 감격과 기쁨이 그대로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지들과 인민들의 사랑과 기대가 커갈수록

조선혁명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울 결심을 더 굳게 다지시였다.

얼마후 인민들속에서는 그토록 위대하신분을 어찌 새별에만 비기겠는가, 마땅히 온 누리에 빛과 열을 주고 만물에 생을 주는 태양에 비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것은 그처럼 바라던 참된 령도자를 맞이한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이 뜨거운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날 일자와 이룰 성자를 써서 **김일성**(金日成)동지로 다시 지어 불렀다.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신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수령님의 령도따라 더 억세게 싸워나갔다.

중국반동군벌—중국군사반동정권의 권력을 쥐고있던 중앙과 지방의 우두머리집단.

4. 주체사상, 선군사상 창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선혁명이 나아갈 옳바른 길을 찾기 위하여 힘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성의숙과 지린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면서 수많은 책들을 읽으시였으며 혁명투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시였다.

그러나 그 어느 책에도 우리 나라와 같이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조건에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것을 밝힌것이 없었다.

혁명투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 현실에는 전혀 맞지도 않는 말공부나 하고 권력싸움만 하였다.

그 어느 책이나 그 누구에게서도 조선혁명이 나아갈 옳바른 대답을 찾을수 없으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체로 혁명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겠다고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의 《지원》의 사상과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사상 그리고 자신께서 어린시절부터 간직하신 나라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지도사상을 창시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시였다.

그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8(1929)년 가을 중국반동경찰에 체포되시여 지린감옥에서 옥중생활을 하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옥안에서도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는 한편 이미전부터 구상하여오신 사상을 하나하나 정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나라를 찾는 싸움을 한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가를 분석하시였다.

지난날 나라를 찾는다고 하던 사람들의 결함의 하나는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대중과 동떨어져있는것이였다.

그들은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만이 혁명을 하는것으로 생각하면서 인민대중을 보잘것 없는 존재로 여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현상들을 보시면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투쟁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혁명의 새로운 진리를 찾으시였다.

나라를 찾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가지고있던 결함의 다른 하나는 자기 힘으로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만 쳐다본것이였다.

그들은 쏘련이나 미국과 같은 큰 나라만 쳐다보면서 그들의 도움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고 어리석게 생각하고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끔 화요파요, 엠엘파요 하는 여러 파벌을 만들어놓고 자기 파의 세력을 늘이려고 하는 한편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려고 돌아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혁명은 그 누구의 도움이나 승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결심에 따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혁명의 진리를 발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으신 이 두가지 진리는 위대한 발견이였으며 그것은 새로운 혁명사상을 밝히는데서 기초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진리에 기초하여 혁명의 지도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을 밝혀주는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도사상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과 함께 그를 뿌리로 하는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두자루의 권총을 물려받으시고 《ㅌ.ㄷ》의 강령을 제시하시여 선군사상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그후 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가시는 과정에 쌓으신 투쟁경험으로부터 혁명이자 총대이고 군대이자 겨레의 운명이라는 진리를 발견하시였다.

그리고 이 진리에 기초하여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군사를 앞세우고 혁명군대를 주력으로 하여 전반적혁명운동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군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은 승리와 영광의 길, 선군의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지원》－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뜻을 크게 가져야 한다는 사상.

5. 카룬회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만저우를 먹기 위한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우리 인민에 대한 탄압과 략탈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였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세차게 벌렸다. 그러나 옳은 로선과 방침에 따라 투쟁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실패만을 거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19(1930)년 5월초 지린감옥에서 나오시여 둔화현(돈화현) 쓰다오황거우(사도황구)로 가시였다.

쓰다오황거우는 둔화에서 60리쯤 떨어진 산골마을이였다. 이

곳은 다른 지방과 련계를 가지기 좋고 이미전부터 혁명활동을 하던 조직성원들도 있는 곳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 오신 후 감옥에서 쇠약해지신 몸을 돌보실 사이도 없이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감옥에서 무르익히신 구상을 정리하며 앞으로 있게 될 회의에서 할 보고를 준비하시였다.

한편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여러 혁명동지들에게 련락을 띄워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종파분자들이 일으킨 5.30폭동이 험하게 번져졌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 **5.30 폭동**
>
> 1925년 5월에 있은 상하이(상해)시민들의 투쟁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좌경분자들의 지시에 따라 1930년 5월에 벌어진 폭동이다.
>
> 이 폭동을 벌릴데 대한 지시가 내려오자 종파분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군중을 폭동에로 내몰아 혁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폭동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놈들의 총칼에 쓰러지고 혁명조직들이 파괴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동지들을 통하여 5.30폭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종파분자들과는 달리 인민대중에게 옳바른 투쟁방법과 전술을 가르쳐주고 민족이 나아갈 진로를 밝혀준다면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감옥에서 무르익히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동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문제들을 적극 지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혁명조직성원들에게 5.30폭동으로 하여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할데 대한 과업을 주어 여러 지역으로 떠나보내시면서 6월말에 카룬(卡倫)에서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쓰다오황거우에서 얼마간 활동하다가 카룬으로 가시였다.

혁명동지들은 약속대로 6월말에 카룬에 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19(193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카룬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를 여시였다.

회의는 진명학교 교실에서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날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우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원리를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떨쳐일어나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이기때문에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 **진명학교**
>
>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17(1928)년 조선 농민들의 자녀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기 위하여 카룬의 쟈쟈툰마을에 세워주신 4년제학교이다.
>
> 카룬회의가 진행된 뜻깊은 곳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은 혁명적무력으로 때려부셔야 한다는 원리를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또한 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시였다.

당시 우리 인민은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착취와 압박을 받았다. 우리 인민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일제놈들때문이였다. 게다가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농민들은 지주놈들에게도 피땀을 빨리웠다.

따라서 우리 인민은 일제와 봉건지주계급을 때려부시고 민주주의독립국가를 세워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하시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란 제국주의침략자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과 봉건지주계급을 반대하여 싸우는 반봉건혁명을 다같이 수행하는 혁명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혁명에 참가할수 있는 사람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과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종교인 등이였다.

이 혁명에서 때려부셔야 할 대상은 일제와 그 앞잡이들인 지주, 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또한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를 수

행하기 위한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당시 일제는 우리 인민을 총칼로 억누르고있었다. 그러므로 무장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자면 무장을 들고 맞서싸워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을 벌리자면 그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면하여 조선혁명군을 내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무장투쟁을 벌릴수 있는 여러가지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일제를 반대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를 찾자면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묶어세워야 하였다. 그래야 굳게 뭉친 힘으로 놈들을 때려부시고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로동자, 농민은 물론 종교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에 이르기까지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끝으로 혁명적당을 창건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을 때려부시고 우리 나라에 인민대중이 잘사는 새 사회를 세우자면 그 투쟁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적당이 있어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혁명적당은 우리의 힘으로 창건하되 아래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며 당창건준비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를 열렬히 지지찬동하였다.

첫날 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로 끝났다.

다음날부터 회의는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강가나 버들숲에

서 진행되였다.

여기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회의 마지막날인 7월 2일 밤에는 다시 진명학교 교실에 모여 분공안을 발표하고 회의를 끝마쳤다.

카룬회의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창시를 선포하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밝힌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히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비로소 혁명투쟁의 참다운 길을 찾게 되였다.

민족자본가—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 다른 나라 자본가들에게 예속되지 않은 중소자본가.

소자산계급—생산수단을 가지고 주로 자기의 로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 주로 중농과 도시수공업자, 소상인들이 속한다.

6. 항일무장투쟁 준비

첫 당조직 결성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시면서 혁명적당조직을 결성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돌리시였다.

당은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라고 말할수 있다.

당이 있어야 우리 혁명을 옳게 이끌어나갈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당을 어떤 방법으로 내오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지난 시기 다른 나라들에서는 당중앙을 먼저 내오고 점차 아래 당조직을 꾸려나가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였다.

종파분자들도 다른 나라에서처럼 당을 창건하려고 하였다.

종파분자들이 하는것처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중앙을 먼저 내오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면 당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었다. 또한 일제놈들이 우리 혁명을 총칼로 가혹하게 탄압하는 조건에서 견디여낼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창건은 당중앙을 먼저 내오는 방법으로

가 아니라 기층당조직부터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카륜회의가 있은 다음날인 주체19(1930)년 7월 3일 당조직을 내오기 위한 회의를 여시였다.

회의에는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첫 당조직을 무으신 다음 그의 결성을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첫 당조직에는 김형권, 차광수, 김혁, 최창걸선생님을 비롯한 핵심적인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망라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기층당조직을 하루빨리 넓은 지역에로 늘여나가며 대오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신 후 그 이름을 건설동지사라고 부르도록 하시였다.

건설동지사라는 이름에는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고 동지들을 묶어세워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는 우리 당의 태아였고 씨앗이였으며 당의 기층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데서 모체적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으신 첫 당조직은 우리 당의 태아였고 씨앗이였다. 그리고 앞으로 기층당조직을 내오고 늘여나가는데서 모체적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 당조직을 결성하심으로써 당조직의 지도밑에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첫 당조직을 내오신 다음 그것을 모체로 하여 여러 지역에 당조직을 빨리 늘여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첫 당조직성원들에게 당조직을 늘일데 대한 과업을 주어 여러 지역에 파견하시였다.

그리고 국내에 당조직을 내오기 위하여 몸소 그해 가을 두만강을 건너 온성지구에 나오시였다.

온성지구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성군 두루봉에서 이곳 혁명조직의 핵심성원들로 국내당조직을 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성지구에 당조직을 내오신 다음 국내 여러곳에 당조직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그리하여 온성일대는 물론 회령지구를 비롯한 여러곳에 당세포와 당분조들이 조직되였다.

한편 각지에 파견된 첫 당조직성원들도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는 만저우의 넓은 지역에 당조직을 늘여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내와 만저우의 여러 지역에 기층당조직들이 늘어남으로써 당창건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뿐아니라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준비사업을 더 잘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기층당조직—당원들이 직접 속하여 조직생활을 하는 맨 아래단위의 당조직.

조선혁명군 결성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준비하는데서 기본을 이루는 무장대오를 꾸리고 군사정치적경험을 쌓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무장투쟁을 벌리자면 대원들과 대오를 지휘할 지휘관이 있어야 하였고 무기도 갖추어야 하였다.

그런데 그때에는 군사경험을 가지고있는 사람도 얼마 없었으며 무기도 몇자루밖에 없었다.

결국 무기도 자체로 마련하고 군사정치적경험도 스스로 쌓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무장투쟁준비를 위한 첫 사업으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였다.

조선혁명군을 결성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사람과 무기를 해결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부터 키워오신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무장조직의 핵심으로 삼으시였다.

한편 독립군가운데서 선진적인 청년들을 교양하여 혁명군에 받아들이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무기를 얻기도 하고 일본놈들의 무기상점에서 몰래 총을 빼오게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준비밑에 주체19(1930)년 7월 6일 구위수(고유수) 삼광학교에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은 공산주의리념에 의해서 지도되며 군중정치사업도 하고 군사활동도 하는 정치 및 반군사조직이였다.》

조선혁명군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조선혁명가들의 첫 무장조직이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 및 반군사조직이였다.

조선혁명군의 기본사명은 도시와 농촌에 들어가 인민대중을 교양하여 혁명조직에 묶어세우면서 무장투쟁의 경험을 쌓고 앞으로 무장투쟁을 벌리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군을 여러개의 대로 편성하고 그 책임자들을 임명하시였다.

조선혁명군의 첫 대오에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권선생님을 비롯한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망라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신 다음 무장투쟁준비를 적극 다그쳐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혁명군 소조들을 여러 지역에 파견하시였다.

여러 지역에 파견된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눈부신 군사정치활동을 벌렸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선생님께서는 조선혁명군의 한 소조를 이끌고 국내에 진출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풍산군(김형권군) 파발리에 이르러 이곳 악질순사부장 《오빠시》놈을 처단하여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였다.

그리고 모여온 군중들앞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울것을 호소하시였다.

무장소조는 풍산에서 일제놈의 자동차를 빼앗아 타고 후치령을

넘었다.

무장소조는 이 일대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벌리고 수림속 나무들에 《**한별**은 조선의 지도자, 받들자 **한별**》, 《독립조선 만세 1930년》 등 혁명적구호들을 써서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 일대에서 활동을 마친 무장소조는 북청방향으로 나와 무장소조를 찾아 돌아치던 적들을 습격소멸하였다.

적들을 소멸한 후 무장소조는 홍원방향으로 진출하다가 불의에 맞다든 적들과 용감히 싸웠다.

조선혁명군의 다른 무장소조들도 우리 나라 여러 지역들과 만저우의 넓은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조선혁명군은 도처에서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삼광학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 초기에 구위수에서 청소년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면서 혁명가로 키우신 4년제학교이다.

이 과정에 군사정치적경험도 쌓고 무장도 갖추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편 삼광학교에 고등과를 내오고 청년학생들에게 군사정치교육을 주어 그들을 지휘관들로 키우시였다.

또한 조선혁명군 성원들과 혁명조직들에서 선발된 우수한 청년들에게도 강습을 주어 핵심으로 키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짧은 기간에 조선혁명군은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무장투쟁을 벌릴수 있는 준비가 하나하나 완성되여갔다.

혁명조직의 복구와 농촌혁명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신 다음 무장투쟁을 벌리기 위한 대중적지반을 쌓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쌓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것은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하고 농촌을 혁명화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5.30폭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혁명조직을 파괴한 종파분자들은 그해 8월에 또다시 부질없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 폭동으로 하여 또 많은 혁명가들이 일제놈들에게 잡혀가거나 몸을 피해 여기저기 흩어져 혁명조직들이 파괴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하기 위하여 하루에도 몇차례씩 변장을 해가시면서 지린과 하이룽(해룡), 쟈오허(교하)와 하얼빈(할빈) 등 여러곳으로 자리를 옮기며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하이룽으로 가실 때에는 장워이화(장울화)선생님의 도움으로 적들의 삼엄한 경계에서 벗어나시였고 쟈오허에서는 이름 모를 한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시였다.

하얼빈에서 활동하실 때에는 적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급려관에 들기는 하시였으나 돈이 없어 려관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시고 밖에 나가 값눅은 강냉이지짐 한두개로 끼니를 에우기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조직들이 다시 살아움직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파괴된 조직을 복구하는 한편 농촌혁명화를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의 혁명화는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리였다.》

그때 만저우나 우리 나라는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었으므로 농촌을 혁명화하는것은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쌓는데서 매우 중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주체19(1930)년 가을 우쟈쯔(오가자)마을로 오시였다. 이 마을은 처음 생길 때 조선사람들의 다섯집이 모여 꾸렸다고 하여 우쟈쯔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우쟈쯔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농촌혁명화의 경험을 쌓고 그것을 일반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쟈쯔마을을 혁명화하는데서 마을의 완고한 늙은이들을 교양하는데 먼저 관심을 돌리시였다.

마을을 세운 완고한 늙은이들은 우쟈쯔에 민족주의사상외에 다른 사상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을을 혁명화하자면 이 마을의 좌상인 변로인부터 돌려세워야 한다고 보시고 그 로인을 찾아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가시였을 때 변로인은 김형직선생님의 자제분을 뵈워 반갑다고 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자기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그는 우쟈쯔의 좋은 점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설명하였다.

변로인은 우쟈쯔에는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으며 조선사람들끼리 모든 일을 의논하여 풀어간다고 자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인의 짧은 생각을 깨우쳐주리라 생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 이만큼이라도 마을을 꾸린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이런 마을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독립할수 있겠는가고 물으시였다.

한동안 말이 없던 로인은 마침내 이런 방법으로는 독립을 못한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 로인에게 카룬회의에서 밝히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해설해주시면서 2천만의 조선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일제와 싸워야 나라를 찾을수 있다는것을 차근차근 설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리정연한 말씀은 로인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후부터 로인은 마을일을 위대한 수령님께 통채로 맡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변로인을 비롯한 마을의 완고한

로인들을 돌려세우신 다음 마을을 혁명촌으로 개조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이미 있던 대중단체들을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청년회는 반제청년동맹으로, 농우회는 농민동맹으로, 소년학우회는 소년탐험대로 개편되였다.

개편된 혁명조직들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조직에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우쟈쯔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혁명조직에 망라되였고 마을에는 혁명적인 분위기가 차넘치였다.

삼성학교에서는 돈 한푼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켰으며 야학방에서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도 배워주고 혁명적인 노래도 배워주었다.

또한 연예선전대를 조직하여 《꽃파는 처녀》와 같은 작품도 공연하고 중요한 기념일에는 여러가지 행사도 조직하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쟈쯔마을은 짧은 기간에 혁명촌으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쟈쯔마을을 혁명화하신 경험에 기초하여 여러 지역에서 농촌혁명화를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삼성학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 초기에 우쟈쯔에서 청소년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면서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신 학교이다.

그리하여 많은 농촌지역이 혁명화되고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이 마련되게 되였다.

대중적지반—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해나가는데서 당이나 혁명조직 등이 의거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

제2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

〔주체20(1931). 12－주체34(1945). 8〕

1. 항일무장투쟁 조직전개

밍위에거우회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사업은 마지막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조선혁명군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군사정치적경험을 쌓은 핵심들이 수많이 자라났다.

여러곳에 많은 혁명조직들이 나오고 농촌혁명화가 적극 다그쳐져 대중적지반도 닦아졌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31년 9월 18일 일제는 만저우사변을 일으키고 중국동북지방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일제가 쳐들어오자 만저우에 있던 30만명이나 되는 중국동북군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쳤으며 통치배들은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하여 중국동북지방의 반동군벌통치체계는 무너지고말았다.

한편 일제가 아직 통치기구를 세우지 못한 때여서 농촌지대와 산간지대에는 그 어떤 통제도 미치지 못하고있었다.

만저우사변(9. 18사변)

만저우사변은 1931년 9월 18일 일제가 중국동북지방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한 사건이다.

일제는 오래전부터 만저우를 침공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9월 18일 밤 난만저우(남만주)철도 류탸오거우(류조구)다리를 제놈들이 파괴하고 그 책임을 중국측에 넘겨씌우고는 이른바《자위적조치》라고 하면서 중국군대병영을 불의에 습격점령한 후 중국동북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침략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농촌지대와 산간지대를 타고앉아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려나갈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되였다.

참으로 무장투쟁을 벌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세를 꿰뚫어보시고 주체20(1931)년 12월 밍위에거우(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우선 전체 인민이 떨쳐나 무장투쟁을 벌려야 하며 무장투쟁은 유격전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무장투쟁형식에는 정규전과 무장봉기, 유격전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정규군대가 없으므로 정규전을 벌릴수 없고 또 전체 인민이 당장 무장봉기에 떨쳐나설만큼 준비되지 못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유격전이 가장 알맞는 무장투쟁방법이라고 하시였다.

유격전은 적의 강점지역이나 적후방에서 유격대가 인민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적을 족치는 무장투쟁의 한 방법이다.

유격전을 해야 자체의 력량을 보존하면서도 적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수 있고 적은 력량을 가지고도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을 소멸할수 있었다.

하기에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적극 지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또한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벌리기 위한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자면 청년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무장대오를 꾸리고 검열된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을 받아들여 그 대오를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무기는 적들의것을 빼앗거나 자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와 함께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유격대를 지방마다 꾸리고 점차 대부대로 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근거지를 창설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튼튼한 유격근거지가 있어야 전투가 끝난 다음 휴식도 하고 군사훈련도 할수 있으며 부상자도 치료하고 무기와 탄약도 보충할수 있었다.

그리고 일제의 학살만행으로부터 혁명조직성원들과 혁명군중을 보호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만강연안의 산간지대와 혁명화된 농촌지역에 유격근거지를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것은 이런 지역이 적들이 쳐들어오기에는 불리하고 유격대가 방어하기에는 좋은 곳이였기때문이다. 더우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나 일제를 미워하고 유격대를 도와나설수 있는 사람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대가 의거하여 활동할수 있는 대중적지반을 닦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유격전은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가해야만 승리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중적지반을 닦자면 모든 사람들을 조직에 받아들여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실지 투쟁속에서 단련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인민들과 힘을 합쳐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여기서 긴급하게 나서는 과업은 중국인반일부대들과 손잡고 일제와 싸우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 지역에 당조직들을 내오고 공청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도하신 12월밍위에거우회의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이 회의를 계기로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항일전쟁이 정식으로 선포되였다.

정규전－국가에 의하여 조직된 군대가 국가로부터 인원과 무기, 물자를 보장받으며 정규전법과 전술에 따라 적과 직접 맞서 진행하는 전쟁.

무장봉기－외래침략자들과 반동적통치계급을 반대하여 광범한 군중이 손에 무장을 들고 일어나 싸우는 혁명투쟁.

반일부대－만저우를 강점한 일제를 반대하여 중국동북지방에서 싸운 중국민족주의 무장부대.

반일인민유격대 창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밍위에거우회의가 끝난 후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작원들에게 각 지방에서 작은 규모의 유격대를 조직할데 대한 과업을 주어 왕칭(왕청), 옌지현(연길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파견하시였다.

각지에 파견되는 공작원들은 유격대를 뭇는 사업이 처음하는 일이여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아무 일이나 표본이 있고 시범이 있기 마련인데 유격대창건사업에서도 수령님께서 시범을 창조해주실것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제의를 받고 곧 안투(안도)에 나오시여 각지에서 벌어지는 유격대창건사업을 전반적으로 지도하시면서 이곳에서 시범적으로 작은 규모의 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유격대오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격대를 조직하신다는 소식은 국내에까지 퍼져갔다.

그러자 곳곳에서 유격대에 입대하겠다고 많은 청년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들은 군사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을 유격대에 받아들이자면 무엇보다도 군사훈련을 시켜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에 밝은 한 청년에게 유격대에 받아들일 청년들을 훈련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자기가 배운 다른 나라의 싸움법을 가르치려고 하였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유격전에서 써먹을수 있는것부터 배워주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리하여 훈련에서는 무기를 다루고 총을 쏘는 방법, 신호하는 방법, 매복과 습격전투를 하는 방법, 동서남북을 가려보는 방법

등 유격대활동에 필요한것부터 배워주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훈련을 통하여 청년들이 유격전쟁에 필요한 군사지식을 가지게 되자 그들가운데서 핵심성원들을 골라 주체21(1932)년 3월 안투에서 작은 규모의 첫 유격대를 조직하시였다.

안투에서 시범적으로 작은 규모의 유격대가 조직되자 그 모범을 따라 지방에 파견된 공작원들도 자기 지방들에서 작은 규모의 유격대를 조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오를 꾸리는것과 함께 무장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무기를 마련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곤난하다 곤난하다 하여도 무기를 해결하는 일처럼 그렇게 큰 난관은 없었다.》

무기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였다. 무기가 없이는 유격대를 창건할수도 없었고 적과 싸울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무기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두자루의 권총을 높이 쳐드시고 동지들에게 지금은 이 두자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을 2 000자루, 20 000자루가 되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대중을 불러일으키시고 몸소 적의 무기를 빼앗기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이끄시였다.

그때 안투현 샤오사하(소사하)의 한 중국인지주는 40명가량 되는 보위단을 가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지주집에 대한 정찰을 조직하신 다음 유격대와 적위대원들로 습격조를 무어 지주놈의 집을 습격하여 10여자루의 총을 빼앗아내시였다.

다른 지방들에서도 적의 무기를 빼앗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이 투쟁에는 청년들은 물론 로인들과 소년들 지어 녀성들까지 모두 떨쳐나섰다.

어느날 두 녀성은 강가에서 빨래를 하는척 하다가 순사놈이 다가와 자기를 업어 건늬라고 하자 그놈을 업고 강복판에 가서 자빠뜨린 다음 빨래방망이로 내리까고 총을 빼앗았다.

또 어떤 로인들은 밥상다리로 만든 가짜권총을 밤에 적들의 가슴팍에 내대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총을 빼앗았다.

소년들은 집에 달려든 경찰놈에게 고추가루를 뿌려 눈을 싸쥐고 돌아갈 때 족치고 무기를 빼앗아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적의 무기를 빼앗았다.

이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한자루의 총을 위하여 귀중한 생명까지 바치였다.

참으로 한자루한자루의 총마다에는 혁명가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의 무기를 빼앗는 한편 여러곳에서 창이나 칼, 권총, 폭탄과 같은 무기를 만들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그처럼 어려웠던 무장을 해결하는 문제가 풀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오와 무장을 갖추는것과 함께 앞으로 유격대가 의거하여 싸울 두만강연안 농촌들을 혁명화하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특히 푸얼하(푸르허)마을을 혁명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푸얼하는 여러 마을을 련결하는 중요한 곳에 자리잡고있는 마을이였다. 혁명조직에서는 공작원들을 여러번이나 파견하였지만 가는 사람마다 실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헤아리시고 이 어려운 과업을 자신께서 맡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마을에 혁명조직성원의 집 머슴으로 가장하고 들어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여 물도 긷고 마당도 쓸고 나무도 해오시였다. 때로는 마을녀인들의 부탁대로 우물가의 얼음도 까시였다. 또 어떤 날에는 동네 잔치집에서 떡을 쳐달라는 부탁도 받으시였다.

그럴수록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진짜 머슴으로 대해주는것이 오

히려 혁명사업에 더 좋다고 생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머슴살이》를 하시면서 혁명조직들을 내오고 사람들을 교양하여 조직에 묶어세우시였다.

그리하여 한달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반동소굴》이라고 하던 이 마을을 혁명적인 마을로 만드시였다.

그러신 다음 여기서 얻은 경험을 각지에 파견되는 공작원들이 본받게 하시였다.

정치공작원들은 무장투쟁을 벌릴 두만강연안의 여러 지역에서 농촌마을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편 농민들을 일제와 반동지주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켜 그들을 실천투쟁속에서 단련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두만강연안 농촌지역들은 유격대가 발을 붙이고 무장투쟁을 벌릴수 있는 지역으로 전변되였다.

유격대를 창건하는 사업에서는 이밖에 또 하나의 난관이 가로 놓여있었다.

그것은 조선사람들을 원쑤처럼 여기는 중국인반일부대의 그릇된 행동이였다.

당시 중국동북지방에는 일제를 반대하여 무장을 든 반일부대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중국인반일부대는 일제의 꾀임에 속아 조선사람이 일본놈들과 한짝인듯이 생각하며 조선사람들이라면 덮어놓고 잡아죽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오던 많은 애국적인 청년들도 반일부대에 붙잡혀 죽었다.

도시와 벌방에서는 일제놈들이 날치고 일제가 미처 차지하지 못한 농촌과 산간지대들에서는 반일부대가 조선사람들의 활동을 가로막았다.

반일부대와의 관계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유격대를 창건해도 마음대로 활동할수 없었다.

이 문제를 풀자면 대담하게 반일부대우두머리들과 만나 담판을 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반일부대가 조선사람이라면 덮어놓고 잡아죽이기때문에 그들과 담판을 하러 간다는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몸의 위험도 가리지 않으시고 안투에

있는 위사령(우사령)부대를 찾아가시였다.

위사령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사람들을 덮어놓고 원쑤처럼 여기는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시고 조중인민이 힘을 합쳐 일제를 족쳐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리정연한 말씀과 높은 인품에 끌린 위사령은 함께 손잡고 싸울것을 약속하였다.

유격대를 창건하는데서 가장 큰 난관의 하나로 나섰던 반일부대와의 문제도 풀리게 되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이렇게 완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주체21(1932)년 4월 25일 안투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반일인민유격대창건식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시고 반일인민유격대가 어떤 군대이며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가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조직되였으며 진정으로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는 혁명적인 무장력입니다.

인민유격대의 목적과 사명은 조선에서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달성하는것입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혁명군대이며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조직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였다.

그리고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싸우는 혁명무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벌리기 위한 과업도 밝히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맨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선군혁명의 위력한 핵심력량이 마련되였다.

그리고 조선혁명을 선군의 원칙에서 힘있게 전개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바로 이때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시작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 다음 인차 난만(남만)과 베이만(북만)진출을 조직하시여 짧은 기간에 유격대를 강력한 전투대오로 꾸리시였다.

둥만(동만)—중국동북지방의 동남부지역. 즉 안투현, 옌지현, 허룽현(화룡현), 왕칭현, 훈춘현지역.

난만—중국동북지방의 서남부지역.

베이만—중국동북지방의 북부지역.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 창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유격대를 창건하신 다음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오늘 우리앞에는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는 문제가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고있습니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되여 우리 인민은 일제와 무장으로 맞서 싸울수 있는 위력한 군대를 가지게 되였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놈들과 맞서 싸우자면 반일인민유격대가 의거하여 유격전을 벌릴수 있는 튼튼한 기지를 마련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만강연안의 산악지대에 유격구들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1(1932)년 5월말 안투현 샤오사하에서 시범적으로 유격구를 창설하시였다.

이를 계기로 유격구창설사업은 빨리 추진되였다.

유격구를 창설하자면 일정한 지역에서 적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들을 차지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들이 여러곳에서 적을 쳐부시고 두만강연안의 산악지대를 장악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여기에 혁명군중을 집결시키시였다.

혁명군중은 유격대의 보호를 받으며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유격구에 모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군중이 모여오는데 따라 그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고 유격근거지에 반일자위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들을 내오게 하시였다.

한편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21(1932)년 여름부터 그 이듬해 초까지 불과 몇달사이에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수많은 유격구들이 창설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구주변에 반유격구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반유격구는 형식상 적들이 통치하고있으나 실지로는 유격대와 혁명조직이 장악하고있는 혁명화된 지역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낮에는 적의 세상이지만 밤에는 인민의 세상인 지역을 말한다.

유격구주변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를 창설하면 식량, 피복, 약품 등 후방물자를 구입하는데 매우 유리하였다.

또한 적들의 움직임을 제때에 알아내여 놈들의 기도를 파탄시킬수 있었다.

그런데 종파분자들은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구창설만 내세우면서 반유격구를 창설하는것을 반대하였다.

이자들은 유격구는《적색구역》이고 적통치구역은《백색구역》이라고 하면서 적통치구역의 인민들과 중간지대 인민들에게《반동군중》,《량면파군중》이라는 딱지를 붙여 의심하고 멀리하였다.

종파분자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하여 많은 군중을 잃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유격구창설을 반대하는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타격을 주시고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유격구주변 넓은 지역에 파견하시였다.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들속에 여러가지 혁명조직을 내오고 거기에 인민들을 묶어세웠다.

한편 혁명조직성원들이 구장, 순사와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적들을 돕는척 하면서 혁명사업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온성을 비롯한 북부조선일대와 만저우의 유격구주변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가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반유격구가 꾸려져 유격대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수 있게 되고 인민들로부터 식량을 비롯한 많은 후방물자를 지원받을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유격근거지가 창설됨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신 후 근거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구에 인민정권을 세우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새 생활을 마련해주자면 인민정권이 있어야 하였다.

그런데 유격구를 창설한 초기에 종파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정권을 내오는데서는 혼란이 일어났다.

이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하고있는것을 그대로 본따서 일부 유격구들에 쏘베트를 세워놓았다.

쏘베트정권은 쏘련에서 혁명이 승리한 후에 세운 사회주의정권이였다.

종파분자들은 쏘베트정권을 내온 다음 당장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토지로부터 낫, 호미 같은 농쟁기와 식량은 물론 숟가락, 저가락까지 다 걷어들여 공동의 소유로 만들었다.

지어 유격대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재산이 조금만 있으면 착취자라고 하면서 재산을 빼앗고 유격구에서 내쫓았다.

쏘베트정권의 이러한 시책은 유격구인민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혼란을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몰래 유격구를 떠나기까지 하였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유격구를 튼튼히 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2(1933)년 2월 왕칭현 마촌에서 회의를 여시고 일부 유격구들에 세워진 쏘베트정권을 인민혁명정부로 개편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인민혁명정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정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구들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기 위하

여 공작원들을 파견하시고 몸소 유격구들에 나가 이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시범적으로 구인민혁명정부를 세우는 모임을 지도하기 위하여 쟈야하(가야허)로 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임에 앞서 농민들과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쏘베트정권대신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정부를 세우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한 로인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마음고생을 하지 않고 살수 있게 해주는 정부만 세워주면 원이 없겠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로인의 말을 들으시고 농민들에게 쏘베트정권대신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정부는 조국을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그들의 숙망을 풀어줄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숙망이 무엇입니까? 땅을 가지는것, 로동의 권리를 가지는것, 자녀들을 교육시키는것,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것… 인민혁명정부는 이 모든 소원을 죄다 풀어줄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설명을 듣고 인민들은 인민혁명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 모임이 있은 후부터 쏘베트를 인민혁명정부로 개편하는 사업이 빨리 진척되였다.

그리하여 그해 여름까지 두만강연안의 유격구들에 인민혁명정부가 세워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신 다음 유격구들에서 여러가지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구인민들에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주시였다.

그리고 일제와 반동들이 가지고있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로동자들에게 8시간로동제를 실시하며 온갖 세금을 없애시였다. 녀성들에게는 남자와 꼭같은 권리와 자유를 주시였다.

또한 아동단학교를 세우고 돈을 받지 않고 공부시키는 무료교육을 실시하시였으며 유격구들에 병원을 세우고 인민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게 하시였다.

이처럼 유격구에 새 세상이 세워지자 쏘베트정권때 불만을 품고 유격구를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왔다.

유격구에서는 아이들이 부르는 혁명가요와 글읽는 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유격구는 환희로 들끓었다.

참으로 유격구는 착취와 압박이 없고 인민이 주인이 된 새 세상이였다.

왕재산회의

왕재산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된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넓혀나갈것을 항상 마음속깊이 간직하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국이 있었고 하루빨리 나라를 찾고 인민들을 잘살게 하고야말겠다는 굳은 결심이 자리잡고있었다.

때문에 유격구도 국내와 잇닿은 두만강연안에 창설하시였고 온성을 비롯한 국내인민들을 묶어세우는데 큰 힘을 돌리시였다.

한편 일제는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유격구가 꾸려지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자 그 혁명적영향력이 국내인민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놈들은 우리 나라 국경일대에 많은 군대를 배치하여놓았으며 두만강과 압록강을 마음대로 건너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넓혀나가는것을 반대하였다.

이자들은 중국땅에서 활동하는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을 위하여 싸우는것은 민족주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유격대원들이 국내에 들어가 정치공작을 하고 돌아오면 잡아가두기까지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발대를 먼저 온성지구에 보내여 두만강연안의 적경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한편 국내혁명조직들과 련계를 맺게 하시였다.

그리고 끌끌한 대원들로 국내진출대오를 뭇고 모든 준비를 철저히 갖추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준비가 갖추어지자 부대를 이끄시고 온성지구로 향하시였다.

부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샤오왕칭(소왕청)을 떠나 량수이취엔쯔(량수천자) 솔골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부대는 온성땅에 먼저 들어간 선발대를 기다리면서 한주일가량 머물렀다.

이 기간 낮에는 정치학습과 군사훈련을 하고 밤에는 인민들속에 들어가 혁명조직을 내오면서 반유격구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아침이면 주인로인이 일어나기도 전에 마당을 쓸고 강가에 나가 물을 길어오군 하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물을 길러 두만강에 나가서 얼음을 까시다가 그만 도끼를 강물에 빠뜨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긴 장대기를 가지고 몇시간동안 강바닥을 더듬으시였으나 도끼는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로인에게 도끼값을 후하게 주고 사과하시였다.

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매일 아침 물을 길어주신것만 해도 황송한 일인데 도끼값까지 어떻게 받겠는가고 하면서 사양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어이 그 로인에게 도끼값을 후하게 물어주시였다.

드디여 국내에 들어갔던 선발대로부터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는 련락이 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진출대오를 이끄시고 감쪽같이 두만강을 건너 왕재산마루에 오르시였다.

이곳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있던 온성지구의 혁명조직책임자들

과 정치공작원들은 감격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조직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로부터 국내형편과 활동정형을 보고받으시였다.

그러신 다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2(1933)년 3월 이곳 왕재산에서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원쑤들의 책동이 악랄하고 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항일무장투쟁을 반드시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넓혀나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국내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를 더 많이 꾸리고 그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국내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를 많이 꾸리고 튼튼히 해야 유격대가 들어와 활동할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청년들을 받아들여 부대를 빨리 늘일수 있었으며 국내인민들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반유격구를 온성뿐아니라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넓혀나가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전민족을 하나로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자면 일제를 미워하고 나라의 해방을 진심으로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묶어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쟁에 배합하여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끝으로 당창건준비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할데 대해서도 밝혀주시였다.

왕재산회의는 조선혁명가들은 반드시 조선혁명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게 하고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넓혀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왕재산에서 회의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를 이끄시고 두만강을 건느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국내에 들어오시여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은 국내에로 빨리 퍼져나가게 되였다.

민족배타주의—자기 민족의 리익만을 내세우면서 다른 민족을 얕보고 배척하는 반동적사상.

샤오왕칭방위전투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유격근거지가 창설되고 유격대의 활동이 강화되자 이에 질겁한 일제는 근거지를 초시기에 없애버리려고 발악하였다.

놈들은 유격근거지주변들에 수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근거지에 대한 《토벌》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그중에서도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샤오왕칭유격구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2(1933)년 봄 샤오왕칭방위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일제는 그해 봄 1 500명이 넘는 군대와 비행기, 포까지 동원해가지고 샤오왕칭유격구로 달려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이 반드시 샤오왕칭골짜기로 들어오는 외통길로 쳐들어올것이라는것을 예견하시고 여기에 매복진을 치게 하시였다.

일제놈들은 유격대원들이 매복하고있는 이 외통길로 달려들기 시작하였다.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있던 유격대원들은 일시에 불벼락, 돌벼락을 안겨 무리죽음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날전투를 총화하시고 다음날전투에서 승리할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견하신대로 놈들은 전술을 달리하였다. 놈들은 전날에 쳐들어왔던 곳으로는 일부 력량만을 내몰고 기본주력은 유격구를 포위하는 전술을 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통길로 쳐들어오는 놈들을 족치는것과 동시에 우회하여 쳐들어오는 놈들도 그곳 길목을 지키고있던 부대들에서 쳐부시게 하시였다.

밤에는 습격조를 조직하여 놈들의 숙영지를 불의에 습격하여 적들이 온밤 제편끼리 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다음에도 령활한 전술을 쓰시여 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히시였다.

며칠동안 계속된 전투끝에 적들은 수많은 시체를 남긴채 제 소굴로 도망치고말았다.

일제는 봄에 당한 참패를 봉창해보려고 그해 가을에 또다시 유격구들에 달려들었다.

왕칭, 옌지를 비롯한 둥만의 유격구들은 또다시 적의 《토벌》을 받게 되였다.

이번에도 놈들의 기본공격목표는 샤오왕칭유격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2(1933)년 가을부터 무려 석달동안이나 계속된 샤오왕칭방위전투를 몸소 지휘하시였다.

그때 샤오왕칭에는 유격대가 2개 중대밖에 없었으며 무기와 탄약, 식량도 모자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조건에서 놈들의《토벌》공세를 짓부시고 유격구를 지켜내자면 유격대만이 아니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우리가 벌리게 될 소왕청방위전투는 유격구의 남녀로소가 다 동원되는 전민항전으로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샤오왕칭유격구 전체 인민들에게 유격대와 함께 근거지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

유격구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받들고 싸움준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반일자위대와 청년의용군들은 유격대와 같이 방어진지를 차지하였다. 총이 없는 청년들은 적들이 들어올수 있는 산들에 돌무지를 쌓아놓았다.

지난 시기 독립군에서 싸운적이 있는 로인들과 포수를 하던 로인들도 집에 깊이 간수했던 화승대를 메고 싸움터로 나갔다.

작식대, 담가대에 망라된 녀성들은 싸움터에 식사를 보장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고 아이들도 널판자에 못을 박아 적 자동차들이 들어올 도로들에 파묻었다.

일제놈들은 무려 5 000여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보병, 포병, 항공대의 협동작전으로 3개 방향에서 샤오왕칭유격구를 포위하고 공격해왔다.

보병들은 파도식으로 련이어 달려들었고 적의 비행기는 유격구를 마구 폭격하였다.

그러나 유격대와 인민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한 지휘밑에 영웅적으로 싸웠다.

유격대와 자위대원들은 놈들을 가까이 접근시킨 다음 집중사격과 작탄벼락, 돌벼락을 안겨 달려드는 족족 모조리 족쳤다.

적들이 련속적으로 달려들자 그들은 족치기 좋은 곳으로 놈들을 끌고가서 매복전술로 소멸하였다.

진지를 옮길 때에는 불무지에 작탄을 묻어놓았다.

그러면 유격대가 있던 진지를 차지한 적들이 꽁꽁 언몸을 녹이려고 불무지로 몰켜들었다가 작탄이 터지는 바람에 무리로 쓰러지군 하였다.

밤이면 습격조를 무어 놈들의 숙영지를 들이쳤다. 이런 습격전투를 하루밤에 다섯번씩 하는 날도 있었다. 습격을 받은 적들은 온밤 자지 못하고 공포에 벌벌 떨었다.

부녀회원들은 주먹밥과 더운물을 가지고 연방 전호가에로 달려왔다. 10살안팎의 아이들도 싸움만 붙으면 고지에 올라가서 북을 두드리고 나팔을 불면서 전투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그야말로 모두가 싸움에 떨쳐나섰다.

일제는 만신창이 되게 얻어맞고 허덕이면서도 물러가려고 하지

반일자위대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안에 조직되였던 반군사조직이다.

보다 광범한 군중을 망라할 수 있게 적위대를 반일자위대로 개편하고 18살부터 40살까지의 청장년들을 받아들였다.

청년의용군

주체22(1933)년 4월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에 조직되였던 반군사조직이다.

소년선봉대와 반일자위대에서 선발된 우수한 청년들로 조직되였다.

않았다.

유격구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졌다.

추운 겨울날에 오래동안 밖에서 싸우다나니 희생자도 있었고 환자도 생기였다. 식량도 없었고 탄알도 떨어져갔다.

이런 상태로 적들과 계속 싸운다면 유격구를 지켜낼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난관을 이겨내고 유격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적들의 후방을 들이치기로 하시였다.

그때 적들은 유격구를 《토벌》하는데 모든 력량을 집중하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적들의 후방은 텅 비여있다시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를 꿰뚫어보시고 유격구를 지키는 유격대의 일부 력량을 떼여 적의 후방을 들이칠데 대한 대담한 작전계획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유격대를 두개 대오로 나누어 한 편대는 유격구를 지키고 다른 한 편대는 적후방으로 진출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편대를 거느리시고 적후방으로 가시였다.

적후방으로 나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량수이취엔쯔에서 일제경찰, 자위단, 위만군을 소탕하신 다음 련이어 다른 곳의 적을 련속 족치시였다.

유격대가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있던 적들은 된매를 맞고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적들의 소굴인 다두천(대두천)을 타격하시였다.

앞뒤에서 얻어맞고 녹아나게 되자 바빠맞은 적들은 유격구《토벌》에 내몰았던 군대를 급히 끌어가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석달동안 진행된 샤오왕칭방위전투는 유격대와 유격구인민들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샤오왕칭방위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의 위력을 시위하였으며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싸운다면 그 어떤 적도 쳐부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근거지를 사수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반일인민유격대들은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불패의 대오로 자라난 반일인민유격

대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더 잘하기 위하여 주체23(1934)년 3월부터 5월사이에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시였다.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내오시고 인민혁명군과 지방의 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과 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되였고 유격대는 한층 더 강화되게 되였다.

작탄—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화약제조법을 창안하여 제작하신 수류탄.

자위단—일제가 1932년부터 중국동북지방의 주민부락에 조직하였던 무장조직.

위만군—일제가 만저우를 강점한 후 괴뢰《만저우국》을 조작하고 만들어낸《만저우국》군대.

다황와이회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날을 따라 강화되였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총칼을 휘둘러 수많은 혁명가들을 악착하게 탄압하고 학살하였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무장투쟁에로 더욱 발전해나갔다.

총칼만으로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일제는 혁명대렬을 안으로부터 파괴해보려고 꾀하였다. 놈들은 1932년 2월 제놈들의 앞잡이들과 변절자들을 그러모아《민생단》이라는 간첩단체를 만들어냈다.

일제는 《민생단》이 마치도 만저우에 사는 조선사람들의 생활을 돌봐주는 단체인것처럼 떠들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조선혁명가들을 헐뜯어 인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조선사람들과 중국사람들사이를 리간시키는 책동을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출판물과 강연을 통하여 《민생단》이 반동단체라는것을 발가놓으시였다. 그러시고는《민생단》을 반대하는 투쟁에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게 하시였다.

《민생단》이 반동단체라는것을 알게 된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민생단》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그러자 일제놈들의 꾀임수에 속아 《민생단》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곧 거기에서 뛰쳐나왔다.

얼마 남지 않은《민생단》놈들마저 각성된 인민들에 의하여 적발되였다. 결과《민생단》은 조직된 후 얼마 못 가서 해체되고말았다.

그러나 교활한 일제는 어떻게 하나 혁명대렬을 안으로부터 파괴해보려고 《민생단》이 유격구와 혁명대렬안에 많이 들어가 배긴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렸다.

지어는 조선혁명가들 특히 간부들을 헐뜯고 서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술책을 다 꾸며냈다.

직위와 권세에 눈이 어두운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일제의 꾀임수에 넘어가《민생단》을 반대하는 투쟁을 험악한 길로 이끌어갔다.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는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민족배타주의자들은 이 기회에 혁명에 충실한 조선사람들을 제껴버리려고 하였다.

또 종파분자들은 그들대로 자기들의 파벌싸움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혁명의 령도권을 쥐려 하였다.

이러한 목적밑에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은 근거지안에서 견실한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별의별 구실을 다 붙여 그들을 《민생단》으로 몰았다.

작식대원이 밥을 설구면 유격대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려 하였다고 하면서 《민생단》이라고 하였고 고향이 그립다는 말을 하면 민족주의라고 하면서《민생단》으로 몰았으며 일을 잘하면 정체를 숨기려고 한다면서 《민생단》이라고 하였다.

놈들이 이렇게《민생단》감투를 씌워 죽인 사람들은 신통히 혁명에 충실하고 원칙성이 강한 조선사람들이였다.

그릇되게 진행된 반《민생단》투쟁바람에 수많은 우수한 혁명가들이 희생되였다.

어제까지 혁명을 잘하여 대중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다음날에는 《민생단》으로 몰려 죽는것을 보고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였다.

혁명대오에는 숨막히는 어마어마한 분위기가 감돌게 되였으며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게 되였다. 지어 일부 사람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유격구를 떠나기까지 하였다.

그릇되게 진행되는 반《민생단》투쟁을 바로잡지 않으면 조선의 우수한 혁명가들이 다 《민생단》으로 몰리워 죽을수 있었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것은 우리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로잡는것은 생명을 내대야 하는 어려운 일이였다. 그것은《민생단》으로 몰린 사람을 동정만 하여도 그 사람은 《민생단》감투를 쓰기때문이였다.

이 문제는 오직 높은 권위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해결하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반《민생단》투쟁이 벌어지던 초기부터 이 투쟁이 옳바로 진행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민생단》투쟁이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진행되게 하시였다.

그리고 몸소 여러차례에 걸쳐 《민생단》사건을 바로 해명해주시였다.

한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격대의 한 부대를 이끌고 어느 부락에 들리신적이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유격대를 친혈육처럼 반갑게 맞아주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유격대원들속에서 갑자기 배를 앓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자 마을사람들은 《민생단》이 우물에 독약을 쳤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조금후에 마을사람들은 우물에 독약을 쳤다는 한 소년을 데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지 않고 직접 그 소년을 만나시였다.

소년은 자기를 따뜻이 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는 독약을 치지 않았는데 마을사람들이 우물에 갔다온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하면서 막 을러메기때문에 할수없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을사람들앞에서 우물에 독약을 친 사람

은 없다고 하시면서 유격대원들이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먹다나니 배를 앓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우리는 이 소년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그를 유격대에 받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억울하게 《민생단》으로 몰린 사람들의 문제를 바로 해명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자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은 감히 사람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처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1차 베이만원정을 떠나시자 또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놈들의 책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민생단》루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으며 유격구안에는 다시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되였다.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루빨리 돌아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베이만에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끌내고 몇달후에야 돌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베이만원정길에서 쇠약해지신 몸도 돌보실 사이없이 다황와이(다홍왜)회의에 참가하여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시였다.

다황와이회의는 주체24(1935)년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약 10일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민족배타주의자들은 동만에 있는 조선사람의 70%, 조선혁명가들의 80~90%가 《민생단》이라는 허황한 주장을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먼저 조선사람들을 덮어놓고 《민생단》이라고 하는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책동을 날카롭게 비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만에 있는 조선사람들의 70%, 조선혁명가들의 80~90%가 《민생단》이라면 무엇때문에 그들이 몇년씩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며 적들과 싸웠겠는가, 싸움마당에서 전사한 사람들이 《민생단》이라고 하면 일제가 제편을 죽인것으로 되는데 자기들이 키운 《민생단》을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고 따져물으시였다.

그러시면서 여기 회의장을 지키는 사람들은 완전무장을 갖춘 조선사람들인데 그들의 80~90%가 《민생단》이라면 왜 회의에 참

가한 사람들을 가만두겠는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가 오래동안 붙잡지 못해 안달아하는 간부들인데 그들이 좋은 총을 가지고있으면서도 회의장을 습격하지 않는것이 이상하지 않는가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0～90%는 고사하고 그 10분의 1인 8～9%만《민생단》이라고 하여도 여기서 마음놓고 회의를 할수 없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간부문제에 대한 민족배타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비판하시였다.

당시 민족배타주의자들은 조선사람은 소수민족이기때문에 다수민족인 중국사람을 지도할수 없고 간부로 될수 없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부가 되려면 혁명에 충실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덮어놓고 중국사람들로 간부를 바꾸려는 그들의 주장을 반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사람들중에 간부가 많은것은 동만일대에서 조선사람이 혁명투쟁을 먼저 시작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혁명이 전진하여왔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끝으로 조선혁명가들이 민족해방의 구호를 들어야 하는가, 들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똑똑히 밝혀주시였다.

당시 민족배타주의자들은 중국땅에서 활동하는 조선혁명가들은 조선혁명의 구호를 들지 말아야 한다고 떠들었다. 그들은 중국혁명이 승리하면 조선혁명은 저절로 승리한다는 허황한 주장까지 들고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비판하시고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승리, 조선민족해방위업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고 대신할수도 없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의 자주적권리이며 신성한 의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가들은 어디에 가서 혁명을 하든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자주적인 권리이며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하시였다.

민족배타주의자들은 이 명백한 사실앞에서 더는 어쩔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회의에서 반《민생단》투쟁을 잘못 벌린 종파분자들과 민족배타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시였다.

다황와이회의를 계기로 우리 혁명의 주체적립장이 확고히 고수되고 조선혁명은 주체의 기치밑에 더욱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유격대와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더욱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였다.

무장투쟁을 넓은 지역으로 확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황와이회의가 있은 후 주체24(1935)년 3월 야오잉거우(요영구)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그릇되게 진행된 반《민생단》투쟁에 대하여 다시금 비판하시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또한 유격구를 해산하고 유격대가 넓은 지역으로 진출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추호의 동요도 없이 조성된 정세와 혁명임무에 맞게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하는 새로운 전략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두만강연안에 유격구가 창설된 때로부터 3～4년이 지나갔다.

이 기간에 유격대는 큰 력량으로 자라났으며 대중적지반도 튼튼히 다져졌다.

이런 조건에서 유격대가 유격구를 해산하고 넓은 지역으로 나가야 적들을 크게 족치고 무장투쟁을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고정된 유격구에 그대로 틀고앉아서 종전처럼 유격구나 지키겠다는것은 혁명을 더 발전시키지 않겠다는것이나 같았다.

이 시기 일제는 유격구를 없애버리려고 더욱 악랄하게 날뛰였다.

일제는 수천수만명에 달하는 군대를 동원하여 유격구를 겹겹이 둘러싸고 매일과 같이 《토벌》을 감행하였다. 이와 함께 산골에 널려 사는 인민들까지 강제로 토성과 포대로 둘러싸인 《집단부락》에

몰아넣어 유격구와 그 주변 인민들사이의 련계를 끊어보려고 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유격구를 지키는데만 힘을 기울인다면 이미 키워낸 유격대를 비롯한 혁명력량을 보존할수 없고 유격근거지조차 지켜낼수 없었다.

회의에서는 유격구를 해산하고 유격대가 넓은 지역으로 진출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야오잉거우회의는 유격대가 고정된 유격근거지를 벗어나 넓은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보다 크게 벌릴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후 유격구가 해산되는것을 섭섭하게 생각하는 인민들을 잘 깨우쳐주시고 생활조건을 갖추어 안전한 지대로 떠나보내시였다.

그리하여 두만강연안에 창설되였던 유격구는 자기 사명을 다하고 발전적으로 해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유격구를 해산하신 다음 무장투쟁을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을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나가는데서 대상지를 베이만땅으로 정하시였다.

그것은 베이만에서 활동하는 혁명가들을 도와주며 그곳 인민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기 위해서였다.

부대가 베이만원정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을 때였다.

라오허이산(로흑산)부근에 주둔하고있던 정안군놈들이 쓰다오거우(사도구)부락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인민들을 모두 살해하였다는 기막힌 사연이 전해져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쓰다오거우인민들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놈들을 족칠것을 결심하시였다.

부대는 곧 야오잉거우를 떠나 뤄쯔거우(라자구)를 거쳐 타이핑거우(태평구)로 갔다.

타이핑거우에 도착한 부대는 먼저 쓰다오거우마을에서 희생된 인민들에 대한 추도식을 진행하였다. 추도식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추도식이 끝난 다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

가 다른데로 간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부대를 뤄쯔거우방향으로 철수시키시였다.

그러신 다음 그날 밤으로 놈들이 주둔하고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라오허이산수림속으로 부대를 이동시켜 매복진을 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중국말을 잘하는 10여명의 대원으로 유인조를 무어 내려보내시였다.

유인조는 산림대로 가장하고 마을에 내려가 산림대가 하는것처럼 집짐승도 빼앗고 남새밭의 울타리도 뽑아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는척 하였다.

그런데 첫날에는 정안군놈들이 걸려들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 또다시 유인조를 파견하시였다.

마을에 다시 내려간 유인조는 좀 괜찮게 사는 집에 가서 닭을 몇마리 잡아가지고 슬금슬금 피하는척 하였다.

그제야 정안군놈들은 무리를 지어 유인조를 따라왔다.

유인조는 못 견디는척 하면서 놈들을 매복구역까지 끌고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이 매복구역에 다 들어서자 신호총을 쏘시였다.

그 신호총에 일본지도관놈이 단번에 꺼꾸러졌다.

매복하고있던 대원들은 복수의 총탄을 퍼부어 놈들을 순식간에 소멸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 전투에서 정안군 100여명을 요정냈으며 많은 무기와 말을 빼앗았다. 그가운데는 박격포도 있었다.

라오허이산전투는 유격구를 해산하고 넓은 지역으로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처음으로 시위한 전투였다.

라오허이산에서 패배한 놈들은 참패를 봉창하기 위하여 많은 무력을 동원하였다.

놈들이 뒤따른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타이핑거우 뒤산에 부대를 배치하시였다.

놈들은 배를 타고 산밑으로 흐르는 강을 건너오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라오허이산전투에서 로획한 박격포로 놈들을 소멸하도록 명령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왜놈들에게서 빼앗은 박격포로 놈들에게 명중탄을 퍼부었다.

배들이 연방 얻어맞자 급해맞은 적들은 수많은 주검만 내고 도망치고말았다.

넋을 잃고 달아난 놈들은 인민혁명군이 포까지 가지고 백발백중의 명중탄을 퍼부으니 그걸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인민혁명군과 맞서는것은 머저리나 할짓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라오허이산전투와 타이핑거우전투를 통하여 베이만원정준비를 충분히 갖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주체24(1935)년 6월 부대를 이끄시고 제2차 베이만원정의 길에 오르시였다.

둥만에서 베이만으로 가자면 높고 험한 라오예령(로야령)을 넘어야 하였다.

베이만원정부대는 한여름의 무더위속에서 울창한 수림으로 덮인 라오예령을 넘어 베이만의 산둥툰(산동툰)에 이르렀다.

이때 조선인민혁명군이 베이만땅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위만군과 경찰대놈들이 말을 타고 산둥툰으로 달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놈들이 마을에 달려들기 전에 소멸할수 있도록 전투를 조직하시였다.

이에 따라 부대는 마을에서 철수하여 산에 진지를 정하고 놈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드디여 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차지한 산으로 기여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총, 기관총벼락과 함께 박격포탄을 퍼부어 놈들을 무자비하게 족치도록 하시였다.

산둥툰전투에서 얼마나 혼쌀이 났던지 그후부터 적들은 감히 조선인민혁명군에게 덤벼들지 못하였다.

지어 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요구하는대로 식량을 비롯한 후방물자를 보내주기까지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어무(액목)일대에로 진출하시였다.

그것은 어무일대 인민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고 적들에게 보다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때 어무지방의 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인민들에게 행패질하는 군대만 보아오다나니 인민혁명군도 그런 군대인줄로 잘못 생각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부대가 어무땅에 들어서서 첫 마

을에 이르렀을 때였다.

마을에 군대들이 들어서는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피하였다. 마을에 있는 소학교도 텅 비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교마당에 풍금을 내다놓고 그 풍금을 타시면서 중국인민들이 사랑하는《소무가》라는 노래를 부르시였다.

대원들도 노래를 따라 불렀다.

노래소리가 점차 높아지자 숨어있던 학생들이 모여들어 노래를 불렀다. 얼마후에는 온 마을사람들이 운동장에 다 모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여온 마을사람들앞에서 류창한 중국말로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을 듣고 마을사람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어떤 군대인가를 깨닫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부대를 이끄시고 어무땅의 여러곳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4(1935)년 12월 관디(관지)부근에서 또다시 놈들에게 된타격을 안기시였다.

이 전투에 내몰렸던 200여명의 적들가운데서 대부분이 소멸되였다. 적들은 얼마나 혼이 났던지 장교와 졸병놈이 들판에 있는 관속에 저마다 숨겠다고 싸움질을 하는 추태까지 부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베이만원정기간에 수많은 전투를 벌려 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시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베이만원정에서 계획한 일을 성과적으로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를 이끄시고 난후터우(남호두)로 향하시였다.

정안군—일제가 《만저우국군》안에 조직했던 가장 악질적인 친일분자들의 부대.

2. 항일무장투쟁의 일대 앙양

난후터우회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이 시작된 때로부터 4년이 지나갔다.

이 기간에 우리 혁명은 크게 전진하였다.

조선혁명의 기본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은 간고한 투쟁속에서 적의 대부대를 쳐부실수 있는 강력한 군대로 발전하였다.

수많은 혁명가들이 자라났으며 혁명대오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졌다.

당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릴수 있는 대중적지반도 튼튼히 꾸려졌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이끌어올릴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방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군정간부회의를 열것을 계획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군정간부들을 난후터우에 모이도록 련락을 띄우신 다음 난후터우로 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밀영에 와있던 군정간부들이 수령님을 맞이하였다.

밀영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던 군정간부들로부터 사업정형도 보고받고 회의준비도 완성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5(1936)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난후터우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우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에로 진출시키며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넓혀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 단계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에로 진출시키며 우리의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국경지대로 진출하며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하여야 일제에게 억눌려 사는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줄수 있었다.

그리고 일제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을 전국적범위에서 일대 앙양에로 이끌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방침을 관철하자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경일대에 새로운 형태의 유격근거지를 창설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자면 무장대오를 확대강화하며 특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또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범위에서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나라를 찾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혁명운동이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일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찾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모든 반일력량을 묶어세울수 있는 조직을 내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직의 명칭은《조국광복회》나《민족해방동맹》과 같은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또한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적극 밀고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자면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조선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 특히는 국내에 당조직을 늘이고 그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창건준비사업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들은 회의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찬동을 받았다.

난후터우회의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주체를

완전히 세운 회의였다.

난후터우회의가 있은 다음부터 조선혁명은 새로운 일대 앙양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새 사단 편성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난후터우회의가 있은 후 부대를 거느리시고 백두산지구에로의 행군길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지구에로 가시다가 먼저 찾으신 곳은 미훈전(미혼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미훈전에서 앓는 유격대원들을 보살펴주시고 난후터우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다.

미훈전이란 산봉우리들과 골짜기들이 어슷비슷하여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에서 이름 지어진 곳이다.

바로 이곳에 후방밀영이 자리잡고있었는데 거기에서는 50여명의 대원들이 전염병을 앓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훈전밀영에 이르시자 전염병을 앓고있는 환자들의 병실부터 찾으시였다.

거기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중대장이였던 최현선생님도 있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환자들이 있는 병실로 오신다는것을 알고 가까스로 출입문쪽으로 기여나가 두손을 가로저으며 수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면서 앞을 가로막아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신변은 조금도 생각지 않으시고 최현중대장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시였다.

자나깨나 만나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이시였지만 중대장은 선뜻 손을 내댈수가 없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념려해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슴없이 그 중대장의 손을 덥석 잡고 그의 병상태를 알아보시고 난후터우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내용을 하나하나 해설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 얼마간 계시면서 그들이 병치료를 잘할수 있게 여러모로 도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앓고있던 대원들이 한명두명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5(1936)년 3월 이곳 미훈전에서 난후터우회의방침관철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였다.

회의에서는 부대들을 개편하고 새로 조직되는 사단과 려단들이 활동할 지대를 정하였다.

그리고 조국광복회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문제도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새 사단 편성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 사단을 조직하는 문제는 우리 혁명의 주체로선을 관철해나가는데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관건적인 문제였다.》

조선혁명을 더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혁명을 앞장에서 힘있게 이끌어나갈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려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훈전회의가 끝난 다음 새 사단을 조직하기 위하여 얼마 안되는 대오를 거느리시고 2련대가 있는 마안산으로 가시였다. 2련대는 새 사단에서 주력을 이루어야 할 부대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안산에 이르러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시였다.

그것은 2련대가 쟈오허쪽으로 원정을 가고 마안산밀영에는 《민생단》으로 몰린 대원 100여명만이 남아있었기때문이다. 그들마저 식량을 구하러 떠나고 밀영에는 얼마 안되는 인원들밖에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신원을 보내여 식량을 구하러 떠난 《민생단》혐의자들을 데려오게 하시였다.

그러신 다음 한가득 쌓여있는 《민생단》혐의자들에 대한 문서를 한장한장 뒤져보시였다. 거기에는 대원들마다 《민생단》이라는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적혀있었다.

《민생단》으로 몰린 대원들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시던 문건을 밀어놓고 그들이 모여있는 병

실로 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머리를 숙인채 묵묵히 앉아있는 대원들에게 동무들이 《민생단》에 들었다는것이 사실인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대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여서 밖으로 나오시였다.

잠시후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시려는데 나무뒤에서 한 녀대원이 불쑥 나타나 자기는 《민생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였다.

녀대원을 앞세우고 방안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을 바라보시며 나는 동무들의 죄를 따지고 판결을 내리자고 온 사람이 아니다, 백두산에 나가 함께 싸울 전우들을 찾아온 사람이다, 나는 전우들을 찾아왔고 혁명동지들을 찾아왔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동무들은 모두 나의 전우로 될수 없는 친일역적들이며 반동들이라고 말하고있다, 나는 그 말을 믿을수 없다, 동무들이 《민생단》에 들었을것 같으면 일본사람들한테나 갈것이지 무엇때문에 산에서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고생스럽게 지내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과연 동무들이 고생해온것이 일본놈의 개가 되여 혈육들과 동지들을 해치기 위해서였는가고 격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한 대원이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가 어떻게 왜놈의 개가 되겠는가고 하며 자기는 왜놈의 개도 아니며 《민생단》도 아니라고 하였다.

뒤이어 여기저기서 자기들은 《민생단》이 아니라는 말들이 튕겨져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대원들을 둘러보시며 《나는 동무들이 한 그 말을 믿는다.》고 하시고 《민생단》문서보따리에 불을 지피시였다. 그리고 그들모두를 새로 조직하는 사단에 받아들이기로 하시였다.

《민생단》문서보따리가 불타 없어지고 새 사단이 태여났다는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소부대들과 입대를 청원하는 사람들이 마안산으로 모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만나보시고 새로 조직하는 사단에 받아들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해 4월 마안산에서 《민생단》으로 몰렸던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고 여러곳에서 모여든 소부대들과 애국청년들로 새 사단이 꾸려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시기 마안산에 있던 아동단원들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안산동쪽밀영에서 수십명의 아동단원들이 천대를 받으며 살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쁘신 시간을 내여 곧 그 밀영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밀영가까이에 이르시자 아동단원들이 《장군님!》 하고 막 달려나왔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로 달려오던 아동단원들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더는 앞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자기들이 입고있는 옷이 너무 험하다는것을 느꼈던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부어있었고 옷은 찢어지고 불에 타서 살이 드러나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춤거리는 아동단원들에게 《얘들아, 얼굴을 들어라. 너희들이 헌옷을 입고있는건 너희들의 탓이 아니다. 어서들 이리 오너라!》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아동단원들은 한달음에 달려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에 와락 안기며 서러운 울음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을 껴안으시고 방안에 들어가 앓는 아이들을 따뜻이 돌봐주시며 한장밖에 없는 자신의 모포를 가져다 그들에게 덮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아동단원들을 돌봐주지 않고 천대한 사람들을 엄하게 비판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어 어머님의 사랑이 깃든 돈 20원으로 아동단원들에게 새 옷을 해입히시였다.

그리고 부대가 출발할 때에는 그들을 함께 데리고 떠나시였으며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후에는 다른 지방에서 온 아이들과 합쳐 소년중대를 조직하여 혁명의 후비군으로 키우시였다.

새 사단의 편성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더욱 강화하였을뿐아니라 우리 혁명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 창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난후터우회의후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지휘간부들과 이름있는 사람들로 조국광복회창립준비위원회를 내오시였다.

그리고 국내와 만저우의 여러 지역에 소부대들과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시여 조국광복회를 내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하시였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려운 행군길에서 몸소 조국광복회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준비해나가시였다.

난후터우를 떠나 둥강(동강)으로 나오는 과정은 어려운 행군과 끊임없는 전투로 이어져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조국광복회조직은 어떻게 내오고 그가 해야 할 과업은 어떻게 정할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였다. 쉴참이나 숙영할 때면 우등불가에서 조국광복회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한자두자 써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런 준비밑에 주체25(1936)년 5월 둥강에서 력사적인 조국광복회창립대회를 여시였다.

회의에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과 국내외에서 온 독립운동자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력사적인 보고를 하신 다음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국광복회규약》,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기본과업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진정한 조선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문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싸울 혁명군대를 조직할데 대한 문제, 산업국유화와 토지개혁, 8시간로동제, 남녀평등권,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비롯하여 제반 민주주의적시책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강령에서는 먼저 일제를 때려엎고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세우며 혁명군대를 조직하고 인민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일제와 그 앞잡이들이 가지고있던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공장, 광산, 철도, 은행 등을 나라와 인민의것으로 만들며 공업과 농업, 상업을 발전시킬것을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녀자들에게 남자와 꼭같은 권리를 주고 로동자, 사무원들이 8시간 일하게 하며 돈을 받지 않고 의무적으로 어린이들을 공부시킬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강령에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열렬히 지지찬동하였다.

그리고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주체25(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립하신 조국광복회는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이였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울수 있게 되였다.

백두산근거지 창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신 다음 백두산일대에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창설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호두회의후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며 우리나라 혁명운동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전략적지대를 확보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높고 험한 산들과 울창한 산림으로 이루어진 백두산일대는 유

격대가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였다.

이곳은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하며 국내혁명투쟁을 지도하기에도 유리하였다. 또한 이 일대에서 사는 사람들의 반일감정도 높았다.

백두산이야말로 조선인민혁명군이 의거해야 할 명당자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백두산근거지창설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을 군사적으로 짓눌러놓기 위한 여러 전투들을 조직하시였다.

이 시기에 진행한 대표적인 전투는 푸쑹현성전투였다.

푸쑹은 일제가 수많은 군대를 늘 두고있는 중요한 군사적요충지였다. 때문에 이곳을 치면 백두산지구를 손쉽게 장악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면밀한 정찰에 기초하여 주체25(1936)년 8월 푸쑹현성전투를 조직지휘하시였다.

이 전투에는 반일부대들도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격명령을 내리시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적의 성문을 까부시고 맹렬히 진격하였으며 반일부대들도 자기들이 맡은 대상들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조금후에 반일부대가 적의 강한 반항에 부딪치자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전투는 점점 어렵게 되여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려운 정황을 유리하게 전환시켜 적들을 족칠것을 결심하시고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는 틈을 타서 부대가 성밖의 둥산(동산)으로 철수하여 매복진을 치도록 하시였다.

이때 잘루목을 지키고있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비롯한 녀대원들은 둥산을 앞질러 차지하려고 달려오는 적들을 소탕하였다.

순식간에 매복진을 친 부대는 미친듯이 따라오는 적들을 함정속에 몰아넣고 족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 전투에서 수백명의 적들을 소멸하고 많은 무기와 물자를 빼앗는 전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시여 적들을 련속 족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압록강연안으로 나오시여 처음으로 들리신

곳은 다더수이(대덕수)마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가 다더수이마을로 들어갈 때 기발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며 들어가게 하시였다.

다더수이마을사람들은 신식보총에 기관총까지 갖춘 수백명의 조선군대가 대낮에 나타나자 기쁨을 금치 못하며 반가이 맞이하였다.

그런데 어느새 알았는지 적들이 달려들었다.

보리밭을 사이에 두고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리밭이 상하지 않게 적들이 보리밭에서 다 나온 다음에야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적들은 이날 수십명의 사상자를 내고 뿔뿔이 도망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밖에도 수많은 전투를 련이어 벌리시여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시였다.

백두산일대에서 진행된 군사정치활동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널리 떨치고 인민들의 사기를 한층 높여주었다.

또한 적들을 짓눌러놓고 인민들을 묶어세워 이 일대를 조선인민혁명군이 완전히 장악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런 성과에 기초하여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중심적령도거점으로 될 밀영을 꾸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조선혁명의 중심적령도거점으로 될 밀영이란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을 밀영을 말한다.

이런 밀영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국내혁명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 적합한 곳에 자리잡아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주현, 리동학 등 우수한 군사정치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어 백두산지구에 파견하시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백두산지구에 나가 밀영을 건설할 위치를 돌아보고 밀영건설준비를 다그쳤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5(1936)년 9월 몸소 주력부대 성원들을 친솔하시고 삼지연군 소백수골에 나오시였다.

여기에서 주력부대 지휘성원들의 회의를 여시고 밀영을 꾸리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백수골에 조선혁명의 중심적령도거점으

로 될 밀영을 꾸리며 백두산지구의 대산림지대에 여러 위성밀영을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새로 꾸리는 밀영들은 부대들이 장기간 리용할수 있게 철저히 위장된 밀영으로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회의후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밀영건설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짧은 기간에 소백수골안에는 사령부밀영인 백두산밀영이 꾸려지게 되였다.

백두산밀영은 전반적조선혁명을 이끌어나가는 중심적령도거점으로서 우리 혁명의 책원지인 동시에 심장부였으며 작전기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뒤이어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위성밀영을 꾸리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백두산밀영주변에 사자봉밀영, 곰산밀영, 선오산밀영, 무두봉밀영, 소연지봉밀영, 간백산밀영 등이 꾸려지게 되였다. 이밖에도 백두산서남부일대에 허이샤쯔거우(곰의골)밀영, 즈양가이(지양개)밀영, 훙터우산(홍두산)밀영, 칭봉(청봉)밀영 등도 꾸려지게 되였다.

이 밀영들은 위성밀영으로서 사령부밀영을 옹위하였다.

백두산지구의 밀영들은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였다.

어떤 밀영들은 재봉소, 무기수리소, 병원과 같은 후방밀영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어떤 밀영들은 공작원들의 련락소나 숙영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밀영건설과 함께 백두산주변지역에 혁명조직을 내오고 그곳 인민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깨우쳐주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권영벽, 지태환선생님들을 비롯한 정치공작원들을 보내여 백두산주변의 인민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적극다그쳐나가게 하시였다.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들을 깨우쳐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과 혁명조직을 내오는 사업을 활발히 벌렸다.

한편 혁명가들은 적들의 기관에 촌장이나 십가장, 구장, 경찰로 들어가 활동하면서 통치기능을 마비시켜놓았다.

백두산주변지대는 겉으로는 적들이 통치하는것처럼 되여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장악통제하는 혁명화된 지역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백두산주변의 넓은 지대에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되게 되였다.

백두산근거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밀영망과 그 주변지역 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박은 지하혁명조직망으로 이루어진 반유격구형태의 근거지였다.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은 거기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더욱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백두산근거지가 꾸려진 후 국내깊이에로 비밀근거지들을 확대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부조선일대와 중부조선일대 그리고 지리산지구를 비롯한 남부조선일대 등 전국각지에 비밀근거지들이 꾸려졌다.

이러한 비밀근거지들은 백두산밀영에 자리잡은 혁명의 사령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모든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지역적령도거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책원지—전략전술과 방침이 세워지며 그 실현을 위한 사업들이 조직령도되는 곳.
위성밀영—백두산근거지의 사령부밀영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건설한 밀영.

보천보전투

1930년대 중엽 일제는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였다.

놈들은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죽이면서 발광적으로 날뛰였다.

일제는《내선일체》,《동조동근》다시말하여 조선과 일본은 한나라, 한민족이라고 떠벌이며 우리 민족을 영영 없애버리려고 하였다.

놈들은 조선사람이 조선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름도 일본식

으로 고치지 않거나 게다짝을 신지 않으면 죄인처럼 다루었다.

학교에서는 일본말로 교육을 하였는데 어린 학생들이 조선말을 한마디만 하여도 몽둥이로 때리고 벌을 주었으며 벌금까지 물리였다.

한편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을 강화하면서 인민혁명군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없애버리려고 혁명군이 《전멸》되였다고 하면서 별의별 악선전을 다하였다.

우리 인민은 독립에 대한 희망마저 가지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었다.

이러한 때 조선인민혁명군 대부대가 국내에 들어가 총성을 울리면 인민들은 일제를 쳐부시고 조선을 해방할 군대가 왔다고 기뻐하며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26(1937)년 3월 시강(서강)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대부대로 국내진공작전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을 3개 방향으로 진출시킬 작전계획을 내놓으시였다.

작전계획에 따라 한 부대는 두만강연안 북부국경일대로 나가며 다른 한 부대는 압록강연안으로 나가 활동하게 되였다.

주력부대는 적들의 공격이 이 부대들에 집중될 때 조국땅 혜산쪽으로 쳐들어가 적들을 족치기로 하였다.

회의후 각 부대들을 지정된 자기 활동지대로 떠나보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국내진공작전을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시였다.

무엇보다 집중적인 군정훈련을 조직하시여 대원들을 정치군사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시였다.

이와 함께 군복과 군모 등을 새로 마련하도록 하시였다.

후방공작조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 600벌의 군복과 모자를 짧은 기간에 만들었으며 식량을 비롯한 후방물자를 충분히 마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국내로 나갈 대오를 편성하시고 새 군복을 일제히 갈아입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떠나간 부대들의 활동에 주의를 돌리시면서 국내진공작전계획을 더욱 완성하시였다.

바로 이러한 때 두만강연안으로 진출하여 무산일대에서 맹렬한 활동을 벌리던 최현선생님의 부대가 적들에게 포위되였다는 통보가 들어왔다.

통보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력부대가 혜산쪽으로 진격하려던 계획을 변경시켜 보천보를 치며 날자도 앞당기기로 하시였다.

그렇게 하여 포위된 부대도 구원하고 국내진공작전도 동시에 실현할것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즈양가이밀영을 떠나 6월 3일 밤 감쪽같이 압록강을 건너 보천보뒤산인 곤장덕에 오르시였다.

곤장덕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를 휴식시키고 김확실, 마동희선생님들을 보천보시가에 보내여 이미 알고있는 정찰자료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후 곧 지휘관회의를 여시고 각 구분대들에 전투임무를 주시였다.

날이 어둡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를 거느리시고 곤장덕을 내리시였다.

거리에 들어선 대오는 여러 조로 갈라져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늘 그러하시듯이 이날도 한몸의 위험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주요공격목표인 경찰관주재소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황철나무밑에 지휘처를 정하시였다.

주체26(1937)년 6월 4일 밤 10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울리신 총성으로 보천보전투가 시작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일제히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를 비롯한 일제의 통치기관에 드센 사격을 가하였다.

적들은 맞서볼 생각도 못하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총탄에 맞아 너부러졌다.

어떤 경찰놈은 너무도 급해 돼지우리안에 들어가 검불속에 대

가리만 쳐박고 벌벌 떨고있었다.

면사무소, 우편국, 산림보호구, 소방회관을 비롯한 적통치기관들에서 삼단같은 불길이 솟구쳐올랐다.

정치공작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포고》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거리에 붙이고 선전물을 뿌리면서 정치사업을 하였다.

인민들은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달려나오면서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며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호하는 인민들앞에서 나라를 찾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데 대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연설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보천보전투를 성과적으로 끝마친 부대는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인민들과 조국해방의 그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압록강을 건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는 실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의의는 일본놈을 몇명 죽인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주는 혁명의 서광을 비쳐준데 있습니다.》

보천보전투가 가지는 의의는 일본놈을 몇명 죽인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준데 있다.

보천보에서 녹아난 일제는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부랴부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군대와 경찰을 긁어모아가지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추격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추격해오는 적들을 커우위수이산(구시산)과 지엔싼봉(간삼봉)에서 모조리 소탕해버리시였다.

보천보전투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커우위수이산에 이르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뒤쫓아오리라는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부대에 전투준비를 철저히 갖추게 하시였다.

얼마후 적들이 커우위수이산으로 공격해왔다.

그러나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드센 불벼락과 돌벼락에 완전히 녹아나고말았다.

그뒤를 따라 추격해오던 적들은 앞서가던 놈들이 녹아나는것을 보고 질겁하여 달려들 생각도 못하고 헛총질을 하다가 도망치고 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부대를 거느리시고 즈양가이로 돌아오시였다.

다른 부대들도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돌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 방향으로 나갔던 부대들이 다 모여오자 이곳 즈양가이에서 군민련환대회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국내진공작전의 승리를 총화하시고 앞으로 해야 할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보천보와 커우위수이산 등 도처에서 녹아난 일제는 제놈들의 참패를 어떻게 하나 봉창해보려고 발악하였다. 놈들은 함흥 74련대와 위만군 등 약 2 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하여 지엔싼봉쪽으로 밀려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를 친솔하시고 지엔싼봉쪽으로 이동하신 다음 빈틈없는 전투조직을 하시였다.

적들은 6월 30일 안개가 자욱히 낀 틈을 타서 지엔싼봉을 에워싸고 기여오르기 시작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고지에로 기여오르는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이날 전투에서 겨우 살아 도망친 놈들은 200명정도밖에 안되였다.

적들은 제놈들의 시체가 어찌나 많았던지 그대로 가져갈수 없어 대가리만 잘라 마대나 상자에 넣어 실어갔다.

그때 시체운반에 동원되였던 달구지군이 모르는척 하고 일제놈에게 마대안에 넣은것이 무엇인가고 묻자 호박이라고 대답하여《호박대가리》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였다.

지엔싼봉전투는 커우위수이산전투와 함께 보천보전투의 승리를 더욱 빛나게 장식하였다.

참으로 보천보전투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진공작전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고 일제놈들에게 커다란 패배를 안겨주었다.

마탕거우군정학습

오래동안 침략전쟁을 준비하여온 일제는 1937년 7월 중국땅 전체를 삼킬 목적으로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선전포고도 없이 총공격으로 넘어간 일제는 공격속도를 높여 짧은 기간에 중국의 여러 도시들을 련이어 강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6(1937)년 7월 중순에 있은 백두산밀영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중일전쟁에 대처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들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압록강,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서 적의 뒤통수를 련속 족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일제가 중일전쟁에만 정신을 팔고있을 때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더욱 넓히며 전인민적인 항쟁준비를 다그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방침에 따라 창바이현(장백현) 스쥬다오거우(19도구) 마순거우(마순구)부근전투 등 많은 전투들을 조직하시여 일제가 중일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와 군대를 제때에 실어가지 못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 확대하며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쳐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많은 소부대들을 국내깊이에 파견하시고 몸소 총검의 숲을 헤치며 함경남도 신흥지구에까지 나오시여 동해안지구의 로동조합, 농민조합과 같은 반일대중조직을 튼튼히 꾸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복잡한 정세속에서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당시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고 동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당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이 동양천지를 다 삼키는줄로 알고 맥을 놓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일본군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중국관내의 넓은 땅덩어리를 어렵지 않게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다음 빠른 기간에 중국의 넓은 지역을 먹어치우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처럼 강한 일본을 어떻게 당해낼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고 동요하였다.

게다가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안에는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지 못한 신입대원들이 많았다.

이런 형편에서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주체26(1937)년 11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라는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혁명의 성격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하시면서 이 혁명에 참가할수 있는 동력과 쳐부셔야 할 대상을 다시금 밝히시였다.

우리 혁명에 참가할수 있는 동력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과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 등이였다.

그리고 쳐부셔야 할 대상은 일제와 그와 한짝이 되여 날뛰는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친일관료배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조선혁명가들앞에 나서는 당면한 임무를 밝혀주시였다.

조선혁명가들앞에 나선 당면한 임무는 우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려 조국해방을 이룩하는것이였다.

이와 함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이였다.

또한 중국혁명가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혁명력량과 힘을 합치며 당창건준비사업을 잘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가들이 자기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참된 교과서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해 11월 하순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마당거우(마당거우)밀영에서 군정학습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37년 겨울에는 몽강현 마당거우밀영에서 부대안의 전체 장병들이 군정학습에 주력하였습니다. 아마 한 너덧달쯤 품을 들여 학습한것 같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부대별, 조직별, 학습반별로 회의를 열고 학습을 잘할데 대한 결의를 다지게 하시였다.

그리고 《학습도 전투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병실마다 큼직하게 써붙이게 하시였다.

전체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비상한 결의를 안고 군정학습에 들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학습에 선차적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정치학습에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기본교재로 하였다.

정치학습은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습반과 식자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글을 모르는 대원들을 위하여 학습호조를 따로 무었다.

자습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자체로 먼저 학습한 다음 로작에 대한 강의를 받고 토론을 하였다.

식자반에서는 강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학습하였다.

군정학습기간에 제일 많이 쓴 방법은 문답식학습방법이였다.

문답식학습은 주로 학습반이나 조별로 하였다.

문답식학습은 한쪽에서 문제를 제시하면 다른쪽에서 대답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부족점이 있으면 문제를 제시한쪽에서 보충토론을 하였다.

이 방법은 대원들의 학습열의를 부쩍 높여주었다.

모든 대원들은 서로 뒤질세라 열심히 학습하였다.

절대다수의 대원들이 학습에 열중하였지만 글을 처음 배우는 일부 신입대원들속에서는 학습을 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들은 머리가 나쁘기때문에 다른것은 다 하겠으나 정치학습만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시간에 사격훈련이나 하는것이 상책이라

고 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공부는 못해도 싸움은 남보다 더 잘할수 있다고 곧잘 큰소리를 치군 하였다. 그런 현상을 보고 지휘관들과 동무들이 여러번 타일렀으나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이름 석자도 쓸줄 모르면서 학습시간에 빠져나와 사격훈련만 하고있는 한 대원을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대원과 담화를 하시다가 앞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시며 이 나무를 어디에 쓰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그는 도끼자루를 하면 좋겠다고 서슴없이 대답을 드리였다.

다음은 송아지를 길러 부림소를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물으니 코뚜레를 꿰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가 농사를 지어보았기때문에 농사일을 잘 아는것처럼 무엇이 어디에 필요한지 알아야 혁명사업도 더 잘할수 있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그후부터 그 대원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학습을 열성적으로 하였다.

부대에는 이 대원과 꼭같이 공부를 게을리하는 대원이 한명 또 있었다.

그가 어찌나 공부를 하는데서 말썽을 부렸던지 그의 중대장, 정치지도원은 골머리를 앓다못해 위대한 수령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몇시까지 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그 대원에게 전하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누구도 그 편지를 읽어주지 않도록 미리 전 부대에 일러두시였다.

그 대원은 편지를 받자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였지만 이핑게 저 핑게를 대며 그 누구도 읽어주지 않았다. 그는 하는수없이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와 편지내용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편지내용을 읽어주시고 글을 모르다나니 사령관의 명령도 수행못했다, 동무가 적구에서 사업할 때 편지로 어떤 명령을 받으면 어쩔번 했는가고 하시였다.

그 대원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다음부터 열심히 학습하여 수준이 높은 훌륭한 지휘관으로 자라났다.

정치학습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혁명의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훈련을 강화하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지휘관들의 군사학습에서는 유격전술과 전법을 배우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였다.

지휘관들은 지난 시기 진행된 전투들에서 적용한 위대한 수령님의 뛰여난 전술을 깊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학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습을 통하여 배운 전법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지휘관들에게 정황을 주어 작전계획을 세우게 한 다음 그것을 여러 사람이 토론하면서 분석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정안툰전투를 비롯하여 이따금 전투도 조직하여 배운 지식을 실천을 통해 자기의것으로 만들게 하시였다.

대원들의 군사훈련에서는 신입대원들이 많은 조건에 맞게 사격훈련을 위주로 하면서 여러가지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을 숙련시켰다.

일반대원들에게도 전술학습을 시키고 지도보는 방법, 방위를 판정하는 방법을 배워주었다.

군정학습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성원들을 견결한 혁명투사로 키운 밀림속의 《군정대학》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도하신 군정학습을 통하여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쟁쟁한 혁명투사들로 자라났다.

문답식학습방법—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으로서 서로 묻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문제의 본질을 깊이 파악할수 있게 하는 학습방법.

군정학습—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군사정치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진행한 학습.

난파이쯔회의

난후터우회의후 승리적으로 전진하던 우리 혁명은 주체27(1938)년말에 이르러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을 더욱 강화하면서 《귀순공작》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한편 창바이, 혜산을 비롯한 도처에서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 학살하였다.

놈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커다란 손실을 당하게 되였다.

또한 이 시기 국제당의 지시에 따라 러하(열하)원정에 나갔던 중국인항일무장부대들도 큰 손실을 입었다.

중국항일무장부대들은 만저우일대에서 조선인민혁명군과 어깨겯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던 부대들이였다.

그런데 자기의 주견이 없이 벌방지대의 러하쪽으로 나가면서 일제놈들을 족치라는 국제당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다보니 대포와 땅크로 무장한 일제놈들에게서 큰 타격을 받았다.

중국인무장부대들이 큰 손실을 당한것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적들의 대병력과 거의 혼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난관을 이겨내고 조선혁명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자면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주체27(1938)년 11월 난파이쯔(남패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는 중국인항일무장부대 지휘간부들도 참가하였다.

회의는 일제가 대병력을 동원하여 난파이쯔의 수림을 포위한 속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를 방금 시작하려는데 일제놈들이 들여보낸 변절자 한놈이 나타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놈에게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말을 들으시고 사람답게 살라는 충고를 주어 돌려보내시였다.

일제놈들은 첫째놈이 실패하고 돌아오자 다른 변절자를 또 들여보내였다.

이놈은 강대한 일본과 싸우는것은 부질없는짓이라고 떠벌이면

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싸움을 그만두고 산에서 내려오시기만 하면 큰 벼슬을 할수 있다고 지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자를 당장 처단하고싶었지만 회의시간을 얻기 위해 얼마간 리용하기로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자에게 지금 사령부가 다른데 가있기때문에 데려오도록 련락을 하였으니 당분간 기다려달라는 편지를 써서 상전에게 보내게 하시였다.

난파이쯔를 포위하고있던 놈들은 졸개의 편지를 믿고 기다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일제놈들을 감쪽같이 속여넘기시고 10여일간의 시간을 얻어 여유있게 회의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공세를 분쇄함으로써 열하원정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조선혁명을 계속 전진시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가들은 그 누구의 지시나 눈치를 보면서 혁명을 할것이 아니라 자기 주견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지키며 정세판단을 옳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시급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에로 진출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다 망했다고 거짓선전을 대대적으로 하였다.

놈들은 어느날 어디서 혁명군이 전멸되였다고 그럴듯하게 꾸며 신문에도 냈고 방송으로도 불어댔다.

일제의 거짓선전으로 인민들은 신심을 잃고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일제의 거짓선전을 짓부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이 계속 용감히 싸우고있다는것을 인민들에게 알리자면 조선인민혁명군이 국경일대와 국내에 나가 일제를 족쳐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넓은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릴데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부대들을 방면군과 독립련대로

편성하고 매 방면군이 나가 활동할 지역을 정해주시였다.

회의가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변절자놈을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하게 하시였다.

난파이쯔회의는 조선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무장투쟁을 계속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고난의 행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난파이쯔회의가 끝난 다음 먼저 각 부대들을 이미 정해준 지역으로 떠나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주체27(1938)년 12월 국경일대에로의 행군을 시작하시였다.

이 행군은 종래의 행군들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류례없이 간고한 행군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몽강현 남패자로부터 장백현 북대정자에 이르는 행군은 행군기간으로 보나 그 간고성으로 보나 종래의 행군들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간고한 행군이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간고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이 국경일대에로의 행군시기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소멸》한다고 하면서 수십만의 군대와 비행기까지 동원시켰다.

놈들은 이 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이 나타날만 한 곳에 군대를 미리 배치해놓았다가 나타나면 교대를 해가면서 진드기처럼 검질기게 달라붙어 혁명군이 쉬지도 자지도 먹지도 못하게 하는 전술을 썼다.

그해 따라 초겨울부터 눈이 많이 내렸고 령하 4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가 계속되였다.

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옷은 갈기갈기 찢기고 신발은 밑창까지 닳아 떨어졌다.

여기에다가 식량난까지 겹치여 강냉이 몇알로 끼니를 에웠으며 그것마저 떨어져 생눈을 집어먹으며 행군하였다. 어찌다가 목재소를 습격하여 말을 빼앗아도 불을 피울수 없어 생것으로 먹어야 하였다.

참으로 고난의 행군은 집요하게 달려드는 적들과의 투쟁, 엄혹

한 자연과의 투쟁, 극심한 식량난과 피로와의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막아나서는 난관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뛰여난 전술과 대원들에 대한 사랑으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가지 유격전술을 령활하게 쓰시면서 적들을 족치고 부대의 전투승리를 보장하시였다.

주력부대가 검질기게 달려드는 놈들을 대부대로 족치면서 한달가량 행군하여 창바이현 치다오거우치기(7도구치기)에 이르렀을 때였다.

한동안 사령부의 행처를 찾지 못했던 적들은 사령부가 백두산쪽으로 행군한다는것을 알아차리고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대부대로 달려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의 움직임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주력부대를 3개 방향으로 나뉘여 활동하게 하시였다.

이에 따라 한 부대는 창바이현 상강구일대에로, 다른 부대는 푸쑹현 둥강일대에로 진출하게 되였다. 그리고 사령부는 경위중대, 기관총소대와 함께 쟈짜이수이(가재수)방향으로 행군하게 되였다.

또한 재봉대와 부상자들은 칭봉밀영으로 들어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밀림지대에 달려들면 부대를 야산지대로 옮기고 적들이 야산지대에 붙으면 다시 밀림지대로 옮기는 전술도 쓰시였다.

적들이 사령부를 찾아 밀림지대에 쏠리던 주체28(1939)년 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를 쟈짜이수이부락 가까이에 있는 야산지대에서 숙영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천막을 치고 얼마간 군정학습을 하도록 하시였다.

그런데 얼마후 조선인민혁명군이 야산지대에서 활동한다는것을 알게 된 적들은 《토벌대》를 야산지대로 내몰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체없이 부대를 이끄시고 또다시 밀림지대로 들어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행군기간 적들끼리 싸우게 하는 전술로 놈들을 족치시였다.

부대가 훙터우산쯔(홍토산자)라는 큰 산에서 추격해오는 적들을

뒤에 단채 산을 두바퀴째 돌고있을 때였다.

이때 앞에서 적들이 또 나타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뒤에서 적들이 나타나자 진대나무를 타고 전 부대가 슬쩍 옆으로 빠지도록 하시였다.

그런줄도 모르고 앞뒤에서 달려들던 놈들은 외통길에서 마주치게 되자 저마다 상대가 조선인민혁명군인줄로 알고 죽기내기로 싸웠다.

놈들은 많은 주검을 내고서야 제편끼리 싸웠다는것을 알고 싸움을 멈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처럼 묘한 전술로 적들을 련이어 족치시였기때문에 놈들자신도 도저히 유격대를 없앨수 없다고 비명을 질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행군의 나날 대원들을 굴할줄 모르는 혁명정신과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교양하시였으며 그들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돌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전기간 언제나 대원들의 앞장에 서시여 그들을 이끌어주시였다.

어린 대원들이 힘들어 주저앉으려 하면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힘을 내여 이 곤난을 극복해야 조국으로 나갈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대원들을 고무해주시였다.

그리고 대원들이 힘들어하면 그들의 배낭이나 무기를 메다주기도 하시였다.

어쩌다가 휴식할 때면 대원들의 꿰진 옷과 신발도 몸소 기워주시였다.

자신께 차례진 강냉이 몇알도 모아두었다가 힘들어하는 대원들에게 주시였으며 한홉의 미시가루마저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은 그대로 힘이 되여 대원들은 원쑤들과 굴함없이 싸워 마침내 승리할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고난의 행군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과 지시를 끝까지 관철하였으며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 싸웠다.

7련대장이였던 오중흡선생님은 위대한 수령님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련대를 사령부로 가장하고 적들을 끌고다니며 족치였다.

뒤따라오던 놈들의 총소리가 잠잠해지면 사령부가 걱정되여 오

던 길을 다시 가서 적들을 끌고와 족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칭봉밀영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헐뜯으려고 책동하던 혁명의 배신자와 견결히 투쟁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끝까지 지켜내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대원들에 대한 육친적사랑,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의하여 고난의 행군은 승리로 끝났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주체28(1939)년 3월말에 베이다딩쯔(북대정자)에 도착하였다.

난파이쯔에서 베이다딩쯔까지는 걸어서 1주일이면 넉넉히 가닿을수 있는 거리였다.

얼마 멀지 않은 거리였으나 적들과 싸우면서 행군하다보니 100여일이나 걸리였다.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혁명대오는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더욱 굳게 뭉쳤으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신념의 강자로 억세게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오를 이끄시고 국경일대에 나오심으로써 조선혁명을 계속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무산지구전투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끝마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베이다딩쯔에 이르렀다.

어려운 시련의 고비를 이겨낸 대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하였다.

100여일에 달하는 고난의 행군을 통해 강철같이 단련된 조선인민혁명군에게는 참으로 무서울것이 없었다.

베이다딩쯔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난파이쯔회의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곧 조국으로 진군할것을 계획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28(1939)년 4월 베이다딩쯔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고난의 행군을 총화하시고 새로운 투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을 련속 타격하고 조국으로 또다시 진군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넘어가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타격을 가하고 조국으로 또다시 진군하여야 합니다.》

온 겨울동안 유격대에 끌려다니던 적들은 기진맥진하여 제 소굴에 처박혀있었다.

이런 때에 국경일대와 국내에 진격하여 적들을 호되게 족치면 놈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줄수 있었다.

이 시기 일제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전멸되였다고 거짓선전을 대대적으로 하고있었다.

지어 어떤 곳에서는 인민혁명군의 《괴멸》과 저들의 《무훈》을 축하하는 경축대회까지 벌려놓았다.

적들의 악랄한 허위선전에 속아넘어간 일부 혁명조직성원들은 혁명의 사령부가 잘못되였다면 조선혁명은 다 망한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가망도 없는 혁명을 해서는 무엇하겠는가고 하면서 신심을 잃고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몇몇 공작원들이 국내에 들어와 아무리 선전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인민들에게 신심을 줄수 없었다.

오직 조선인민혁명군 대부대가 국내에 들어와서 적들을 족쳐야 인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진군하여 무산지구진공작전을 끝낸 다음에는 백두산동북부에서 대부대로 새로운 작전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베이다딩쯔회의후 국경일대에서 적극적인 전투를 벌려 조국진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시였다.

겨우내 조선인민혁명군을 따라다닌 놈들은 혁명군은 저들보다 더 지쳤기때문에 다시 전투에 나서자면 적어도 몇달은 잘 걸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의 이러한 약점을 꿰뚫어보시고 전부대에 적극적인 반격전을 벌릴것을 명령하시였다.

첫 공격목표는 츄쟈디엔(구가점)이였다.

이곳에는 본래 경찰과 자위단이 있었는데 여기에 《토벌》에 내몰려 겨우내 얻어맞은 놈들이 본거지로 돌아갈 맥조차 없어서 이 마을에 기여들어 쉬고있었다.

놈들은 겨울동안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술과 투전으로 세월을 보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이러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놈들을 불의에 습격하도록 하시였다.

아무러한 기미도 못 채고있던 놈들은 불의의 타격에 별로 맞서보지도 못하고 녹아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츄쟈디엔전투후 련이어 스우다오거우(15도구)전투, 반지에거우(반절구)전투 등 여러 전투를 벌려 국경일대의 놈들에게 타격을 주고 조국진군준비를 철저히 갖추시였다.

다오거우(도구)와 치기

백두산에서 압록강쪽으로 뻗어내려간 창바이현 골짜기들을 다오거우라 하며 다오거우의 막바지를 치기라고 한다.

린쟝에서 창바이로 올라가면서 25개의 골짜기마을들이 있다.

스류다오거우(16도구)와 스치다오거우(17도구)사이에 반지에거우가 있는데 반지에거우라는 이름은 골짜기 즉 다오거우가 채 형성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끊어졌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무산지구에로 진출하시였다.

주체28(1939)년 5월 18일 부대는 5호물동으로 감쪽같이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에 들어섰다.

오매에도 그립던 조국땅에 첫발을 디딘 대원들은 물동가에 피여난 아름다운 진달래의 향기를 맡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5호물동가에서 잠시 휴식한 대오는 청봉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봉마루에 오르시여 지형을 료해하고 숙영준비를 갖추게 하시였다.

숙영준비를 갖춘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나무에 껍질을 벗기고 혁명적인 구호들을 썼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도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자》, 《조선청년들, 속히 달려나와서 항

일전에 힘있게 참가하자》 등 여러 구호들을 친히 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 부대를 이끄시고 건창에 이르러 또다시 숙영하도록 하시였다.

청봉에서 건창까지는 10리밖에 안되였다.

이처럼 가까운데서 또다시 숙영하게 된것은 멀리 가는척 하면서 적의 코밑에 돌아앉아 적들의 눈길을 딴곳으로 돌리기 위해서였다.

부대가 숙영준비를 거의 끝낼무렵 한 대원이 낚시군으로 가장하고 기여든 밀정놈을 체포하였다. 이놈에 대한 심문을 통하여 놈들이 벌써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 들어왔다는것을 알아차리고 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밀림속을 샅샅이 뒤지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을 감쪽같이 따돌리기 위하여 두개의 소부대를 파견하시였다.

한 소부대는 포태리방향에 나가 적을 타격하고 다른 소부대는 압록강을 건너 창바이쪽으로 빠진것처럼 발자국을 크게 낸 다음 자취를 감추게 하시였다.

이렇게 하여 국내에 들어왔던 조선인민혁명군이 다시 압록강을 건너간것처럼 놈들을 속여넘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 새벽 부대를 이끄시고 베개봉으로 향하시였다. 그날은 안개가 너무도 자욱하게 끼여 지척을 분간할수 없었다. 척후대로 나간 대원들은 방향을 잡지 못하여 애를 먹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척후대에 나가 군용지도와 라침판을 가지고 행군을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베개봉에 이르자 부대에 숙영명령을 내리시고 적정을 알아보기 위해 정찰조를 파견하시였다.

얼마후 정찰조는 원시림속에 기막히게 멋있는 도로가 있다는것을 보고하였다. 그 도로가 《갑무경비도로》였다.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막을 목적으로 갑산과 무산을 련결하는 도로를 닦아놓고 검열을 받기 위하여 청소까지 말끔히 해놓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베개봉에서 지휘관회의를 여시고 한달음에 천리를 가는 일행천리전술로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무포까지 재빨리 빠져나갈데 대한 작전계획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조선인민혁명군 대부대가 자기들의 경비도로를 대낮에 행군하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것이라고 타산하시였던것이다.

다음날 부대는 베개봉을 떠나 삼지연못가에서 휴식한 다음 대낮에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보무당당히 행군하여 무포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저녁 지휘관회의를 여시고 대홍단지구로 진격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신사동과 신개척일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다음날 아침 무포를 떠난 부대는 점심무렵 대홍단벌 국사당부근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계획대로 2개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부대를 이끄시고 신사동으로 가시였다.

신사동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과 함께 목재소로동자들의 합숙으로 가시였다.

뜻밖에 조선인민혁명군을 보게 된 인민들은 지난 겨울 조선인민혁명군이 다 잘못되였다고 하더니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였다고 하면서 감격과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날 밤 합숙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여온 군중들앞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데 대한 연설을 하시였다.

신사동사람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거느리시는 조선군대가 왔다고 하면서 기장밥을 짓고 농마국수까지 눌렀다.

인민들의 지성에 감동된 대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있던 식량을 다 털어놓았다.

신사동에서 계획한 사업을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반드시 추격하여오리라는것을 타산하시고 마을을 떠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홍단벌에 오시여 둔덕진 곳에 부대를 매복시키시였다.

이무렵 신개척에 나갔던 7련대도 그곳의 적들을 족치고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한 다음 약속된 장소인 대홍단쪽으로 돌아오고있었다.

5월 23일 날이 밝을무렵 7련대가 대홍단벌에 나타났다.

그런데 7련대의 뒤를 적들이 따르고있었다. 7련대는 적들이 꼬리를 물고 따라온다는것을 미처 모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7련대에 련락하여 놈들이 뒤따른다는것을 알려주고 매복진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다른 부대가 매복진을 치고있다는것을 알리 없는 놈들은 7련대의 뒤를 놓칠세라 정신없이 따라왔다.

7련대의 기본력량은 매복진을 지나왔으나 대렬뒤에서 짐을 지고 따라오던 로동자들이 미처 빠지지 못하고있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지체하면 적들까지도 매복권안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을 그 자리에 엎디게 하신 다음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7련대도 돌아서면서 적들을 답새기였다.

잠간사이에 적들은 무리로 녹아났다.

이러한 때 신사동과 신개척에서 적들의 증원부대가 몰켜왔다.

쫓겨가던 적들이 그들과 힘을 합쳐 다시 달려들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잘 볼수 있는 언덕에 지휘처를 정하시고 전투를 지휘하시였다.

적들은 이날 여러 방향으로 공격해보려고 시도하였으나 그때마다 무리죽음만을 내였다.

바빠난 적들은 대홍단벌에 숱한 시체를 남긴채 꽁무니를 빼기 시작하였다.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도망치던 놈들은 너무 당황하여 마주 달려오던 제놈들과 맞총질을 하는 추태까지 벌렸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산지구진공작전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무산지구전투는 보천보전투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서 진행한 가장 규모가 크고 의의가 있는 전투였다.

보천보전투가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시위한 전투였다면 대홍단전투는 적들이 전멸당했다고 선전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해있을뿐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대한 력량으로 자라나 일제에게 큰 타격을 주고있다는것을 실지로 보여준 력사적인 전투였다.

이 전투가 있은 다음부터 우리 인민들은 적들의 그 어떤 선전에도 속지 않았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홍단전투가 끝난 다음 부대를 이끄시고 두만강을 건너 백두산동북부에 이르시였다.

대부대선회작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산지구전투후 그해 여름 백두산동북부에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려 이 일대를 혁명적으로 튼튼히 꾸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동북부에 다시 나타나 눈부신 활동을 벌리자 일제는 그것을 막아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일제놈들은 곳곳에 포대를 쌓고 물샐틈없이 경비를 강화하였다.

그렇게 하여도 조선인민혁명군에게 련속 얻어맞게 되자 가을부터는 이 지역에 많은 병력을 들이밀었다.

사실 이때로 말하면 일제가 중일전쟁에 들이밀 무력도 모자라 쩔쩔매던 때였다.

그렇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중일전쟁도 제대로 할수 없고 쏘련도 침공할수 없다고 생각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 《토벌》에 20여만명이나 되는 큰 무력을 동원하였다.

일제는 그 많은 무력으로 백두산동북부의 산림속을 샅샅이 훑으면서 밀영과 후방기지를 모두 없애는 전술로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놈들의 《토벌》작전을 짓부시기 위하여 주체28(1939)년 10월 량쟝커우(량강구)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백두산동북부의 넓은 지역에서 대부대선회작전을 벌릴데 대한 새로운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제침략자들의 새로운 〈토벌〉작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백두산동북부의 광활한 지역에서 대부대선회작전을 조직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혁명군이 대부대로 이미 정한 비밀통로를 따라 넓은 지역을 빙빙 돌면서 여러가지 전법으로 적을 답새기는 작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의후 대부대선회작전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대부대선회작전의 첫 단계는 둔화쪽으로 나가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의 이동로정을 위장하기 위하여 둔화쪽으로 곧추 가지 않고 허룽, 안투일대로 에돌아가게 하시였다.

이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은 발자국을 내면서 남쪽방향으로 행군하다가 네이다오산(내도산)근처에서 자취를 감추고 행동방향을 180° 로 바꾸어 둔화가 있는 북쪽방향으로 향하였다.

놈들은 허룽과 안투의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로 조선인민혁명군이 빠져나간것으로 알고 그리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놈들이 허룽과 안투의 깊은 산속을 뒤지고있을 때 조선인민혁명군은 둔화땅에 닿았다.

둔화땅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8(1939)년 12월 류커쑹(륙과송)목재소를 습격하시였다.

그때 류커쑹에는 많은 적병력이 주둔하고있었고 포대도 여러개 있었다. 그리고 병영두리에는 울타리를 두르고 그안으로는 철조망을 세겹이나 쳐놓았다.

류커쑹목재소에서는 약 600명의 로동자들이 일하고있었다.

이날 적들의 병영을 습격할 임무를 받은 오중흡련대장이 지휘하는 7련대는 돌격으로 넘어가 순식간에 병영을 점령하였다.

바빠맞은 놈들은 비밀리에 파놓았던 지하도로 쫓겨들어갔다.

오중흡련대장은 적들이 덮고 자던 이불을 가져다가 지하통로 입구에 쌓아놓고 불을 지르게 하였다.

세찬 불길과 함께 연기가 지하도로 쓸어들어갔다. 그안에 있던 놈들은 숨이 막혀 견딜수가 없게 되자 밖으로 기여나왔는데 몇놈은 총을 쏘며 발악하였다.

전투를 지휘하던 오중흡련대장이 적탄에 맞아 희생되였다.

오중흡련대장이 희생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분을 금치 못하시며 놈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하도록 하시였다.

순식간에 놈들은 제압되고 전투는 승리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커쑹전투가 있은지 한주일만에 쟈신쯔(쟈신즈)목재소를 들이치시였다.

류커쑹이 녹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벌벌 떨던 놈들은 유격대가 공격을 개시하려 하자 무조건 항복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류커쑹과 쟈신쯔전투에서 수많은 적들을 소

멸하고 많은 물자를 로획하였으며 인민혁명군을 따라나선 200여명의 로동자들을 부대에 받아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커쑹과 쟈신쯔전투를 승리적으로 끝내신 다음 쑹화강변의 수림속에서 연예공연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한편 허룽, 안투일대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 헤매다가 허탕을 친 놈들은 둔화일대에서 울린 총소리를 듣고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이 눈덮인 험한 산발로 이곳까지 오자면 오랜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타산하시고 행군로정을 남쪽으로 꺾어 바이스탄(백석탄)에 이르시였다.

놈들을 감쪽같이 따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바이스탄밀영에서 40여일간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정학습을 조직진행하시였다.

군정학습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불패의 무력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둔화의 깊은 수림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헤매던 놈들은 거기서 헛물만 켜다가 바이스탄일대에로 밀려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정훈련을 통하여 더욱 단련된 부대를 이끄시고 다시 두만강연안의 국경일대에로 진출하시였다.

국경일대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9(1940)년 3월 일제의 《토벌대》가 자리잡고있는 다마루거우(대마록구)를 공격하시였다.

유격대의 위력을 잘 알고있는 놈들은 총 한방 쏘지 못하고 달아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하신 다음 적들에게서 빼앗은 식량과 천을 그들에게 나누어주시였다.

부대가 이곳을 떠나자 많은 로동자들이 떨쳐나서 전투에서 로획한 물자를 날라주었다.

다마루거우가 습격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들은 부랴부랴 주변에 있던 놈들을 긁어모아 조선인민혁명군을 뒤쫓아왔다.

놈들이 뒤쫓아오리라는것을 미리 내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짐을 지고 따라왔던 로동자들이 다른 방향으로 발자국을 크게 내면서 다마루거우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민혁명군의 발자국은 감쪽같이 지워버리도록 하시였다.

이것을 알리 없는 적들은 로동자들이 눈우에 낸 발자국을 따라

정신없이 뒤쫓아갔다. 그러다나니 놈들은 다마루거우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후 조선인민혁명군의 행방을 찾느라고 돌아치던 놈들이 또다시 뒤따르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뒤따라오는 적들을 홍치하(홍기하)골짜기에서 소멸해치우기로 결심하시였다.

홍치하를 전투장소로 선택한것은 놈들이 반드시 이 골짜기를 지나야 하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군부대가 골짜기를 따라 얼마쯤 내려가다가 다시 발자국을 메우면서 되돌아와서 지정된 곳에 매복하도록 하시였다.

인민혁명군의 발자국을 따라 정신없이 내려오던 적들은 유격대가 매복한 구역에 완전히 들어섰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격명령에 따라 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기였다.

적들은 첫 타격에 반수이상 쓰러졌으나 력량을 수습하면서 돌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유리한 곳에 매복하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맹렬한 사격에 무리로 죽어넘어졌다.

이 전투에서 유격대를 《토벌》하는데 앞장서 날뛰던 마에다라는 악질 《토벌》대장놈과 그 부대는 거의 전멸되고말았다.

홍치하전투는 대부대선회작전의 승리를 빛나게 장식한 전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주체29(1940)년 4월 화라쯔(화라즈)에서 여신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대부대선회작전을 총화하시고 대부대활동으로부터 분산활동으로 넘어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은 중대규모의 소부대로 갈라져서 도처에서 련속타격, 동시타격, 반복타격 등 다양한 전법으로 놈들의 대《토벌》공세를 완전히 격파해버리였다.

3.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

샤오하얼바령회의

파쑈도이췰란드에 의해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날을 따라 더욱 확대되였다.

히틀러도당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련이어 강점하자 일제도 아시아에서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놈들은 전쟁을 확대할수록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닥치게 되였다.

일제는 또한 전선이 넓어지는데 맞게 군대와 군수물자도 보장할수 없었다.

일제는 이미 중일전쟁에서 자기 무력의 절반이상을 잃었으나 그것을 보충하지 못하고있었다.

게다가 전쟁에서 자식과 남편들을 잃은 일본인민들은 매일과 같이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였다.

일본통치배들속에서도 개싸움질이 그칠줄 몰랐다.

이 모든 사실은 일제가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으며 조국해방의 날이 가까와오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따라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더 잘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꿰뚫어보시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과업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체29(1940)년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샤오하얼바령(소할바령)에서 력사적인 군정간부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우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면서 그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키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선혁명의 중추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면서 그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육성하는것입니다.》

조국해방은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벌려야만 이룩할수 있었다.

이 최후결전에서 핵심적역할을 해야 할 력량은 바로 조선인민혁명군이였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력량을 보존하고 더욱 늘이는 한편 그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키워야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그리고 나라가 해방된 다음 새 조국을 건설하는 사업도 잘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결전은 조선인민혁명군과 함께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야만 승리할수 있었다.

따라서 전체 인민이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에 한결같이 떨쳐나설수 있게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또한 이 전략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당시 일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하겠다고 하면서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토벌》공세를 악랄하게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대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없애려고 발악하는 조건에서 대부대작전을 계속하면 적들의 계책에 말려들어 손실을 입게 되며 종당에는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없게 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소부대활동을 하면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도 잘할수 있고 식량문제도 쉽게 해결할수 있으며 놈들의 력량도 분산시킬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이밖에도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지휘간부들과 대원들을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한 문제 등 새로운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들을 내

놓으시였다.

샤오하얼바령회의는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준비와 해방후 새 사회건설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데서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샤오하얼바령회의를 계기로 항일무장투쟁은 새로운 발전단계,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단계에로 넘어가게 되였다.

소부대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샤오하얼바령회의가 끝난 다음 소부대활동을 벌리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를 소부대와 소조로 편성하시였다.

소부대는 보통 10명으로부터 수십명으로, 소조는 몇명정도로 조직하였으며 구대원과 신대원, 정치일군과 군사지휘관들을 잘 배합하였다.

모든 소부대와 소조안에는 당세포와 당분조가 조직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부대와 소조를 편성하신 다음 그들이 의거하여 활동할수 있는 림시비밀근거지를 꾸리도록 하시였다.

림시비밀근거지는 적들에게 발견되지 않으면서도 인민들과 련계를 맺기 좋은 곳에 있는 동굴이나 눈에 띄우지 않게 초막을 지어 리용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소부대군사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부대활동시기 대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시였다.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가던 시기는 매우 어려운 때였다.

이 시기 일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조선인민혁명군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많은 무력을 《토벌》에 내몰았다.

골짜기와 릉선마다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다니는 놈들이 누렇게 깔리여있었고 도시와 마을들에는 밀정들이 피눈이 되여 돌아쳤다.

어려운 난관이 겹쌓이자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여 변절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정세에서 대원들에게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수 있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것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주체29(1940)년 가을 멍산촌(맹산촌)에서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대원들에게 어려운 정세를 숨기지 않고 툭 털어놓고 이야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5년후일지, 10년후일지 찍어 말하기 어렵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더 큰 난관이 있을수도 있으니 끝까지 혁명을 하지 못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더라도 함께 싸운 동지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라고 말씀하시였다.

대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와 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팔에 매여달려 혁명의 승리를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해도 절대로 수령님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였다.

이 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을 끝까지 받들어모시고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대원들의 굳은 맹세가 불타오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우리자체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도록 교양하시였다.

1941년 쏘련과 일본사이에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쏘일중립조약이 체결되였다.

그러자 혁명적의지가 약한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났다.

그들은 앞으로 쏘련과 일본이 전쟁을 하여 일본이 망하게 되면 우리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소조성원

> **쏘일중립조약**
>
> 쏘일중립조약은 1941년 4월 모스크바에서 쏘련과 일본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
> 목적—일제는 쏘련에 대한 침공을 일정한 기간 미루어 그들을 안심시켜놓고 동남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시간을 쟁취하려는데 있었다.
>
> 쏘련은 도이췰란드의 쏘련침공이 눈앞에 다가온 조건에서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이 쏘련을 침공하지 않도록 하려는데 있었다.
>
> 이것은 일시적인것이였다.

은 이 조약이 체결되였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던 나머지 비겁하게도 동지들을 버리고 도망가고말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원들에게 조선혁명은 반드시 우리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정신을 깊이 심어주는것이 중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주체30(1941)년 5월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고 모든 대원들이 조선혁명을 자체의 힘으로 완수하여야 한다는 각오를 굳게 가지게 하시였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는 왕칭현 쟈피거우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책임자회의를 여시고 모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라는 혁명적자각과 우리자체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소부대, 소조활동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부대, 소조들의 군사활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소부대활동시기에도 계속 총소리를 냈습니다. 무의미한 충돌은 피하면서도 필요할 때에는 적들을 되게 답새겼습니다.

력량을 보존하기 위해 큰 규모의 싸움은 물론 피했습니다. 그대신 대중정치공작과 정찰활동에 많은 힘을 넣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간 다음에도 수많은 전투들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샤오하얼바령회의후 1개 분대가량의 경위대원들을 거느리시고 옌지현방향으로 행군하실 때였다.

어느 사득판에 이르러 외나무다리를 건너 숲속에 들어서던 대오는 갑자기 적들의 기관총사격을 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맞받아 기관총사격으로 적들을 답새기게 하는 한편 대오가 재빨리 큰길로 빠지게 하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서 적의 큰 부대가 달려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이 다리쪽으로 되돌아 달리면서 앞뒤의 적들에게 맹사격을 가하고 옆으로 슬쩍 빠져 산으로 오르도록 하시였다.

이것을 알리 없는 다리목에 있던 적들과 큰길에서 달려오던 놈들은 서로 상대방이 유격대인줄 알고 오래동안 치렬한 싸움을 벌려 숱한 주검을 내였다.

적들은 한참후에야 제놈들끼리 싸웠다는것을 알고 비명을 질렀다.

소부대활동시기 이런 싸움은 거의 매일과 같이 진행되였다.

어떤 날에는 몇개 소부대가 한데 합쳐 큰 대상을 쳐갈기기도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부대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때때로 큰 싸움을 하였기때문에 놈들은 인민혁명군이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넘어갔다는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

여러 지역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의 다른 소부대들도 놈들에게 련속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편 소부대, 소조들이 정찰활동을 힘있게 벌려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게 하시였다.

정찰조들은 북부조선일대에 있는 놈들의 군사기지는 물론 평양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정찰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정찰조원들은 놈들의 물샐틈 없는 경비진을 뚫고 적의 코밑에서 영구화점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콩크리트쪼박까지 떼내왔다.

정찰조들은 철길옆의 어지러운 물속에 며칠씩 잠복해있으면서 적들의 이동정형을 알아내기도 하였고 적의 전술훈련정형을 정찰하기 위하여 무더운 여름날 바람 한점 없는 땅굴속에서 땀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정찰자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제때에 보고되였으며 이것은 일제를 소탕하기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소부대, 소조들이 인민들속에서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각지에 파견된 소부대, 소조들은 인민들속에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나라는 반드시 해방된다는것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다.

한편 인민대중속에 당조직과 조국광복회조직을 더욱 넓혀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인민들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속에서도 조국해방의 신심을 굳게 가지고 굴함없이 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소부대와 소조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 시기 소부대들은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제정된 날자에 약속된 장소에서 사령부와 련계를 맺군 하였다.

그런데 한 소부대가 적의 포위속에 들어 그것을 뚫고나오다나니 련락날자가 지나 련계가 끊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 통신원을 파견하시였으나 종시 련계를 맺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부득불 사령부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자 련락이 끊어진 소부대성원들을 위하여 숙영지자리에 식량과 솜옷을 묻어두게 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소부대에서 굉장히 큰 사슴을 잡은적이 있었다.

이때에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련계가 끊어진 소부대성원들을 생각하시여 고기를 우등불에 말리워 가루를 내게 하신 다음 그것을 종이봉지에 넣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쉰개나 되는 봉지마다 몸소 붓으로 소부대성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써서 배낭에 지고 다니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 고기가루에 누기가 차지 않게 자주 말리우도록 하시였으며 아무리 식량형편이 어려워도 절대로 그것만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였다.

련락이 끊어진 소부대는 사령부 우등불자리에서 어버이사랑이 깃든 솜옷과 식량을 찾게 되였고 죽음의 고비를 무수히 넘으며 마침내 사령부로 돌아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찾아온 소부대성원들을 크게 치하하시고 귀중히 보관하였던 고기가루봉지를 매 대원들에게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소부대활동을 하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대원들은 외로움을 모르고 승리의 신심에 넘쳐 굴

함없이 꿋꿋이 싸워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소부대군사정치활동이 적극 벌어짐으로써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빨리 다그쳐지게 되였다.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위한 군정훈련 강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부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정치군사적으로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하여 훈련기지에서 군정훈련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의 최후승리를 내다보던 바로 그 시절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혁명적락관과 신심에 넘쳐 군정훈련을 다그치며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겨나갔습니다.》

군정훈련을 강화하는것은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준비를 완성하며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간부를 키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군정훈련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정훈련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훈련을 계획하고 지도하는 부서, 후방사업을 맡아보는 부서들을 내오시였으며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시였다.

이와 함께 군정훈련에서 배워주어야 할 과목과 내용, 방법 등을 밝힌 훈련강령을 짜시였으며 우수한 지휘관들을 교원으로 임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실, 식당, 훈련장소를 잘 꾸리고 훈련에 필요한 기재들도 준비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훈련하는 부대를 분대와 소대, 중대 등으로 새로 편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빠른 시일안에 훈련준비가 철저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훈련준비가 갖추어지자 주

체30(1941)년초부터 군정훈련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훈련에서 정치학습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훈련에 들어가던 초기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군사훈련에만 관심을 돌리면서 정치학습을 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들은 일제와 싸워 이기자면 무엇보다도 군사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그들은 군사훈련에만 힘을 넣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게 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훈련에만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정치학습을 잘하여야 해방후 당과 국가, 경제와 문화 등 그 어느 부문을 맡겨주어도 일을 척척 해나갈수 있는 만능의 일군으로 준비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후부터 모든 대원들은 정치학습에 큰 힘을 넣게 되였다.

정치학습에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기본으로 배웠다.

또한 조국에 대한 학습에도 큰 힘을 넣었다.

그 당시 항일투사들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만저우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이였고 조선땅에서 태여났다고 해도 어려서 만저우지방에 가 살았기때문에 조국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었다.

조선의 력사와 지리, 자기 인민에 대하여 잘 모르면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킬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었고 나라가 해방된 다음 새 조국 건설도 잘할수 없었다.

그런데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자고 하니 볼만 한 책이 없는것이 제일 큰 애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소부대활동을 하는 대원들에게 과업을 주시여 필요한 책들을 구해오도록 하시는 한편 여러가지 방법으로 책들을 구해들이시였다.

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지휘관들은 저마다 책을 들고 밤낮으로 이악하게 학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반적인 조선혁명을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학습강사로 자주 나오시여 학습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군정학습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지

휘관을 부르시여 조선지도를 큼직하게 그려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지도를 그리되 중요한 산과 벌, 강과 호수, 지하자원, 명승지와 문화유적들까지 다 그려넣으라고 하시였다.

과업을 받은 지휘관은 종이를 몇장 이어붙이고 큼직하게 지도를 그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학습시간에 이 지도를 걸어놓고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의 력사와 지리, 우리 나라 문화전통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후부터 대원들은 조국에 대한 학습에 더 큰 힘을 넣었다.

정치학습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대학에서 몇년동안 배워야 할 지식을 빠른 기간에 배웠으며 그 어느것에나 막히는데가 없는 유능한 간부들로 준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학습과 함께 군사훈련을 강화하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군사훈련에서는 전술훈련을 많이 하였다.

유격전술훈련은 습격전, 매복전을 기본으로 하였다.

대원들은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었기때문에 이 훈련만 하면 성수가 나서 참가하였다.

유격전술훈련만이 아니라 현대전의 전법들을 배우기 위한 훈련도 맹렬히 하였다.

전술훈련은 소대나 중대단위로 하였다.

전술훈련에서는 누구나 다 지휘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임의의 대원을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전투과업을 주면 즉시 정황을 판단하고 결심을 채택한 후 명령을 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훈련에서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게 실지 써먹을수 있는 군사지식을 배우도록 하시였다.

전술훈련을 통하여 인민혁명군의 모든 대원들은 몇등급이상의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는 훌륭한 지휘관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군사훈련에서는 사격훈련도 많이 하였다.

사격훈련은 가까운 거리와 먼거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목표와 움직이는 목표, 나타났다없어졌다하는 목표를 쏘는 훈련을 기본으로 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남다른 열성을 가지고 사격훈련에 적극 참가하시여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신비한 사격술을 보여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각 부대의 명사수들만 참가한 사격경기에서 단연 최고점수를 쟁취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소형권총을 선물로 받으시였다.

군사훈련에서는 락하산훈련도 하였다.

이 훈련은 다른 훈련에 비해 매우 어렵고 위험한 훈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신심을 주기 위하여 몸소 여러차례에 걸쳐 락하산훈련에 참가하시였다.

이에 고무된 대원들은 모두가 락하산훈련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군사훈련에서는 수영훈련도 많이 하였다.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며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벌려야 하였던것만큼 수영훈련은 특별히 중요하였다.

그때 수영훈련은 락하산훈련 다음 가는 힘든 훈련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대다수가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였다. 때문에 헤염을 칠줄 아는 사람은 불과 몇명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대다수 대원들이 강을 보면 무서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우에서 헤염동작을 배워준 다음 강으로 데리고나가 헤염칠줄 아는 대원들이 시범동작을 해보이며 배워주도록 하시였다.

군사훈련에서는 이외에도 통신병훈련, 지형학훈련, 상륙훈련을 비롯하여 정규전에 필요한 모든 훈련을 다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튼튼한 골간부대로, 새 조국 건설을 맡아할수 있는 간부대오로 자라났다.

전민항쟁준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옴에 따라 전체 인민을 일제를 쳐부시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더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게 하자면 그 준비를 미리부터 잘해야 하였다.

그래야 조선인민혁명군이 총공격을 개시할 때 전체 조선인민이 모두 들고일어나 자기 지방, 자기 마을에 있는 일제놈들을 완전히 꺼꾸러뜨리고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2(1943)년 1월 조국해방의 3대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조국해방의 3대로선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총공격을 개시하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나 봉기를 일으키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배합하여 전민항쟁무장조직들의 배후련합작전을 벌려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의 3대로선에 따라 전민항쟁준비를 적극 다그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후결전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전민항쟁을 위한 작전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국내에 꾸려진 비밀근거지들을 튼튼히 하면서 새로운 림시비밀근거지들을 꾸리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주체29(1940)년 9월 간백산밀영에서 있은 회의에서 중요한 지대들에 림시비밀근거지들을 많이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소부대와 소조, 정치공작원들에게 림시비밀근거지를 꾸릴데 대한 과업을 주어 국내 여러곳에 파견하시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받들고 북부조선과 중부조선의 산간지대에 림시비밀근거지들을 꾸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국내비밀근거지와 림시비밀근거지들을 찾으시여 전민항쟁을 위한 준비를 더 잘

갖추도록 지도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무장봉기조직들과 인민들은 림시비밀근거지를 더 잘 꾸리고 적들의 무기를 빼앗고 식량, 피복 등 물자들을 마련하면서 무장봉기태세를 갖추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핵심육성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핵심이 있어야 인민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일제와의 싸움에로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군사정치훈련도 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후결전의 시각이 다가오는데 맞게 혁명의 핵심들을 많이 키워내기 위하여 간백산밀영에서 강습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강습은 한달 또는 석달정도 하였는데 한번에 수십명씩 와서 배웠다. 여기에는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지하혁명조직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강습에서는 인민들로 무장조직을 꾸리는 방법,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방법과 내용을 비롯하여 전민항쟁을 준비하는데서 절실히 필요한 문제들을 가르쳐주었다.

강습이 끝나면 자기 지방에 다시 보내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때로는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백산밀영에서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핵심들을 키워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게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합세하여 전민이 떨쳐나서게 하자면 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켜야 하였다.

여러 지역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과 소부대성원들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였다.

그들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널리 해설선전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천보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적들을 통쾌하게 쳐부신 이야기와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들과 동지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신 고매한 풍모에 대한 이야기를 감

동적으로 해설해주었다.

정치공작원들과 소부대성원들은 산속의 나무들에 혁명적구호를 써서 인민들을 교양하였다.

그들은 《2천만동포여 우리 나라 독립하면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최고령수로 모시자》, 《아 조선아 백두성 탄생을 알린다》와 같은 혁명적구호들을 이르는 곳마다에 아로새겼다.

구호문헌들은 광범한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가슴마다 애국의 피가 끓어번지게 하였다.

정치공작원들과 소부대성원들이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린 결과 인민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심이 더욱 높아졌다.

인민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은 수많은 전설들이 퍼졌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독립후의 조선의 최고지도자》,《장래 조선의 대통령》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심은 어른들뿐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져있었다.

일본의 한 학자가 남부조선의 어느 소학교에서 소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 다음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조선사람들과 일본사람들가운데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직하게 쓰라고 하였다.

그러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김일성**》이라고 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봉기조직들을 내오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무장봉기조직들이 있어야 조선인민혁명군이 총공격을 개시할때 적의 뒤통수를 때릴수 있었고 전민항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무장으로 보호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국적인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일제의 징병, 징용을 피하여 숨어다니는 사람들을 묶어세워 무장대와 무장봉기조직들을 널리 조직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무장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이 더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으며 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에 무장봉기조직들이 나왔다.

서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대》가 무어졌다.

《**김일성**대》는 광범한 반일대중을 묶어세워 항쟁태세를 단단히 갖추고있다가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로 진격할 때 거기에 합세하여 최후결전에 참가할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투쟁하였다.

이 조직은 주요군수공장과 항구 지어는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로동자들속에까지 조직을 넓혀갔다.

평양에서는 김원주선생님에 의하여 조국해방단이 조직되였다.

이 조직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총공격을 할 때 그에 합세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이였다.

조국해방단은 평안남도, 황해도일대의 넓은 지역에 조직을 넓혀나갔으며 자체로 무기도 만들어냈다.

함경북도 성진(김책)에는 백두산회가 조직되였다.

이 조직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따른다는 뜻에서 그 이름을 백두산회라고 달았다.

이외에도 전국각지에는 여러가지 이름을 가진 수많은 조직들이 나왔다.

1942년 일제는 제놈들이 탐지해낸 국내의 반일지하조직만 하여도 180여개나 되고 거기에 망라된 인원이 50만명이상이나 되였다고 하였다.

그후에 무어진 조직들과 적들에게 발각되지 않은 조직까지 합치면 그 수는 이루 말할수 없이 더 많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무장봉기조직을 국내뿐아니라 일본땅에도 꾸리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곳마다에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조직들이 나오게 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일제와의 마지막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설 만단의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

징병—일제가 침략전쟁에 필요한 군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청년들을 강제로 끌어간것.

징용—일제가 침략전쟁에 필요한 군수공장, 기업소들과 군사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간것.

조국해방의 실현

1940년대 중엽에 이르러 정세는 우리 혁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되여가고있었다.

전세계를 단숨에 먹을듯이 날뛰던 도이췰란드가 1945년 5월에 손을 들고 항복하였다.

일제는 동맹자들이였던 도이췰란드, 이딸리아가 망하여 외토리신세가 된데다가 가는 곳마다에서 얻어맞고있었다.

반면에 우리의 혁명력량은 일제와의 마지막 판가리싸움을 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일제와의 마지막 판가리싸움에서 주력으로 될 조선인민혁명군은 그 어떤 원쑤도 때려부실수 있는 불패의 전투대오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였다.

국내의 곳곳에 당조직들이 나오고 조국광복회조직들이 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박고있었으며 최후결전이 벌어지면 놈들의 뒤통수를 때릴 무장봉기조직들도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었다.

이 력량이면 얼마든지 일제와 마지막 판가리싸움을 하여 승리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세를 꿰뚫어보시고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세우시여 주체34(1945)년 7월말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때 우리는 간백산일대에 집결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예정된 통로로 진출하여 각 도들을 해방하며 원동의 훈련기지에 집결되여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평양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항공편으로 신속히 진출하여 이미 꾸려놓은 비밀근거지들을 차지하고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벌리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전계획에서 각 부대들의 진출방향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백산밀영에 집결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예정된 통로로 진출하여 각 도들을 해방하게 하시였다.

또한 훈련기지에 있는 부대들은 비행기를 타고 평양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락하하여 이미 꾸려놓은 비밀근거지들을 차지하고 적을 번개처럼 들이치는 군사작전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전계획에서 국내에서 활동하고있던 소부대와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들을 전민항쟁에로 불러일으켜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합세하도록 하시였다.

지도에 쭉쭉 뻗어나간 붉은 화살표들을 보며 작전계획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설명을 들은 항일투사들은 끝없이 격동되여 감격과 기쁨에 휩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작전계획에 따라 부대들을 다시 편성하시고 지휘관들을 임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전투준비를 완전히 갖추며 전인민적봉기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도 더욱 철저히 갖추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준비는 완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세우신 작전계획에 따라 최후공격작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앞서 일제가 국경일대에 꾸려놓은 요새들을 먼저 들이치기로 하시였다.

일제는 10여년전부터 국경의 여러곳에 비밀리에 군사요새들을 건설해놓고 많은 무력을 배치하고있었다.

이 요새들의 무력배치정형을 알아내고 제때에 까부셔야 최후공격작전을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함경북도 웅기군 토리를 습격하기 위하여 떠났다.

토리는 그때 놈들이 꾸려놓은 경흥요새구역과 웅기—라진요새구역을 끼고있는 묘한 위치에 자리잡고있었다.

때문에 토리를 잃게 되면 적들의 두 요새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놈들은 그 일대의 넓은 지역을 내놓아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는 작은 배로 두만강을 은밀히 건넜다.

두만강을 건너온 부대는 토리에 진출하여 비가 억수로 쏟아지

는 속에서도 놈들의 병영을 불의에 습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부대의 불의의 습격을 받은 놈들의 대부분은 별로 맞서지도 못하였고 악질적인 일부 놈들만 발악해나섰다.

부대는 곧 돌격으로 넘어가 발악하는 놈들을 소탕하고 순식간에 토리마을을 해방하였다.

토리가 습격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적들은 서둘러 증원부대를 파견하였다. 그런데 전투에 내몰린 증원부대는 겁을 먹고 토리까지 오지도 못하고 멀찌감치에서 제놈들의 경찰관주재소가 불타는것을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고말았다.

토리습격전투와 때를 같이하여 훈춘현 난비에리(남별리)와 둥싱진(동흥진)을 비롯한 여러 군사요충지들에 대한 습격전투도 진행되였다.

최후공격작전에 앞서 벌린 적들의 요충지들에 대한 습격전으로 놈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이 총공격에로 넘어갈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최후결전의 돌파구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 전 부대에 총공격명령을 내리시였다.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일제히 조국에로의 진격을 개시하였다.

간백산밀영에 집결되여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작전계획에 예견된 도시와 마을들을 련속 해방하면서 공격을 확대해나갔다.

두만강연안에 집결하였던 부대들은 놈들이 《난공불락의 방어선》이라고 장담하던 국경요새를 순식간에 돌파하고 경원, 경흥일대를 해방한 다음 웅기일대로 공격해나갔다.

한편 바다로 진격한 부대들은 웅기에 상륙한 다음 청진방향으로 진격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국내에 파견되여 활동하던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무장대들과 무장봉기조직들, 광범한 인민들을 전인민적항쟁에로 불러일으켰다.

라진인민무장대는 놈들이 오래동안 품들여 건설해놓은 해군기지가 있는 라진을 해방하기 위한 전투를 벌렸다.

인민무장대는 먼저 소부대를 파견하여 주요대상들을 습격하게 하였다. 소부대는 밤중에 은밀히 시내에 들어가 적 요새사령부와 헌병대, 경찰서를 습격하고 군수창고에 불을 질렀다.

그러는 사이에 대기하고있던 기본대오가 시내로 쳐들어가 놈들을 안팎으로 답새겨 적들을 소멸하고 라진을 해방하였다.

라진인민무장대만이 아니라 전국도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합세하여 무장항쟁을 일으켰다.

청진, 길주, 성진(김책)지구의 무장대들은 적패잔병들을 소탕하고 공장들을 틀어쥐였으며 경찰기관들을 짓부시였다.

평안남도와 평양지구에서는 조국해방단을 중심으로 무어진 항쟁대오가 놈들의 통치기관을 점령하고 적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하였다.

안팎에서 얻어맞고 녹아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작전이 개시된지 1주일만인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무너지고 우리 나라는 해방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은 드디여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강대한 일제와 맞서 싸워 이긴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혁명투쟁이였다.

이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의의, 혁명전통 창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끄신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그 의의는 무엇보다도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인민앞에 새 사회 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의 패망으로 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앞에는 휘황찬란한 재생의 길, 부흥의 길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나라의 해방이 이룩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새 조선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그 의의는 다음으로 우리 혁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참다운 혁명가들이 자라나고 우리 혁명을 떠메고나갈 핵심부대가 꾸려졌다.

전체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르게 되였다.

이것은 조선혁명을 더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되였다.

그 의의는 또한 착취받고 압박받는 세계인민들에게 오직 무장을 들고 싸워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는데 있다.

그 의의는 또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는 과정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선 주체의 사상체계와 혁명정신이다.

주체의 사상체계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유일적인 사상체계로 이루어져있다.

혁명정신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원쑤들에 대한 견결한 투쟁정신, 필승의 신념과 그 어떤 고난도 웃으며 맞받아나가는 혁명적락관주의가 담겨져있다. 또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백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의리와 동지애, 국제주의정신이 포함되여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참다운 애국주의는 혁명정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항일혁명투쟁은 력사상 류례없는 최대의 애국투쟁이였으며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니였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가장 숭고한 조국애였다.

혁명전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장구한 기간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조국을 해방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 혁명적당조직을 결성하고 혁명군대를 창건하시였으며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여러 대중적인 혁명조직들을 조직하고 이끄시는 등 혁명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혁명전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이민위천》의 사상을 지니시고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인민들속에 들어가 혁명투쟁을 벌리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인민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풀어주는 사업작풍, 이신작칙하는 사업작풍, 겸손하고 소박하고 례절바르고 문화성있게 생활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은 고귀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제3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새 조국 건설을 조직령도

〔주체34(1945). 8－주체39(1950). 6〕

1.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 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20년간의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시였다.

조국을 해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참으로 많고도 많았다.

그중에서도 새 조선을 우리자체의 힘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밝혀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해방직후 우리 인민들의 건국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으나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며 어느 길로 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게다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비롯한 반동분자들은 우리 인민의 새 조국 건설을 방해하려고 미쳐날뛰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이처럼 혼란된 틈을 타서 사방에서 어중이떠중이들이 나타나 저마다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느니, 당장 사회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다.

지어 케케묵은 봉건국가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하는 얼빠진자들도 있었다.

이런 정세속에서 우리 인민에게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참된 길을 밝혀주는것은 참으로 잠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새 조국 건설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3대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새 조국 건설로선은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

립국가를 건설하는것이였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3대과업은 건당, 건국, 건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에 토대하여 건당, 건국, 건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새 조선 건설의 력사적과업을 반드시 빛나게 수행해야 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면 반드시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며 강력한 정규군대를 내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여야 인민정권도 정규무력도 내올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새 조국 건설에로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당과 함께 혁명의 무기인 인민정권을 세워야 인민대중을 나라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할수 있고 경제를 발전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할수 있었다.

그리고 정규적혁명무력을 조직해야 나라를 튼튼히 지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3대과업을 내놓으신 다음 건당, 건국, 건군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군복차림 그대로 해방산기슭의 자그마한 집에서 전우들과 함께 침식을 하시면서 각 지방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이와 함께 여러곳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여 우리나라 형편을 해설해주고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여러곳의 공장과 농촌들에 나가시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새 조국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주체34(1945)년 10월 9일 그리운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시고도 강선제강소의 로동계급을 먼저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생활형편과 제강소의 파괴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로동자의 매듭지고 옹이 배긴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지난날에는 굶어죽지 않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일해왔지만 이제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하게 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이것을 풀어줄 사람이 따로 없으니 우리의 힘으로 공장을 돌려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이자고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온 나라에는 짧은 기간에 당조직과 정권기관들이 나오게 되였으며 전체 인민들이 새 조국 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자주독립국가—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자체의 힘으로 관철하며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행사하는 나라.

2. 주체의 혁명적당 창건

공산당 창건

해방후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하루빨리 당을 창건하는것이였다.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여야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옳바로 이끌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이 해방되자 곧 당을 창건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시였다.

그러나 당을 창건하는 사업에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나라가 해방되자 종파분자들은 저마다 자기 파를 내세우려고 날뛰면서 당창건사업을 방해하였다. 특히 해방후 서울에 모여든 종파분자들은 뒤골방에 모여앉아 하루밤사이에 이른바 《공산당》을 만들어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헤아려보시고 지체없이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되고 육성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통일적인 로동계급의 당인 조선공산당을 하루속히 창건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준비

된 항일혁명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여러곳에서 혁명투쟁을 하던 사람들을 망라하여 당을 창건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오랜 기간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핵심이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들이였다.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우신 항일혁명투사들만으로도 얼마든지 당을 창건할수 있었다.

그러나 항일혁명투사들로만 당을 내오면 여기에 망라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당을 내오려고 할것이므로 결국 혁명대오가 분렬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항일혁명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나라안팎에서 혁명투쟁을 벌리던 사람들까지 다 망라하여 하나의 당을 내오기로 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창건방침을 내놓으신 다음 곧 당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지방에 파견된 항일혁명투사들이 이미 내온 당조직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면서 당조직이 없는 곳에서는 새로 내오도록 하시였다.

한편 나라안팎에서 혁명투쟁을 하던 사람들을 만나시여 당창건방침을 해설해주시면서 하루빨리 당을 창건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몸소 지방당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며 당창건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새 조국 건설사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시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안남도당의 한 책임일군을 만나시였다.

그처럼 흠모하여 마지 않던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에 만나뵙게 된 일군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넘쳐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인사를 나누신 다음 도당사업과 도안의 전반적인 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도당책임일군은 허물없이 대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어려움도 잊고 아는것도 없고 경험도 없다보니 이 복잡한 속에서 무슨 일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로부터 시작하여 당면하게 해야 할 과업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고

당창건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저녁식사도 함께 나누시고 밤이 깊도록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 또다시 그를 만나시여 그가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설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북반부에서는 당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빨리 추진되여나갔다.

그러나 미제가 강점한 남반부에서는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이 진척될수 없었다.

1945년 9월《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애국적인민들과 혁명가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면서 당창건사업을 파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런 조건에서는 북과 남의 혁명가들을 다 망라하는 통일적인 당을 당장 창건할수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통일적인 당을 창건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때까지 기다릴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주체34(1945)년 10월 5일 당창건을 위한 예비회의를 여시고 북반부에 강력한 당중앙지도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내올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과 많은 대표들은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내오는것을 적극 지지하여나섰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각 도당이 《서울중앙》에 직속되여야 한다고 떠들면서 북반부에 당중앙조직위원회를 내오는것을 한사코 반대하여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다 들으신 다음 《서울중앙》을 지지하는것은 결국 당을 분렬시키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검은 속심을 낱낱이 발가놓으시였다.

그리하여 목청을 돋구며《서울중앙》을 떠들던 종파분자들의 기도는 산산이 부서지고말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창건준비사업이 끝나자 주체34(1945)년 10월 10일 당창립대회를 여시고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공산당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힘있게 벌려오신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고귀

한 결실이였다.

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부강하고 자주적인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을 창건하신 다음에야 우리 인민들이 그처럼 손꼽아 기다리며 마련한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 나오시였다.

주체34(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김일성**경기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환영군중대회가 성대히 열리였다.

대회장은 평양시는 물론 신의주, 함흥, 청진, 해주 등 각지에서 모여온 사람들로 가득찼다. 지어 남조선의 여러곳에서 달려온 사람들도 있었다.

오후 1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하늘땅을 뒤흔드는 폭풍같은 환호가 터져올랐다. 그칠줄 모르는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소리가 메아리치며 끝없이 울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뜨거운 인사를 보내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우리 조선민족은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갈것을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은 우리 인민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앞에 뜻깊은 개선인사를 하신 후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투사들과 함께 작은 나루배로 순화강을 건느시여 만경대에 이르시였다.

만경대에서는 온 동네가 떨쳐나서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환

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다운 고향사람들과 뜨겁게 인사를 나누시였다.

군중들은 너무도 감격하여 만세를 높이 부르며 환희에 넘쳐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받고 달려나오신 할머님께서는 수령님의 넓은 품에 안기시며 《네가 기어이 돌아왔구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라고 하시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였다.

참으로 감격적인 상봉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할머님을 모시고 고향집의 사립문으로 들어서시였다.

그러자 할아버님께서 버선발로 달려나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신 할아버님의 주름잡힌 두볼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할아버님의 두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정중히 인사의 말씀을 올리시였다.

그날 만경대고향집에서는 20년세월 가슴속에 쌓이고쌓였던 사연들로 하여 밤새도록 이야기가 그칠줄 몰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게 되시였다.

그때 고향집은 수리중이여서 구들을 뜯어놓고 문도 채 달지 못하고 지내는 형편이였다. 때문에 채 마르지 않은 구들에 짚을 깔고 그우에 멍석을 펴놓고있었다.

20년만에 고향을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이런 집에 모시랴싶어 일가분들과 마을사람들은 이웃에 있는 깨끗한 집에 방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할아버님께 우리는 산에서 호강을 하다가 온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좋은 제집에 와서야 왜 구차스럽게 남의 집에서 자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고향집 눅눅한 방에서 할머님께서 무명낳이를 하여 만드신 이불을 덮고 주무시였다.

참으로 이 감격적인 력사의 날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경사의 날이였으며 우리 조국의 유구한 력사에 길이 빛날 영광의 날이였다.

민주주의― 근로인민의 의사를 담아 정책을 세우고 실현해나가는 정치.

로동당창립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 건설사업을 이끌어나가시면서 공산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당을 강화하고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게 하자면 로동자, 농민, 근로지식인의 선진분자들을 다 망라하는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발전시켜야 하였다.

당이 대중적당으로 발전해야 당대렬을 빨리 늘일수 있고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은 힘있는 당으로 될수 있으며 새 조국 건설도 잘해나갈수 있었다.

그리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선봉대로서 자기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형편을 깊이 헤아리시고 공산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조선에서는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동하여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창립하며 남조선에서는 공산당과 인민당, 신민당이 합동하여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창립하는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은 북반부에서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을 내오고 남조선에서는 공산당, 신민당, 인민당이 합당하여 남조선로동당을 내오는것이였다.

이 방침은 근로대중의 분렬을 막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옳바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합당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합당과 관련하여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당이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도 당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당이 근로대중의 선봉대로 되는것만큼 그에 맞게 로동자, 농민, 근로지식인들가운데서 우수한 사람들을 당에 널리 받아들여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와 함께 핵심대렬을 늘이고 당의 통일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합당이후의 당의 이름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여 창립할 당은 다같이 로동에 참가하는 로동자, 농민, 근로지식인의 선진분자들의 조직인것만큼 그 이름을 로동당이라고 하는것이 제일 좋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창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공산당 및 조선신민당 중앙위원회 확대련석회의에서 두 당을 합당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게 하시였다.

회의후 두 당은 세포로부터 시작하여 도당에 이르기까지 우로 올라가면서 합당사업을 진행하여 로동당의 지방조직들을 내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를 여시고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인 로동당의 창립을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그리고《로동신문》과 잡지《근로자》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로동당이 창립됨으로써 우리 당대렬은 급속히 확대강화되고 당은 근로대중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마크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이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주체34(1945)년 11월 1일부터 《정로》(바른 길이라는 뜻)라는 이름으로 발간되다가 로동당창립후 주체35(1946)년 9월 1일부터 그 이름을 《로동신문》으로 바꾸었다.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잡지이다.

주체35(1946)년 10월 25일에 창간되였다.

려넣게 하시였다.

세상에 로동계급의 당은 많지만 당의 마크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당이 로동자와 농민, 근로지식인의 선진분자들로 구성되여있는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반부에서는 미제와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공산당, 신민당, 인민당의 합당이 지연되여 뒤늦게야 남조선로동당이 창립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북과 남의 애국적민주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남조선로동당을 북조선로동당과 합치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주체38(1949)년 6월 북남로동당이 합당하여 조선로동당으로 되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근로지식인—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조선신민당—주체35(1946)년초 주로 농민과 지식인들로 조직되였던 당.

3.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결속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을 창건하신 다음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을수 있으며 새 조국 건설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그런데 미제와 반동놈들은 우리 인민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종파분자들은 그들대로 대중을 서로 자기편에 끌어당기면서 대중을 분렬시키고있었다.

종파분자들은 로동계급은 철저히 농촌의 빈고농과만 손을 잡아야 한다고 떠들면서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였다.

재산이 좀 있거나 잘사는 사람들을 악질적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명단에 같이 올려놓고 타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였다.

일군들이 량심적인 기업가들을 만나 교양하려고 하면 자본가와

손을 잡는다고 비방하였고 종교인들을 만나면 《마약중독자》가 되고싶은가고 시비하였다.

때문에 해방전에 괜찮게 살던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남으로 나가려고 보따리까지 싸놓고있는 형편이였다.

이러한 실정은 하루빨리 계급별, 계층별, 직업별로 하나의 통일적인 대중단체를 내오고 거기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광범한 대중을 계급별, 계층별, 직업별로 통일적인 대중단체들에 망라시켜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대중단체들을 광범히 조직하고 로동자들은 로동자조직에, 농민들은 농민조직에, 청년들은 청년조직에, 녀성들은 녀성조직에, 문화인들은 문화인조직에 망라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녀성들의 조직을 각각 하나씩 내오고 광범한 군중을 자기 조직에 묶어세우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방침에 따라 광범한 군중을 자기 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중단체들을 조직하는데서 청년들을 하나의 조직에 굳게 묶어세우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공산주의청년동맹과 함께 농민청년동맹, 학생동맹 등 여러가지 청년조직이 따로따로 있었다.

이러한 청년조직들가운데서 새 조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공산주의청년동맹이였다.

그러나 공청만 가지고서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었다.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다 망라하는 그릇이 큰 대중적인 청년조직을 내오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분렬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공청을 해산하고 대중적청년조직인 민주청년동맹을 창립하여 거기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청년들을 하나로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국적청년들은 민주주의기발아래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민주청년동맹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하게 하시였다.

그뿐아니라 청년일군들의 청을 받아들여 몸소 그 명예회장으로 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34(1945)년 10월 각 도의 청년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주청년열성자대회를 마련하시고 친히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조선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청을 해산하고 민청을 조직하는것을 공청의 단순한 해산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공청원들은 민청에 들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새로 내오는 민청은 반드시 우리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청을 조직할데 대한 로선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대회에 참가한 종파분자들은 자기들의 검은 속심을 드러내놓기 시작하였다.

이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른 일로 자리를 뜨신 틈을 타서 민청을 조직하는것은《청년운동의 퇴보》니 뭐니 하면서 잡소리를 줴쳤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의장에 다시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분자들의 검은 속심을 폭로분쇄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민청을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민청열성자대회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평안남도의 민청조직사업을 지도하여 본보기를 창조하신 다음 그것을 모든 도들에 일반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청을 내오는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청년들과 청년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어느날 함박눈이 내리는 깊은 밤에 평양시민청위원회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청사를 돌아보시다가 청년들이란 밝고 명랑한

것을 좋아하는데 현관전등이 이렇게 어두워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전등을 바꾸어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정문이 작은것을 보시고는 희망과 포부가 큰 청년들이 앞가슴을 쩍 벌리고 네활개를 치며 드나들수 있게 문을 넓혀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늦도록 일하다가 책상에 엎디여 쪽잠에 든 한 청년일군을 보시고 그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나라의 모든 도, 시, 군, 면들에 민청단체들이 나오고 여기에 여러 청년단체들이 합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토대하여 주체35(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하시였다.

민주청년동맹이 창립됨으로써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청년들이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뭉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북조선로동조합총련맹(직업동맹)과 북조선농민조합련맹(농민동맹),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을 조직하시고 거기에 모든 로동자와 농민, 녀성들을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애국적민주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워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시였다.

여기에는 공산당, 신민당, 민주당, 청우당과 민청, 직업동맹, 농민동맹, 녀맹 등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다 망라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광범한 군중을 자기 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계급—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고있는가, 가지고있지 못한가 하는데 따라 갈라지는 사람들의 큰 사회적집단.

계층—하나의 독자적인 계급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 계급에게 복무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집단.

민주당—주로 기업가, 상인, 부농 등을 망라한 당.

청우당—천도교를 믿는 사람, 주로 농민들을 망라한 당.

사회단체—사회의 일정한 계급 및 계층들이 자기들의 공동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무은 단체.

4. 인민민주주의정권의 수립과 민주개혁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을 창건하고 그 두리에 광범한 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우시는 한편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해방된 조국땅에 참다운 인민정권을 하루빨리 세워야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인민들을 나라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원쑤들의 책동도 철저히 짓부실수 있었다.

참다운 인민정권을 하루빨리 세워야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었다.

그런데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나라가 둘로 갈라진 조건에서 당장에는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세울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로부터 북반부에 림시인민위원회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북조선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인민의 리익을 대표할수 있는 림시적인 중앙주권기관을 창설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은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들을 망라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림시적인 중앙정권을 세우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각지에 항일혁명투사들을 파견하여 지방마다 인민위원회를 내오게 하시였다.

해방직후 지방마다 인민위원회 또는 인민정치위원회들이 조직되였으나 그때까지 조직되지 못한 곳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실정에서 아직 인민위원회를 내오지 못한 곳에는 빨리 내오게 하시고 그 이름도 인민위원회로 통일시키시였다.

그리하여 해방후 2〜3개월동안에 모든 지방에 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였다.

그런데 일군들의 수준이 낮고 경험이 없다보니 일부 지방인민위원회들은 자기 임무를 옳게 수행하지 못하고있었다.

한편 해방직후의 복잡한 틈을 리용하여 반동분자들이《애국자》로 가장하고 인민위원회안에 기여들었다.

이자들은 인민대중속에서 인민정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인민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책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꿰뚫어보시고 정권기관안에 기여든 반동분자들을 내쫓고 지난날 착취와 압박을 받으며 고생스럽게 살아온 사람들로 인민위원회를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이 인민의 참다운 심부름군이 되도록 하나하나 일깨워주시며 그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해방후 첫 양력설 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을 친히 부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군이 올리는 인사를 받으시고 왜놈들이 없는 세상에서 처음 맞는 설인데 인민들이 설을 즐겁고 뜻깊게 지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뜻밖에도 대동문의 인경(평양종)을 칠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칠수 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오늘 밤 12시에 종소리를 울려 우리 인민들에게 해방을 맞이한 감격을 더욱 새롭게 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이날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잘 돌보아주며 일을 잘해야 하겠다는 자각을 깊이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일본새가 달라지고 정권기관들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그러나 지방인민위원회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중앙기관이 없었기때문에 인민위원회들은 통일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였으며 서로 련계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부족점을 없애기 위하여 산업국, 교통국, 체신국, 농림국, 상업국, 재정국, 교육국, 보건국, 사법국,

보안국으로 된 행정10국을 내오시였다.

행정10국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각 도 사이의 경제적련계를 지어주는 사업을 하였다.

또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도 하였다.

결과 북반부에는 중앙주권기관을 내올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2월 8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내오시였다.

우리 인민은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세워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쥔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새 조국 건설의 힘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
> 해방직후의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의사에 완전히 맞는 중앙정권기관으로서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하여 조직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정권이였다.

인민정권—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권.

민주개혁의 실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세우신 다음 곧 민주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민주개혁을 하여야 인민대중을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경제와 문화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민주개혁을 수행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민주개혁을 수행하는데서 무엇보다 토지개혁을 먼저 실시하시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일제와 얼마 안되는 지주놈들이 거의 모든 땅을 차지하고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제땅이 없어 지주놈들의 모진 착취와 억압을 받아왔다.

따라서 토지개혁을 하여야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 조선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수 있었다. 그리고 농업생산을 늘이고 나라의 경제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을 잘하기 위하여 그 준비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오랜 세월 땅이 없는탓에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온 우리 농민들에게 있어서 평생소원은 자기 땅을 가지고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는것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지주놈들을 때려부시고 땅을 빼앗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농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짜고드시였다.

우선 농민들을 3,7제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농민들은 3,7제투쟁을 벌려 자기들이 지은 곡식중에서 지주에게 30%만 주고 나머지 70%는 자기들이 가지게 되였다.

이 투쟁을 통하여 농민들은 단결하여 투쟁하면 지주를 때려부실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7제투쟁에서 기세가 오른 농민들을 이번에는 땅을 요구하는 토지청원운동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농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군중대회를 열고 위대한 수령님께 지주의 땅을 빼앗아 나누어줄것을 요구하는 편지와 청원서를 올렸으며 시위들을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토지개혁을 하기 위하여 맵짠 추위도 가리지 않고 석달이상이나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농촌형편과 농민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평안남도 대동군의 한 농촌마을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을에 지주는 몇이나 되고 그들이 토지는 얼마나 가지고있는가, 지주가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하였는가, 어른 한사람이 얼마만한 땅을 다룰수 있으며 가족수에 따라 땅을 얼마나 가지면 살아갈수

있는가 하는것을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그러신 다음 어떤 땅은 빼앗고 빼앗은 땅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 나누어주겠는가 하는것을 확정하시였고 밤을 새우시면서 몸소 토지개혁법령을 작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토지개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밭갈이하는 농민들을 땅의 참된 주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하며 몰수한 땅을 국가소유로 하지 않고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토지개혁방침은 지주의 땅과 소작주던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빼앗아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며 그것을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을 하는데서 고농과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는 동맹하며 부농을 고립시키고 지주를 청산할데 대한 계급정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방침을 내놓으신 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원들과 선진적인 로동자들로 토지개혁지원대를 무어 농촌에 파견하시였다.

그리고 고농과 빈농들로 농촌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들이 주인이 되여 토지개혁을 맡아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여러 농촌들에 나가 토지개혁사업을 지도하시였다.

평안남도 대동군 시족면 내리농촌위원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들이 몰라서 안타까와하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였다.

이어 이웃마을인 성문리를 찾으시여서는 지주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농민들의 거칠어진 손을 따뜻이 쓸어주시며 피눈물로 얼룩

진 그들의 지난날에 대하여 다 들어주시고 지주가 가지고있던 땅가운데서 제일 좋은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지주집에서 대대로 머슴을 살며 고생한 한 농민에게 그 집을 쓰게 하시고 몸소 문패까지 큼직하게 써서 달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토지개혁은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가장 철저하게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토지개혁이 빛나게 수행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지주의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벗어나 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토지개혁과 함께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해방전 우리 나라의 큰 공장들은 모두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이 독차지하고있었다.

그러므로 중요산업을 국가소유로 하여야만 로동자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할수 있었으며 나라의 경제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요산업을 국유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소유로 되여있던 공장, 광산, 철도운수를 비롯한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여 인민의 소유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와 그 앞잡이들이 가지고있던 공장, 광산,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문화기관 등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나라와 인민의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로동자들이 일제와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가지고있던 모든 공장과 기업소들을 틀어쥐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로동자대표들로 공장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장을 지키면서 관리운영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편 몸소 여러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로동자들을 새 조국 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주체35(1946)년 4월 청진제철소(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용광로직장에 이르시여 한 로동자가 나무로 만든 총을 쥐고 용광로를 지키고있는것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그에게 동무들이 공장의 주인이기때문에 응당 이 공장을 지켜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숨죽은 제철소를 하루빨리 자체의 힘으로 복구하여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장, 기업소들이 로동자들의 손에 들어오고 일제가 마사놓은 공장들은 하나하나 복구되여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8월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내놓으시였다.

중요산업국유화법령에 의하여 전체 산업의 90%이상에 달하는 1 0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인민의 소유로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자들은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되였다.

중요산업이 국유화됨으로써 지난날 우리 로동자들의 피땀을 짜내는데 리용되던 공장, 기업소들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복무하게 되였다.

그리고 나라의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에는 로동법령을 내놓으시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게 되고 로동자, 사무원들에게는 8시간로동제가 실시되였으며 남자와 꼭같은 일을 한 녀성들은 남자와 꼭같은 생활비를 받게 되였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1년에 보름 또는 한달씩 휴가를 받게 되였고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놓고 일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법령을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몸소 현지에 나가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그해 11월 사리원방직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살안팎의 어린 나이에 일본놈들에게 팔려와서 그때까지 일하고있는 소녀들을 만나게 되시였다.

로동법령에 의하면 그들은 로동을 시킬수 없는 아이들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고사리같은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지난날 일제놈들의 채찍밑에서 이 손으로 매일 12시간씩 일하며 실을 뽑느라고 고생인들 얼마나 하고 매인들 얼마나 맞았겠는가고 하시면서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어 의지가지할데 없는 그들모두를 공장이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학교에 보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자들을 위해 베푸신 뜨거운 은정은 성진제강소 원철로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에게도 돌려졌다.

그 이듬해 9월 성진제강소를 현지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원철직장을 찾으시였다.

이곳은 지난날 수많은 로동자들이 피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전기에 붙어 목숨을 잃던 곳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직장의 한심한 작업조건을 헤아리시고 강철을 적게 생산해도 좋으니 원철직장을 흔적도 없이 폭파해버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일제시기 죽음의 고역장이였던 원철로는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영영 사라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로동법령의 혜택으로 우리 로동계급은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일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녀자들이 남자와 꼭같은 권리를 가지게 하는 남녀평등권법령도 내놓으시였다.

녀성들은 오랜 세월 모진 천대와 수모를 받으며 살아왔다. 녀성들은 문밖출입도 마음대로 할수 없었으며 심지어 물건처럼 팔려다니기까지 하였다.

특히 악독한 일제놈들은 조선의 나어린 처녀들과 젊은 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굴속이나 철조망울타리안에 가두어놓고 일을 시키면서도 돈은 남자들의 절반량밖에 주지 않았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권리를 주지 않고서는 새 조국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들도 남자들과 꼭같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권법령을 내놓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녀성들은 수천년동안 받아오던 천대와 멸시에서 영원히 해방되였으며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나라일에 참가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민주주의적시책들을 실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북반부에는 인민민주주의제도가 서게 되였다.

소작—지주에게 소작료를 착취당하면서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것.

민주개혁—지난날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회적변혁.

인민민주주의제도—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된 결과로 세워지는 사회제도. 다시말하여 식민지나라들에서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세우는 사회제도.

민족간부 해결

새 조국 건설을 시작한 우리 나라에서 제일 부족한것이 민족간부였다.

오랜 기간 일제의 식민지로 있다나니 우리 나라에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매우 적었으며 근로자들의 절대다수가 기술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지난날 일제는 우리 나라 북반부에 단 하나의 대학도 세우지 않았으며 조선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하였다.

지어 놈들은 조선로동자들이 별치 않은 기술기능을 가지는것조차 막아나섰다. 철도만 놓고보아도 해방직후 조선인기관사는 불과 다섯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고 나머지는 기껏해야 화부노릇이나 하였다.

발전소를 돌리자고 해도 전기기술자가 없어 애를 먹었고 일제가 도망치면서 파괴해놓은 용광로를 복구하자고 해도 그것을 기술적으로 지도할 기술자가 몇명 없었다. 뿐만아니라 의사도 교원도 작가도 예술인도 얼마 되지 않았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참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기술인재가 모자라는것이 큰 애로였다.

이런 형편에서 민족간부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새 조국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민족간부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기 위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을 개조하는것과 함께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키우는데 가장 큰 관심을 돌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은 오랜 지식인들을 교양개조하여 새 사회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며 이와 함께 로동자, 농민출신들로 새로운 민족간부들을 많이 키워내는것이였다.

이 방침은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민족간부문제를 훌륭히 풀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민족간부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지식인들을 대담하게 믿고 교양개조하여 새 조국 건설에 적극 참가시키시였다.

오랜 지식인들은 대체로 지난날 잘사는 집안에서 태여나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다니고 기술자, 전문가로 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지식인으로서 일제놈들로부터 민족적수모와 차별대우를 심하게 받아왔다. 따라서 그들은 반일애국사상을 가지고있었으며 새 조국 건설에 적극 참가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해방직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새 조국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할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북과 남에 흩어져있던 지식인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여 데려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중요한 부문들에서 일하도록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였으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보장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지식인들을 새 조국 건설의 중요초소들에 세워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지켜주시였다.

새 조국 건설시기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던 한 오랜 지식인이 반당종파분자들에 의해 철직되여 본래 일하던 광산으로 내려갔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오랜 지식인들이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이상 그들의 출신이나 경력이 문제될것이 없다고

하시며 우리가 있는 한 누구도 그들을 다치지 못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에게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주시여 첫 인민정권기관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산업국장의 중책을 맡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오랜 지식인들에게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이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버리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일을 잘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인민출신의 새 민족간부들을 자체의 힘으로 키워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려운 형편에서도 종합대학을 세울것을 발기하시고 대학건설사업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대학의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였다. 그리고 그후 여러차례 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사업을 지도해주시였다.

또한 대학을 운영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여러곳에 흩어져있던 학자들을 일일이 불러 대학에 보내주시였다.

주체35(1946)년 10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첫 인민의 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이 창립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민족간부육성의 모체인 **김일성**종합대학을 강화하는 한편 종합대학에서 공학부와 의학부, 농학부를 떼내여 평양공업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농업대학(원산농업종합대학)을 세우시였다.

그리고 새 조국 건설에 절실히 요구되는 당, 국가, 경제일군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중앙당학교(**김일성**고급당학교),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인민경제대학)를 창설하시고 전문학교들을 많이 내오게 하시였다.

결과 해방후 새 조국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인민자체가 키워낸 민족간부들에 의하여 훌륭히 풀어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편 만경대혁명학원을 세우시여 혁명가

유자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의 성전에서 최후를 마치며 자기들의 아들딸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달라고 한 혁명전사들의 간절한 부탁을 잊지 않으시고 해방후 만경대혁명학원을 내오시였다.

그리고 유자녀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혁명가유자녀들은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였다.

5. 새 조국 건설을 위한 대중운동

건국사상총동원운동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날 착취받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은 나라의 주인, 공장과 땅의 주인으로 되였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속에는 아직도 낡은 사상잔재와 나쁜 생활습성이 남아있었으며 그것은 사업과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어느 정권기관에서는 일군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 시키면서 건달을 부리며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어떤 지방일군들은 제멋대로 인민들에게서 여러가지 세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공장로동자들의 식량을 가로채고 로동자들에게 술집을 팔아서 제 배를 채우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공장의 주인이라는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일을 되는대로 하는 로동자들도 있었고 나라의 긴장한 식량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대로 먹고보자는 식으로 먹자판을 벌리는 농민들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 일제의 오랜 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것이였다.

낡은 사상잔재와 생활습성을 없애고 새로운 건국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새 조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5(1946)년 11월 건

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국적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낡은 사상의식을 개변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일제가 남겨놓은 낡은 사상과 생활습성을 없애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헌신하는 새로운 혁명적기풍을 세우기 위한 일대 사상혁명이며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적극 밀고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리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시, 군들에서는 우수한 선전원들로 《건국사상총동원공작대》가 무어져 선전활동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그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강연회, 해설담화, 연예활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해설선전사업을 벌리였다.

또한 일제사상잔재와 낡은 생활습성은 어떤것이며 그것이 왜 나쁜가를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면서 자체의 힘으로 공장을 빨리 복구하며 농사를 잘 지어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해야 한다는것을 해설하였다.

사상교양사업이 강화됨으로써 근로자들속에서 참다운 애국심이 높아지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새 조국 건설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낡은 사상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게 하시였다.

낡은 사상잔재와 나쁜 생활습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굳어진것이기때문에 사상교양과 함께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뿌리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투쟁을 중앙으로부터 공장, 기업소, 농촌 그리고 가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적극 벌리게 하시였다.

사상투쟁은 아글타글 애써 일하지 않고 건달을 부리며 국가재산을 훔치거나 망탕 써버리는 낡은 사상과 생활습성을 뿌리빼며 국가기관에 기여든 불순분자, 건달군들을 쫓아내는데 중심을 두고 진

행되였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이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진 결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와 생활습성이 없어지고 새 조선의 주인다운 정신이 높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인민대중의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늘 로동계급과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이 새 조국 건설의 주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도록 일깨워주시였다.

그리고 그들이 높은 열성과 애국심을 가지고 새 조국 건설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날 할 일은 그날에 마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생산을 더 많이 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로동자들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매일, 매달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였다.

특히 농민들은 높은 열성을 발휘하여 많은 알곡을 생산하였으며 나라에 애국미를 바치는 운동을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땅에서 첫해농사를 잘 지어 많은 알곡을 생산한 황해도 재령군의 김제원농민은 새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30가마니의 쌀을 나라에 바치였다.

김제원농민의 모범을 따라 재령군안의 농민들은 애국미헌납운동에 앞장서면서 전국의 농민들에게 이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제원농민과 재령군 농민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였으며 모두가 김제원농민의 모범을 따라 애국미헌납운동을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온 나라 농민들이 앞을 다투어 이 운동에 참가하게 되였다.

이 과정에 농민들속에서는 자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귀중히 여기는 정신이 높아졌으며 식량을 절약하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기업가와 상인들도 앞을 다투어 나라에 돈을 내고 기계도 바치며 새 조국 건설에 적극 참가하였다.

애국미헌납운동—해방후 땅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이 새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려고 국가에 쌀을 자원적으로 바친 애국적인 대중운동.

증산경쟁운동

우리 인민의 새 조국 건설은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진행되였다.

해방후 우리 인민이 일제로부터 넘겨받은것은 파괴된 공장과 혼란된 운수 그리고 장부만 남은 금고뿐이였다. 이처럼 나라형편이 어려웠지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데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을 적극 불러일으켜 새 조국 건설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나갈것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기 위하여 증산경쟁운동의 한 형태인 로동영웅운동을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주체35(1946)년 4월 흥남비료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 건설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이 공장을 하루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일을 잘하여 로동영웅이 되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에 고무된 이 공장의 로동자들은 로동영웅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파괴된 설비들을 복구하고 그해 비료생산량을 전해에 비하여 훨씬 높이였다.

공장, 광산, 농촌들에서 로동영웅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짧은 기간에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정비되여 생산을 시작하게 되였으며 알곡생산도 늘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로동영웅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데 따라 그를 대중적인 증산경쟁운동으로 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증산경쟁을 잘 조직하여야 합니다.

증산경쟁을 조직하는것은 인민경제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서 절실히 필요한것입니다.》

증산경쟁운동은 근로자들사이에 증산경쟁을 맺고 기본과제밖에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대중적인 혁신운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증산경쟁운동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시였다.

주체35(1946)년 10월 정주기관구의 철도로동자들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건국사업에서 큰 난관으로 되고있는것이 철도운수라고 하시면서 애국운동을 벌려 철도수송을 하루빨리 추켜세우자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정주기관구 로동계급은 자체로 수십대의 기관차를 수리하였다.

그들은 기관차에 땔 석탄이 떨어지자 채탄돌격대를 뭇고 탄광으로 달려가 석탄을 자체로 캐서 기관차가 정상적으로 달리게 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주기관구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을 높이 평가하시고 전국의 철도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이 모범을 본받을데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의 근로자들은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은 높은 건국열의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에 황해제철소의 로동계급은 일본놈들이 도망치면서 혹심하게 파괴한 용광로와 해탄로를 자체의 힘으로 복구하여 첫 쇠물을 뽑았다.

청진방적공장 로동계급은 조선사람의 기술로써는 도저히 복구할수 없다던 공장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복구하였다.

농민들도 씨붙임과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를 경쟁적으로 하여 알곡생산을 훨씬 높이였고 수십개의 관개공사를 끝내였다.

새 조국 건설시기에 공장과 농촌에서 활발히 벌어진 로동영웅운동, 증산경쟁운동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왔다.

로동영웅운동—해방직후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로력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기 위한 근로자들의 혁신운동.

문맹퇴치운동

지난날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낫 놓고 《ㄱ》자도 모르는 문맹자였다.

문맹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일수 없었고 나라의 문화도 발전시킬수 없었다.

뿐만아니라 근로자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사업도, 새 조국 건설도 제대로 해나갈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1월 문맹퇴치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광범한 군중을 각성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문맹퇴치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문맹퇴치운동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고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며 나라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운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맹퇴치운동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기 위하여 《인민문화향상은 문맹퇴치로부터!》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이 운동에 모두가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문맹퇴치지도위원회를 내오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성인학교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문맹퇴치사업에 민청을 비롯한 사회단체들과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들을 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 민주조선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문맹퇴치운동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시였다.

주체36(1947)년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원도 평강군에서 찾아온 한 녀성농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야기과정에 그가 글을 모른다는것을 아

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면 성인학교에서 부지런히 공부를 하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글을 알아야 사는것 같고 그래야 나라일도 잘할수 있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그 녀성이 글을 꼭 배우겠다고 말씀올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면 나하고 약속하자고 하시면서 지금부터 석달후에 문맹을 퇴치하고 제손으로 편지를 써서 그 소식을 보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녀성에게 동무가 문맹을 퇴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문맹퇴치운동을 벌리도록 한번 호소해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석달후 그 녀성이 올린 소박한 편지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그에게 회답편지와 함께 표창장과 귀중한 선물까지 보내주시였다.

그 녀성이 위대한 수령님께 편지를 올리는 날 평강군에서는 농민집회를 열고 전국에 문맹퇴치를 위한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그 녀성의 문맹퇴치경험을 본받기 위한 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였다.

문맹퇴치운동에는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녀자 할것없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을뿐아니라 글을 아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을 배워주는 사업에 힘을 바쳤다.

농민들은 쉴참에도 밭머리에 앉아 글자를 익혔고 녀성들은 밥을 지으면서도 글자를 외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맹퇴치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주체38(1949)년 3월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동방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첫 나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 건설시기에 벌어진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은 우리 나라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시초로 되였다.

성인학교—학교를 나오지 못한 어른들을 공부시키는 학교.

6. 사회주의정권의 수립과 첫 인민경제계획 수행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세워지고 민주개혁이 실시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되였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을뿐아니라 땅과 공장의 주인으로 되여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였다.

그러나 온갖 착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농촌에는 부농이, 도시에는 개인기업가와 상인이 그대로 있으면서 농민과 로동자들을 계속 착취하였기때문이다.

로동자와 농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하자면 반드시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가야 하였다.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가자면 그것을 맡아할 사회주의정권이 있어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로부터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정권을 세우기 위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개혁의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림시적성격을 띤 인민위원회를 법적으로 공고한 인민위원회 즉 일정한 선거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민주선거를 통하여 법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정권을 세우는것이였다. 다시말하여 이미 세워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선거를 실시하여 사회주의혁명을 맡아할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신 다음 사회주의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민주선거를 진행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35(1946)년 11월에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민주선거가 진행되게 되였다.

인민들은 오랜 세월 착취와 압박만을 받으며 천대와 무권리속에서 살아오다보니 선거에 참가해본 일도 없었고 선거라는 말조차

몰랐다.

선거날자가 선포된 얼마후인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화군의 어느 한 마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당에 펴놓은 멍석우에 농민들과 허물없이 마주 앉으시여 농사형편과 생활형편을 알아보시다가 한 로인에게 선거날이 언제인가고 물으시였다.

로인은 선거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느날에 하는지는 딱히 모르겠다고 대답올리였다.

로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가오는 11월 3일이 선거날이라고 친절히 가르쳐주시며 이번 첫 민주선거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시였다.

중화군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선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모든 학교 학생들과 예술인, 사회단체들이 선거선전사업에 떨쳐나섰다.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 선거선전실이 꾸려지고 선거선전대가 무어져 선전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학생들의 가창대가 아침부터 선거구호를 웨치고 노래를 부르며 거리와 마을을 돌았으며 선거선전대들이 공장과 농촌, 가두에 나가 강연을 하고 해설담화를 하였다.

예술인들은 곳곳에서 노래와 춤, 연극을 가지고 예술공연을 하였다.

담벽과 대문, 전주대에까지 선거에 대한 구호와 선전화, 해설문들이 나붙었다.

온 나라에 정치적열의가 높아진 가운데 인민위원회 위원후보자추천사업이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선거구들에서 진정한 인민의 대표를 인민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추천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원후보자 추천사업이 시작되자 모든 선거구들에서는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과 공장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들의 선거구 위원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편지들을 올리였다.

평안남도 강동군 삼등면의 로동자, 농민들은 편지만으로는 마음을 놓을수 없어 직접 대표들을 평양에 올려보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삼등면대표들을 친히 만나시여 그곳 인민들이 수령님을 만나뵈옵는것을 평생소원으로 여기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곧 찾아가기로 하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뒤로 미루시고 강동군 삼등면에 나가시였다.

이 영광의 날에 이곳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장으로 들어가실 길우에 자기들이 정성들여 짠 무명필을 펴놓았다.

그것은 조국을 찾아주고 보람찬 새 생활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실 길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비단필을 펴놓아드리고싶어하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념원의 표시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이 옷을 해입어야 할 천을 내가 밟아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굳이 사양하고 천을 거둔 다음에야 회의장으로 들어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거자들에게 자신을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고 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인것만큼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부강한 새 조국을 건설하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선거는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선거승리에 기초하여 주체36(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세우시였다.

우리 인민은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우리 나라에 세워진 첫 사회주의정권이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세워짐으로써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중요임무

- 전국적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것이였다.
- 북반부에서 점차 사회주의혁명단계의 과업을 수행하는것이였다.

사회주의혁명—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압박을 완전히 없애고 근로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사회혁명.

첫 인민경제계획 수행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우리 인민을 첫 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인민정권이 세워지고 제반민주개혁 특히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가 실시된 결과 북반부에서는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주체36(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금년에 우리는 경제의 복구건설과 인민생활의 안정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주체36(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은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하고 공업생산을 전해에 비하여 약 2배로 늘이며 알곡생산을 훨씬 높이고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안정시키는것이였다.

그때 형편에서 첫 인민경제계획과제는 매우 어렵고 아름찬 과업이였다.

우리 나라는 아직 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해본 경험도 없었고 기술자와 기능공도 부족하였으며 원료와 자재, 자금도 거의 없었다.

계획이 발표되자 소극분자, 동요분자들은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시비질을 하였으며 반동분자들은 《허황한 계획》이라느니,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느니 하면서 비방중상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전체 인민들을 첫 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먼저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로동계급의 가슴속에 자력갱생의 불씨를 심어주시였다.

주체36(1947)년 7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해제철소를 찾으시였다.

당시 황해제철소에서는 계획과제를 받아놓았으나 그 수행을 위한 통일적인 지휘가 없고 원료와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서

있지 않았다.

로동자들은 공장을 복구해낼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직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제철소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후 이곳 로동자들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하시고 계획수행을 위한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받들고 제철소로동자들은 한결같이 일떠서 돌격운동을 벌려 해탄로복구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련이어 용광로를 살리는데 달라붙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황해제철소에 지펴주신 투쟁의 불길은 온 나라에 타번져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신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년초에 하지 못했던 계획과제들이 수행되고 마침내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에서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도록 농민들을 이끌어주시였다.

온 나라에서 모내기가 시작되던 주체36(1947)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미림벌에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과 함께 모도 내시고 앞선 농사방법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며 농사를 잘 짓도록 그들을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미림벌에서 모를 내신 소식은 농민들을 끝없이 격동시켰으며 그들을 알곡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이끄시면서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우는데 큰 관심을 돌리시였다.

주체36(1947)년 가을 동해안지구를 현지지도하고 돌아오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양덕군 은하리 구지골을 찾으시였다.

이날 은하리 구지골 막바지에 있는 리로인네 귀틀집에 들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인에게 이 지대에 잘되는 담배를 많이 심고 산나물을 뜯고 산열매를 따다 팔면 잘살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밤 로인네 집에서 주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른새벽 산등판에까지 오르시여 방목지와 집짐승우리를 지을 자리를 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마을농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산을 끼고있는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나라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방으로부터 두메산골에 이르기까지 농촌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며 농민들이 주체36(1947)년도 농업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첫 인민경제계획은 넘쳐 수행되게 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일제놈들이 10년이 걸려도 복구할수 없다던 황해제철소의 용광로를 불과 넉달 남짓한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살려내여 쇠물을 뽑았다. 흥남비료공장과 성진제강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공장들이 복구되여 생산을 시작하였다.

농민들은 관개시설들을 복구확장하고 앞선 농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알곡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그처럼 어려웠던 식량문제를 풀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주체37(1948)년 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계속 불러일으키시여 이 인민경제계획도 빛나게 수행하게 하시였다.

7.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당을 창건하고 정권을 세우시는 한편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는 자기의 강력한 민족군대를 창건하여야 합니다.》

나라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자면 반드시 자기의 강력한 민족군대를 가져야 한다.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킬수 있는 민족군대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강력한 민족군대를 가져야 나라와 민족을 튼튼히 지킬수 있으며 새 조국 건설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특히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가 괴뢰군을 대대적으로 늘이면서 조선땅을 통채로 삼키려고 미쳐날뛰고있는 조건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시간을 다투는 매우 절박한 문제였다.

그러나 온 나라가 빈터우에서 맨주먹으로 새 조국을 건설하고 있는 형편에서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는것은 여간만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정규적혁명무력을 지휘할 간부들이 많지 못했고 현대적무기를 만들어낼 공장도 없었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은 큰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할수 없다고 하면서 방해를 놀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나라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로 보시고 해방직후부터 당창건사업, 정권건설사업과 함께 정규적혁명무력을 내오는 사업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3대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다그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 우수한 일군들을 파견하시고 새로운 군사정치간부들을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는 간부가 부족하여 큰 애로를 느끼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책, 강건, 안길, 최현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항일혁명투사들을 정규무력을 건설하는 사업에 파견하시였다.

한편 새로운 군사정치간부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기관들을 내오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1월 평양학원을 내오고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받아 군사정치간부들로 키우도록 하시였다.

평양학원은 군사정치간부들을 종합적으로 키워내는 간부양성기지였다.

평양학원이 창설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군사정치간부들을 키워낼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평양학원 하나만으로는 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군사정치간

부들을 다 키워낼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지휘관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공군지휘관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평양학원에 새로 항공과를 내오고 해군지휘관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수상보안간부학교를 창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지휘관들을 잘 키우도록 하기 위하여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군사교육기관들의 교수교양사업을 지도하시였다.

당시 군사교육기관에 기여든 종파분자들은 《중국식》이요,《일본식》이요 하면서 군사교육에서도 다른 나라들에서 하는것을 그대로 본따려고 하였다.

그자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혁명군대를 내오고 강화발전시킨 경험은 연구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군사리론과 경험을 통채로 옮겨놓으려 하였다.

지어 구령까지도 《차렷》이라고 하지 않고 《기척》이라고 하면서 일본군대에서 쓰던 구령을 그대로 쓰게 하였다.

이러한 때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군사교육은 그 어느 나라 식도 아닌 바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하던대로 조선식으로 하여야 하며 군사규정과 군사훈련교범도 다른 나라의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짧은 기간에 능력있는 지휘관들을 많이 키워내기 위하여 교육년한을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수많은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군사정치간부로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군종, 병종부대들을 내오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 개천, 신의주, 정주, 라남, 청진 등 나라의 여러곳에 보안간부훈련소들을 내오고 거기에서 인민군대의 핵심들을 키워내게 하시였다.

보안간부훈련소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후 현대적정규무력건설을 준비하시면서 조직하시였던 정규군의 핵심부대이다.

주체35(1946)년 8월에 조직되였다.

공군으로 될 비행대와 해군으로 될 수상보안대도 조직하시였다.

그리하여 륙군과 공군, 해군을 내올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종부대들과 함께 통신병, 포병, 공병 등 여러 병종부대들도 조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자체의 힘으로 군대를 무장시키기 위한 국방공업을 창설하시였다.

국방공업을 창설하자면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건설하고 기술자들을 키워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 평천리에 첫 병기공장을 꾸리게 하시고 유능한 기술자들을 선발하여 이 공장의 기술집단을 꾸려주시였다. 또한 군수품생산부문에 현대적인 기계들과 원료,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일떠선 평천병기공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관단총을 만들어냈다.

시험적으로 만든 기관단총은 마치로 두드리고 줄칼로 쓸어서 만든것이여서 보기에도 투박하고 기술적으로도 결함이 많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만든 첫 기관단총이라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친히 기관실덮개를 여시고 기름묻은 격발기의 분해결합도 해보시면서 총의 부족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느날 이 공장을 또다시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쳐만든 기관단총으로 시험사격을 해보시고 총이 아주 좋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밝혀주시고 나라의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욱 분발할것을 호소하시였다.

조선인민군의 성격과 사명

조선인민군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로 조직되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인민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조선인민군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 공장 로동자들은 여러가지 무기를 더 좋게 만들어낼 열의로 힘찬 투쟁을 벌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주체37(1948)년 2월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력사적인 조선인민군열병식을 마련하시고 조선인민군의 조직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이 조직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지켜낼수 있는 힘있는 민족으로 되였다.

군종—하늘과 땅, 바다에서 독립적으로 작전과 전투를 할수 있는 국가무력의 구성부분. 즉 륙군, 해군, 공군.

병종—전투임무와 장비에 따라 가르는 부대들의 종류.(보병, 포병, 땅크병, 공병, 통신병 등)

8.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는 우리 당이 창건된 후 처음으로 열린 대회였다.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당대회가 열린 주체37(1948)년 3월까지의 기간에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 기간에 우리 당은 인민정권을 세우고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우리 인민에게 행복한 새 생활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리고 첫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여 파괴된 공장들을 복구하였을뿐아니라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였다.

이 기간에 우리 당은 당원수가 크게 늘어나고 모든 공장과 농촌에 당세포가 빠짐없이 조직되여 혁명의 참모부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 당앞에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민주개혁의 성과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것과

함께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을 짓부시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였다.

당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단독선거를 실시하여 남조선괴뢰정부를 꾸며낼데 대한 비법적인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조선인민의 대표도 참가시키지 않고 유엔총회에서 제놈들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결정한것이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을 짓부시지 않는다면 나라와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기 위하여 당 제2차대회를 소집할것을 발기하시였다.

그리고 대회에 앞서 각급 당단체들에서 결산총회를 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산총회가 우리 당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시려고 몸소 여러곳에 나가시여 각급 당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강계군 시중면의 한 농촌 당세포사업을 지도하시였다. 뒤이어 산골에 있는 당세포사업을 보아야 당조직들의 실태를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며 읍에서 수십리나 떨어져있는 개천군의 한 당세포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포안에 있는 당원들의 당생활정형과 세포사업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며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그러신 다음 순천군당대표회의를 지도하시면서 당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다.

결과 각급 당단체들의 결산총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주체37(1948)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와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창립이후 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우리 당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우선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다시금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과 비밀투표방법에 의하여 최고립법기관을 전 조선적으로 선거할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선거된 인민의 최고립법기관은 민주주의적헌법을 채택하고 우리 인민을 민족적륭성과 행복의 길로 인도할 진정한 민주주의인민정부를 구성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인민자신이 이러한 방법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것은 오직 외국군대가 철거하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미제침략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되찾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것이다.

그런것만큼 조국통일을 맡아할 사람은 다름아닌 우리 인민자신이며 조국통일은 반드시 조선인민자신이 해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전 조선적으로 선거를 하여 진정한 인민의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당면하게는 북과 남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련석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다음으로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다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반부혁명기지를 튼튼히 하자면 당조직들이 경제건설을 잘 이끌고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다음으로 당을 질적으로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당 제2차대회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고 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를 강화하며 당을 질적으로 강화하는데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유엔—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1945년에 조직된 국제련합기구.

혁명기지—혁명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토대로 되는 지역.

9. 4월남북련석회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제2차대회이후 미제의 단독선거놀음을 짓부시기 위하여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련석회의를 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미제에 의하여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 조건에서 사상과 주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나라의 통일문제를 토의한다는것은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할수 없는 일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한다면 능히 전민족이 단합될수 있다고 보시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주체36(1947)년 10월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련석회의를 열것을 발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를 발기하신 후 그 준비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대표들을 련석회의에 참가시키려고 일군들을 직접 파견하시여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과 통일전선정책을 해설하여주게 하시였다. 그리고 자신의 존함이 모셔져있는 회의초청장도 보내시였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속에는 죄많은 지난날이 마음에 걸려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는 김구와 같은 완고한 민족주의자들도 있었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지난날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손잡고 함께 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와 넓은 도량에 무한히 감동된 남조선의 각계각층 대표들의 마음은 평양으로 쏠리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적들은 평양으로 쏠리는 남조선대표들의 마음을 돌려세워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38°선에는 테로단이 매복되여있다느니, 북반부에 들어갔다가는 붙잡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느니 하면서 대표들이 평양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지어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미제의 고용간첩으로서 남조선로동당에 들어박혔던 박헌영도당은 겉으로는 회의소집을 지지하는척 하면서 우리와 손잡고

나갈수 있는 사람들은 따돌리고 제놈들의 비위에 맞는 몇몇 졸개들만 회의에 참가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발악적책동도 북으로 향한 남조선대표들의 마음을 돌려세울수는 없었다.

그들은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과 위험을 무릅쓰고 38° 선을 넘어 평양에 도착하였다.

사선을 헤치고 온 대표들가운데는 경상도의 한끝에서 달려온 칠순의 백발로인도 있었고 10여년의 감옥살이에서 병신이 되여 남의 등에 업혀온 사람도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38° 선에 보내여 남조선대표들을 따뜻이 맞이하게 하시고 그들의 숙식조건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일부 남조선대표들이 아직 도착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아시고는 한명의 대표라도 더 참가시키기 위하여 회의시작날자를 예정일보다 5일간이나 늦추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의준비가 갖추어지자 주체37(1948)년 4월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여시였다.

회의에는 북과 남의 56개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뵈옵는 남조선대표들의 가슴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들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많은 김월송로인에게 개회사를 하게 하는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첫날회의를 진행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 김구일행이 38° 선을 넘어섰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가 회의에 참가할수 있게 하려고 회의를 하루 미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회의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대책을 밝힌 정치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남조선단독선거를 짓부시고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워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쳐 반미구국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을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망국적 단독선거를 단호히 거부하여야 합니다. 이 거족적투쟁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파와 종교의 소속, 정치적견해를 가리지 말고 반드시 단결하여야 하겠습니다.

단결만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조국이 영원히 갈라질수 있는 이 엄중한 때에 우리가 단결하여 미제를 몰아내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민족과 후손들에게 씻을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는 회의참가자들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그들은 비록 사상과 주장은 서로 같지 않았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만이 민족의 분렬을 막고 나라를 구원할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서 보고를 열렬히 지지찬동하였다.

남북련석회의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서로 손잡고 단결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조선인민은 나라의 통일을 자신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수 있는 슬기로운 인민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

남북련석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북과 남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조국통일문제를 토의한 력사적인 첫 대민족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후 회의성과를 튼튼히 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석회의가 끝난 다음 북남조선 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를 여시였다.

협의회에서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한 당면문제들을 밝힌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대동강의 쑥섬에서 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지도자들과의 협의회를 마련하시였다.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데 대하여 완전

한 합의를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련석회의에 참가한 남조선 대표들을 한없이 넓은 품에 안아 민족자주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다.

련석회의에 참가한 대표들가운데는 지난날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지었고 해방후에는 갈길을 몰라 헤매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된 길을 찾게 되였다.

자기를 민족의 《지도자》로 내세우던 김구도 초청장과 련락원까지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에 감동되여 위험을 무릅쓰고 38° 선을 넘어서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구의 소행을 애국적인 행동으로 높이 평가하시고 그를 회의주석단에 앉혀주시였으며 연설을 할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주시였다.

또한 앓는 몸으로 북반부에 들어온 김규식에게는 의사와 간호원을 붙여 치료하게 해주시고 몸소 병문안까지 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련석회의에서 연설할 기회를 못 가진 그에게 련석회의가 끝난 뒤에 마련된 연회에서 첫 연설을 하게 하는 뜨거운 은정을 베푸시였다.

한 대표에게는 자기도 잊고있던 생일 60돐이 되는 날에 몸소 생일상을 차려주고 술까지 부어주시였으며 귀중한 선물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넓은 포옹력과 고매한 풍모는 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모든 대표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그들은 한결같이 **김일성**장군님은 과연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이시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다.

남조선의 한 대표는 위대한 수령님앞에서 자기들은 영명하신 장군님을 따르는 마음 변함없이 간직하오니 믿어주기 바란다고 말씀올리였다.

일생을 두고 민족주의를 고집해온 김구까지도 《조선을 바로잡을 영웅은 오직 **김일성**장군님밖에 안계신다.》, 《나는 **김일성**장군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소.》라고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4월남북련석회의를 계기로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중심으로 더욱 튼튼히 뭉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은 남조선에서의 망국적단독선거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공화국 창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가 있은 후 남조선에서 미제가 벌려놓은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전체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북반부인민들은 평양을 비롯한 온 나라 곳곳에서 남조선단독선거를 반대하는 군중집회와 시위를 련이어 벌리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였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남조선인민들은 적들의 모진 탄압을 박차며 미제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려나갔다.

로동자들은 파업위원회를 뭇고 서울을 비롯한 도시들에서 총파업을 일으켰다.

제주도인민들은 무장을 들고 적들과 맞서 싸웠다.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일으키고 농민들은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도시의 상인들은 일제히 상점문을 닫았다.

《선거》날에는 곳곳에서 선거장을 들부시고 경찰서들을 습격파괴하였으며 악질적인 립후보자들과 반동두목놈들을 처단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드센 투쟁에 의하여 남조선단독선거는 사실상 파탄되고말았다.

그러나 교활한 미제는 온갖 사기와 협잡으로 《선거》결과를 날조하여 리승만을 우두머리로 하는 반동적인 괴뢰정권을 꾸며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질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되였다.

변화된 정세는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 조선적인 중앙정부를 하루빨리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7(1948)년 6월 북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를 여시고 지체없이 전 조선

정부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우리는 단독정부를 세울것이 아니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써 전 조선정부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은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통일적중앙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통일적중앙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부터 작성해오던 공화국헌법초안을 완성하도록 하시였다.

헌법초안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받은 일군들은 지혜를 모아 헌법초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나라의 헌법을 본딴것이 적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성된 헌법초안을 보아주시고 우리 식대로 만들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수정된 헌법초안을 몇번씩 다시 보시며 완성하시였다.

헌법초안이 완성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전인민적토의에 붙이도록 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헌법초안을 적극 지지하였으나 종파분자들은 헌법에 밝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이름에 대하여 조선이라는 말아래 무슨 글자가 아홉자씩이나 달렸는가, 국호가 너무 길다느니, 외국에서는 나라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다느니 하며 잡소리를 줴쳤다.

그러면서 나라이름에서 《인민》이나 《민주주의》를 빼자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폭로하시면서 《인민》이라는 말을 빼자고 하는것은 남조선의 반동들이 주장하는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뿐아니라 그것을 따르려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비판하시였다.

또한 《민주주의》를 빼자는것은 조국이 북과 남으로 갈라진 조건에서 혁명을 수행한다는것을 생각지 않는데서 나온 매우 그릇된 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라의 이름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장과 국기도안도 그릇된 주장들을

짓부시고 우리 식으로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때 일부 사람들은《조선적인 특성》을 살린다고 하면서 국장에는 옛날 왕이 있던 경복궁을 그려넣고 국기에는 락후한 농업국가를 상징하는 보습을 그려넣자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자들의 반동적인 주장들에 강한 타격을 안기시였다.

그러시고는 국장에 전기화가 실현된 부강하고 문명한 우리 나라의 발전전망을 보여주는 수력발전소의 웅장한 모습과 찬란한 승리의 상징인 오각별을 그려넣게 하시였다.

국기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혁명선렬들의 붉은 피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혁명력량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기본바탕으로 하도록 하시였다.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지고있는 하나의 민족이라는것을 상징하는 흰색은 좀 가늘면서도 선명하게 하며 조선인민의 기백과 자주권을 상징하는 푸른색도 역시 가늘게 하고 흰 동그라미안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붉은 오각별을 그려넣게 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국기와 국장은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것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준비밑에 전체 인민을 북남총선거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거에 앞서 대의원후보자추천사업을 잘 하도록 하시였다.

두해전 첫 민주선거때 위대한 수령님을 첫 인민의 대표로 추천하였던 평안남도 강동군 인민들은 변함없는 한마음으로 수령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전국각지의 선거구들에서도 앞을 다투어 위대한 수령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하고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능력있는 일군들을 후보자로 내세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북남총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이끄시였다.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북반부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

되였다.

그러나 남반부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탄압으로 하여 비밀리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먼저 인민대표들을 선출하였다. 선출된 인민대표들은 북반부에 넘어와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선거하였다.

주체37(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북남총선거가 끝나자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를 여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국가수반으로 높이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9월 9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항일혁명투쟁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정권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에 따라 세워진 우리 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의 인민으로 되였으며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설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조선혁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헌법—정치, 군사, 경제, 문화분야의 모든 원칙들과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 등을 밝힌 국가의 기본법.

최고인민회의—인민의 대표인 대의원들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 또는 그가 여는 회의.

공화국의 위력 강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을 창건하신 후 그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주체38(1949)년 1월 순천군 덕산리 원동마을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곳 당세포의 회의록을 보아주시고 세포총회준비를 잘할데 대해서와 군중과의 사업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이어 이웃에 자리잡은 삼화리당세포를 찾으시여서는 당원들의 학습토론을 지도해주시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아야 앞을 내다볼수 있다고 하시며 학습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아래 당조직들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면서 당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정권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공화국이 창건된 다음해 3월 지방주권기관선거를 진행하여 당과 수령께 충실하고 능력있는 일군들로 지방정권기관을 꾸리게 하시였다.

그리고 정권기관 일군들이 맡겨진 일을 잘할수 있게 사업수준과 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2개년인민경제계획〔주체38(1949)－주체39(1950)〕을 세우고 그것을 앞당겨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을 2개년계획수행에로 불러일으키시는 한편 여러 공장, 기업소와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해도에 있는 홀동광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부들을 만나기 위하여 갱안으로 들어가려고 작업복을 갈아입으시였다. 당황한 일군들은 아직 정리도 되지 않은 그 험한 곳에 어떻게 들어가시겠는가고 하며 앞을 막아나섰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부들이 일하는 막장에 들어가지 않을바에야 무엇하러 광산에 왔겠는가고 하시며 석수가 떨어지고 바닥이 울퉁불퉁한데다가 물까지 질벅한 좁은 갱안을 간데라불로 비쳐가시면서 근 2㎞를 걸어 막장에 이르시였다.

> **2개년계획의 중심과업**
> **(1949-1950)**
>
> 아직 복구하지 못한 공장들의 복구를 끝내고 새 공장들을 건설하여 공업생산에서 해방전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며 자립경제의 토대를 닦는것이다.

천길지하막장에서 뜻밖에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게 된 광부들은 인사의 말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눈굽을 적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광부들의 돌가루 묻은 손을 하나하나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그들의 가정생활형편과 쇠돌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리고 굴진을 철저히 앞세워 쇠돌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끊임없는 현지지도와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채취공업부문에서 생산이 정상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푸시기 위하여 주체38(1949)년부터 평양에 현대적인 큰 방직공장을 건설하도록 하시고 몸소 그 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방직공장건설이 한창 진행되고있을 때 강원도 법동군의 한 산골마을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농사형편과 살림살이형편을 알아보시다가 나라에서 풀어주어야 할것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하시였다.

이때 한 로인이 그전에는 헐벗어도 배나 곯지 않고 자식을 공부시키는것이 소원이였는데 경애하는 수령님의 은덕으로 제땅에서 농사를 지어 쌀독을 가득 채우게 되고 이 심심산골에도 학교가 생겨 소원이 다 풀리고보니 나들이옷과 이부자리도 여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올리였다.

사실 해방전 우리 나라에서 한해에 생산되는 천은 인구 한사람당 겨우 14cm밖에 차례지지 않는 적은 량이였었다.

로인의 말을 심중하게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천문제를 꼭 풀어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평양에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일군들을 부르시여 우리가 나라를 찾고 어려웠던 식량문제를 풀어 인민들이 배고픈 설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고 하여 마음을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법동군 로인의 말을 전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 평양방직공장건설을 잘하여 천을 많이 생산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복구확장되여 돌아갔으며 농촌에서는 련이어 풍작이 이룩되였다.

그리하여 공업부문에서는 2개년계획이 주체39(1950)년 상반년까지 기본적으로 완수되였으며 농업생산량은 해방전의 최고수준을 넘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군사적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공화국이 창건된 후 미제는 남조선에서 괴뢰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수많은 무기들을 끌어들였으며 38° 선에서 매일과 같이 총포탄을 쏘아대며 전쟁을 일으키려고 날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에서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한편 그때까지 없었던 땅크부대를 비롯하여 여러 부대들을 새로 조직하시고 몸소 현지에 나가 훈련을 지도해주시였다.

어느날 새로 조직된 땅크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 나라에서 땅크기술을 배우는데 몇년씩 걸리는것을 우리 군인들은 불과 석달동안에 배워 땅크를 마음대로 다루는것을 보시고 모두가 영웅이라고 하며 축하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기공장들을 잘 꾸리고 무기생산을 늘이게 하시였다.

무기를 만드는데서도 조선사람의 몸에 맞게 만들며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는 박격포와 같은 무기를 많이 만들게 하시였다.

한편 공장, 기업소, 농촌들에 인민자위대들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힘은 짧은 기간에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제4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

〔주체39(1950). 6－주체42(1953). 7〕

1. 모든것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

오래전부터 침략전쟁을 준비하여온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놈들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였다.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킨것은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뒤집어엎고 전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아시아침략의 발판으로 만들며 나아가서는 세계를 먹으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적들은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으며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 될것이라고 떠벌이면서 단숨에 공화국북반부를 타고앉으려고 하였다.

이런 망상밑에 적들은 38° 선의 전 지역에서 공격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무력침공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적들에게 무력침공을 당장 중지할것을 엄숙히 경고하도록 하시였다.

그러나 적들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불길을 더욱 넓혀나갔다.

우리 인민은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적들과 끝까지 싸워 자주독립국가의 인민으로 남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험에 처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적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내각비상회의를 여시고 적들의 침공을 짓부시고 즉시 반공격으로 넘어갈데 대한 립장을 밝히시였다.

이날 회의참가자들은 적들이 수많은 병력으로 쳐들어오고있는

때여서 마음을 조이고있었다.

주석단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환하신 얼굴로 회의참가자들을 둘러보시며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승냥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비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밀려드는 대적을 앞에 두고도 여느때나 다름없이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뵙는 회의참가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초조감이 가셔지고 승리의 신심이 솟구쳐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우리가 만일 싸우기를 주저한다면 우리 인민은 또다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는 적들의 침공을 막고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가 놈들을 쳐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전을 개시하여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은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가 침략자들을 철저히 쳐부시는것이였다.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물리치고 반공격으로 곧 넘어가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지난 시기 전쟁력사를 보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적의 불의의 공격을 받으면 혼란에 빠져 자기 힘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 않으면 첫 타격에서 입은 손실과 혼란을 수습할 때까지 부득불 퇴각하면서 시간을 얻어 전선을 수습하고 힘을 마련한 다음에야 비로소 반공격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불의에 쳐들어왔지만 탁월한 전략전술로 적들의 공격을 짓부시고 즉시 반공격으로 넘어가게 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38° 선 이북에 침입한 적들을 물리치고 즉시 반공격으로 넘어갔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렵고 준엄한 전쟁이였다.

당시 우리 나라는 해방된지 다섯해, 공화국과 정규무력이 건설된지는 겨우 두해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와 맞선 미제는 100여년간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도 져본적이 없다고 뽐내는 침략자였다. 얼핏 보기에는 우리와 미제와의 전쟁은 너무나 짝이 기운 전쟁이였다.

세상사람들은 조선이 과연 어떻게 미제와 맞서 싸우겠는가 하고 우려하며 우리 나라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강대성》에 대하여서는 생각밖에 두시였다.

오직 싸움을 걸어온 놈들을 철저히 쓸어눕혀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줄 단호한 결심뿐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곧 나라의 모든 힘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난 다음날인 6월 26일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전쟁승리에로 불러일으키는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우리 인민이 진행하는 전쟁은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침략자들을 쳐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전쟁승리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으시고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재빨리 전시체제로 바꾸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보내시여 전시에 맞게 당을 더욱 강화하고 원쑤들과 싸울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위원회를 내오시고 군사위원회가 나라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게 하시였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에 전시상태를 선포하시고 전시동원령을 내리여 나라의 전 지역에 전시동원체계를 세우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전시에 맞게 개편되고 일반제품을 생산하던 공장들이 군수품을 생산하게 되였다. 또한 안전한 산골과 굴안에 공장설비들이 옮겨졌다.

전쟁이 일어난지 불과 몇주일사이에 수십만에 달하는 청장년들이 전선으로 나갈것을 탄원하였다.

평양, 송림, 함흥, 청진을 비롯한 공업지대 로동자들은 로동자련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선으로 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전쟁이 일어난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전시체제가 철저히 세워지고 나라의 모든 힘을 전쟁승리에로 총동원할수 있게 되였다.

전시동원령—전쟁시기에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전쟁승리에로 총동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내리는 명령.

군사위원회—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나라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기 위한 국가 및 군사의 최고기관.

2. 남반부 넓은 지역의 해방

서울해방작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부대들은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짓부셔버리고 즉시 반공격에로 넘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공격에로 넘어간 인민군부대들이 공격속도를 높여 남반부를 하루빨리 해방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쟁승리를 위한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가 조선전선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기 전에 신속한 기동과 련속적인 타격으로 적들을 철저히 소탕하고 공화국남반부를 완전히 해방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쟁승리를 위한 전략적방침은 미제침략자들이 대병력을 끌어들이기 전에 적들을 련속타격하여 철저히 소멸하고 남반부를 완전히 해방하는것이였다.

당시 미제가 자기 나라에서 대병력을 끌어오자면 적어도 한달 이상의 날자가 걸려야 하였다.

따라서 적들을 련속타격하면서 반공격속도를 높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미제의 대병력이 들어오기 전에 남반부 전 지역을 해방할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방침을 관철하자면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적들을 련속 족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적들을 앞으로 밀고만 나가지 말고 철저히 포위소멸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반공격에로 넘어간 인민군부대들은 적들을 련속 족치면서 남으로 진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반부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기 위하여 주타격방향을 서울로 정하시였다.

서울을 해방하는것은 남반부 전 지역을 해방하는데서 중요한 고리였다.

서울은 적의 소굴로서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서울에 집결된 적을 먼저 소멸하여야 놈들의 주력집단을 허물어버리고 공격성과를 계속 확대하여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적의 주력집단을 서울지역에 몰아넣고 소멸하기 위한 작전을 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작전에 가장 우수한 부대들을 참가시키도록 하시고 포와 땅크, 비행기들을 집중시키시였다.

그리고 공격속도를 높여 적들을 서울에 몰아넣고 포위소멸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인민군부대들은 드세찬 공격을 들이대여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를 해방하였다.

의정부를 빼앗긴 적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을 지켜보려고 예비부대를 비롯한 수많은 병력을 여기에 끌어들이였다.

그리고 인민군대의 진격을 멈추어보려고 황급히 한강다리를 폭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한강다리가 메여지게 건너가던 적들의 군대와 반동놈들은 한강물에 빠져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한강이북 서울지역에 있던 대부분의 적들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되였다.

서울시내는 패잔병들과 부상병들까지 밀려들어 말그대로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인민군부대들은 발악하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족치면서 포위망을 점점 좁혀들어갔고 서울시내에 돌입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서울지역에 몰려든 적들을 완전소탕하고 서울을 해방하기 위한 전투를 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공격개시시간을 6월 28일 새벽 5시로 정하시였다.

이 시간이면 인민군대의 공격이 무서워 밤새도록 안절부절 못하던 놈들이 피곤에 몰려 긴장성을 늦추는 반면에 인민군대는 적들의 움직임과 타격대상을 정확히 가려볼수 있었다.

특히 날이 밝은 다음 전투를 벌려야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적들에 손상을 주지 않을수 있었다.

새벽 5시, 드디여 인민군부대들은 서울에 대한 총공격에로 넘어갔다.

드센 포사격에 뒤이어 인민군땅크들이 적들을 짓뭉개며 서울시내로 들어가면서 보병들의 진격로를 열어제꼈다.

제일 먼저 서울시내에 돌입한 땅크병들은 보병부대와 협동하여 적들을 소멸하고 괴뢰《중앙청》꼭대기에 오각별 찬란한 공화국기발을 휘날렸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다른 땅크병들은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를 들이치고 그곳에 갇혀있던 많은 애국자들을 구원하였다.

땅크부대의 전투성과를 리용하여 보병부대들도 적을 정면과 좌우량쪽으로 타격하면서 일시에 시내에 돌입하였다.

인민군부대들은 치렬한 시가전을 벌려 서울시안의 적들을 소탕하고 서울을 해방하였다.

서울시는 환희와 감격으로 끓어번지였다.

젊은이, 늙은이, 아이들모두가 떨쳐나와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며 인민군대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서울시를 완전히 해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시해방에 즈음하여 전국의 인민들과 인민군대와 서울시

민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시였다.

서울해방작전의 빛나는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의 위대성과 인민군대의 위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전쟁개시 3일만에 서울을 빼앗긴 적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으며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다달았다.

대전해방전투

괴뢰군의 기본력량이 녹아나고 서울까지 빼앗기게 되자 급해맞은 미제는 일본에 있던 제놈들의 군대를 조선전선에 내몰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꿰뚫어보시고 그에 맞게 무장력과 전선지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다.

그리하여 주체39(1950)년 7월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와 전선사령부가 조직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때부터 최고사령관으로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전선에 기여든 미국놈들에게 된매를 안길것을 인민군부대들에 명령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공격의 앞장에서 내달리던 조선인민군 구분대들은 수원남쪽 오산계선에서 미제침략군 제24보병사단의 선발대와 맞다들게 되였다.

인민군군인들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를 보자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안고 놈들을 사정없이 족쳐 완전히 소멸하였다.

한편 우리의 어뢰정들은 주문진앞바다에서 《바다에 떠다니는 섬》이라고 자랑하던 미제의 중순양함《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파함으로써 세계해전력사에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얻어맞고 궁지에 빠진 미제는 금강과 소백산줄기의 험한 지대에 의거하여 대전일대에서 인민군대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하였다.

적들은 금강남쪽기슭에 든든한 방어진을 꾸려놓고 대전일대에 수많은 병력을 집결시켰다.

그리고는 《불퇴의 선》이니, 《최종방어선》이니 하면서 인민군대의 진격을 얼마든지 막아낼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적들이 그처럼 떠들어대는 이 방어선을 허물지 않고서는 대전을 해방할수 없었고 미제침략군주력을 포위소멸할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전해방작전을 몸소 조직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전의 적을 포위소멸할것을 계획하고 7월 중순 몸소 포연속을 헤치시며 서울에 있는 전선사령부를 찾아 떠나시였다.

림진강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폭격으로 다리가 끊어져 더는 나갈수 없게 되자 승용차로 철다리를 건너가시였다.

전선사령부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적의 금강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공주정면에서 금강을 건느는것처럼 거짓도하작전을 벌려 그쪽으로 적들의 력량을 집중시킨 다음 놈들의 방어진이 약한 좌우량쪽에서 재빨리 강을 건너 적들을 족치는것이였다.

인민군부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작전을 벌려 적들을 소멸하고 공주를 해방하였다.

적들이 그처럼 든든한 방어진을 꾸리고《불퇴의 선》이라고 떠들던 금강방어선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말았다.

미제침략자들은 금강방어선이 허물어지자 이번에는 모든 병력을 대전방어에로 돌리고 대전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시도를 꿰뚫어보시고 대전을 완전히 포위하고 적들을 소멸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계획에 따라 대평리방향에서 금강을 도하한 주타격방향의 부대는 공격속도를 높여 대전북쪽으로 진출하였다.

그런데 대전동남쪽으로 진출하게 된 부대가 적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닻쳐 전진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대전포위에서 동남쪽이 비게 되였다.

인민군지휘관들은 대전동남쪽으로 나오게 된 부대만을 기다리고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론산일대에 진출한 부대를 대전동남쪽으로 보내게 하시였다.

명령을 받은 론산계선에 나가있던 인민군용사들은 하루밤사이

에 100여리를 강행군하여 대전동남쪽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대전시는 완전히 포위되였다. 대전시안에 몰켜든 적들은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였다.

인민군부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7월 20일 새벽 대전시내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시안에 먼저 들어간 인민군땅크들은 적들의 주요대상들을 짓부시고 적들을 마구 깔아뭉개였다.

사방에서 대전시안으로 쳐들어간 인민군부대들은 성난 사자마냥 적들을 무자비하게 족치고 또 족치였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적들은 동남쪽으로 도망치려 하였으나 그곳에 매복해있던 인민군대에 의하여 무리로 녹아났다.

미제침략군 제24사단 사단장놈은 급한 나머지 병사의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려 하였으나 얼마 못 가서 인민군전사에게 잡히고말았다.

패전을 모르는 《상승사단》이라고 뽐내던 미제침략군 제24사단을 포함한 수많은 적들이 멸살되고 대전은 완전히 해방되였다.

대전해방작전은 여러가지 전투형식을 배합하여 적의 대집단을 단번에 족쳐버린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대전해방작전의 승리는 온 세계에 미제는 결코 무적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었으며 남반부 넓은 지역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전해방작전에 이어 인민군부대들이 공격속도를 더욱 높이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때 인민군대의 일부 지휘관들은 적비행기들의 폭격이 심하다는것을 구실로 포를 적극 리용하지 않고 보병으로 큰 도로를 따라 적을 정면으로만 밀고나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평양으로부터 1 000여리나 떨어져있는 충주남쪽 수안보에 자리잡은 전선사령부를 찾으시였다.

8월초 수안보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휘관, 정치일군회의를 열고 전투지휘에서 나타난 심중한 결함들을 비판하시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싸움방법을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산길과 산릉선을 타고 에돌아 적을 포위소멸하고 야간

전을 대담하게 벌리며 포를 적극 리용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뛰여난 전법과 전선지도에 끝없이 고무된 인민군전사들은 적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였다.

그리하여 적들이 발악적으로 막아나서는 락동강방어선을 허물고 놈들을 조선동남쪽의 좁은 지역에 몰아넣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부대들은 전쟁이 일어난지 불과 한달반사이에 남반부지역의 90%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선사령부—전선련합부대들의 군사작전을 보다 신속히 지휘하기 위하여 조직한 군사기관.

해방된 남반부지역에서의 민주개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한편 해방된 남반부인민들에게 참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해방된 남반부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주개혁들을 실시하였으며 리승만매국역도의 경찰통치기구를 소탕하고 인민정권기관들을 복구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해방된 남반부지역에서 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해방된 남반부지역에서 민주개혁을 실시하는것은 남반부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참된 새 생활을 마련해줄뿐아니라 전선이 계속 남쪽으로 멀리 옮겨가는 조건에서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반부지역이 해방되는데 따라 지체없이 당조직과 인민정권기관들을 내오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여러가지 민주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국가의 일군들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수천명을 정치공작원으로 파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을 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해방된 남반부지역을 찾으시여 민주개혁진행정형을 알아보시고 구체적인 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지역들에서는 짧은 기간에 당조직과 사회단체들이 무어지고 인민위원회들이 서게 되였다.

또한 민주개혁들도 성과적으로 실시되였다.

결과 해방지역의 많은 땅이 무상으로 몰수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였다. 련이어 로동법령과 남녀평등권법령 등 여러가지 민주주의적시책들도 실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남조선인민들은 비로소 참된 삶의 보람을 찾고 새 생활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7월에 이어 8월 중순 또다시 서울에 나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이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돌리게 하시였다.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식량과 김장용남새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삼복더위가 한창인 때에 벌써 서울시민들의 겨울나이 땔나무를 미리 해결해주기 위한 조직사업도 몸소 해주시였다.

로력사정이 그처럼 긴장한 전시조건에서도 서울시민들의 땔나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선에 나갈 많은 장정로력을 강원도 설악산에 파견하시였다.

그리고 림업국의 한 일군에게 최고사령부의 신임장까지 내주어 이 사업을 책임지고 끝까지 집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해방된 남반부지역 인민들의 생활은 빨리 안정되여갔다.

남반부인민들은 자기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시고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였다.

남조선의 수많은 청년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인민군대에 입대하였으며 인민들은 전선원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적비행기의 야수적인 폭격속에서도 파괴된 다리와 도로를 복구하고 탄약과 식량을 날랐으며 진격하는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도와나섰다.

인민군대는 남반부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서 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하면서 남으로 남으로 진격하였다.

3. 새로운 반공격

새로운 반공격 준비

주체39(1950)년 9월 중순에 이르러 전선형편은 어렵게 되였다.

전쟁을 일으킨 후 계속 얻어맞고 우리 나라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된 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의 침략목적을 이루어보려고 발악하였다.

미제는 태평양을 비롯한 세계 여러곳에 널어놓았던 제놈들의 군대뿐아니라 15개에 달하는 추종국가군대와 일본군국주의무력까지 긁어모아 수십만의 대병력을 조선전선에 끌어들이였다.

미제는 무력을 총동원하여 락동강계선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한편 1 000여대의 비행기, 수백척의 군함과 5만여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인천앞바다로 쳐들어왔다.

인민군용사들은 조금도 굴함없이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다.

인천앞바다를 지키던 월미도의 해안포중대 전투원들은 수백배나 되는 적들과 결사전을 벌려 놈들의 상륙작전을 3일간이나 저지시켰다.

인천과 서울을 지키던 인민군전투원들은 희생적으로 싸워 이곳을 14일간이나 지켜냈다.

그러나 적들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무력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전선형편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성된 난관을 이겨내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은 적의 진공속도를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쟁취하여 계획적인 후퇴를 조직하며 새로운 반공격준비를 다그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방침관철에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주체39(1950)년 10월 11일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국이 처한 정세는 비록 엄중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은 한치의 땅도 피로써 지켜 싸우며 후방인민들은 생산을 강화하여 탄약과 식량을 비롯한 물자들을 전선에 보내주며 부득이 후퇴할 때에는 적에게 한대의 기관차, 한알의 쌀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일시적인 전략적후퇴를 성과적으로 하며 적후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중부일대에서 완강한 방어전을 벌려 적들의 진공속도를 지연시켜 락동강계선에 나갔던 인민군부대들이 후퇴를 원만히 하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후퇴하는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일시적인 전략적후퇴를 성과적으로 하였다.

한편 적후에 남은 인민들은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짓부시며 용감히 싸웠다.

미제침략자들은 강점지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놈들은 신천군에서만도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한 3만 5 000여명을 학살하였다.

땅과 공장을 빼앗긴 지주, 자본가놈들과 반동놈들도 애국자들

과 인민들을 학살하는데 발벗고나섰다.

적들의 야수적인 만행은 미제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계급적원쑤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인민과 청소년학생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유격투쟁을 힘있게 벌려 놈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눕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시적인 전략적후퇴를 보장하면서 새로운 반공격준비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시였다.

새로운 반공격을 준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강력한 반공격력량을 마련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퇴하여 들어온 전투경험이 풍부한 부대들을 기둥으로 하고 여기에 새로 무은 부대들을 편입시켜 짧은 기간에 수많은 부대들을 조직하고 현대적무기로 무장시키시였다.

이와 함께 반공격에 필요한 공군부대들과 포병부대, 땅크부대들을 더욱 강화하시였다.

새로운 반공격부대들을 조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짧은 기간에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여 부대들의 전투력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형성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2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후 11월 어느날 적후천리길을 헤치고 최고사령부를 찾아온 최현군단장에게 제2전선부대들의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련합부대가 우리 나라 중부지대를 차지하고 적이 기본전선에 병력과 전투물자를 보내지 못하게 적 후방을 드세게 타격하는것이였다.

제 2 전선

적의 군사적힘을 분산약화시켜 전쟁의 승리를 촉진할 목적으로 이미 싸우고있는 기본전선밖에 다른 지역이나 적의 후방에 펴는 새로운 전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가을 적배후에 정규무력의 대집단과 인민유격대들로써 새로운 제2전선을 펴시였다.

이것은 전쟁력사에 없는 새로운것이였다.

또한 새로운 반공격이 시작되면 기본전선부대들의 공격에 합세

하여 도망치는 적들의 길목을 막고 놈들을 포위섬멸하는것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떠나가는 군단장에게 자신의 털외투까지 안겨주시며 전사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적후에 있는 전사들이 여름군복을 그대로 입고있다는것을 아시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겨울솜옷을 보내여 모두 갈아입히도록 하는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어려운 일시적인 전략적후퇴기간에 새로운 반공격을 위한 준비가 빈틈없이 갖추어지게 되였다.

새로운 반공격에로 이행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반공격준비가 갖추어지자 적의 공격을 짓부시고 총 반공격에로 넘어가 적들을 38° 선 이남으로 몰아내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준비를 완전히 갖출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방침에 따라 적의 공격을 짓부시기 위한 강력한 반타격전을 조직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서부에서의 강력한 반타격전을 몸소 조직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서부로 공격해오는 적들을 운산, 희천일대에서 포위섬멸하기 위하여 주체39(1950)년 10월 하순 운산군으로 향하시였다.

포연속을 헤치며 이곳 인민군부대 지휘소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피로를 푸실 사이도 없이 초불밑에 지도를 펴놓고 작전계획을 세우시였다.

그리고 총참모부 일군들과 지휘관들에게 운산지구의 적을 포위섬멸할데 대한 구체적인 임무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빈틈없는 작전계획에 따라 인민군부대들은 운산지구에서 대포위전을 벌려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편 전선동부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작전을 조직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초령일대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그곳에 한 항일혁명투사를 파견하시였다.

그는 치렬한 싸움속에서 부상까지 당하고 방금 최전선에서 돌아온 지휘관이였다. 그러나 하루밤 재우지도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싸움터로 떠나보내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반공격구상을 알려주시고 황초령계선에서 적을 결정적으로 막아낼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어 그 길로 떠나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전투과업을 받고 한달음으로 황초령에 달려간 그는 전사들과 함께 결사전을 벌려 수많은 적들을 소멸하고 이 일대에서 적들의 공격을 물리쳤다.

그리하여 전선동부와 서부에서 적들의 공격은 완전히 짓부셔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반공격을 현명하게 조직지휘하시였다.

반타격전에서 커다란 승리가 이룩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1월 하순 전 전선의 인민군부대들에 총 반공격에로 넘어갈것을 명령하시였다.

총 반공격에로 넘어간 인민군부대들은 적의 력량이 집결된 청천강부근과 장진호반에서 대포위작전을 벌려 적들을 무리로 섬멸하고 계속 남으로 진격하였다.

한편 제2전선부대들은 황해도, 평안남도, 강원도 등의 넓은 지역과 38°선계선을 차지하고 도망쳐오는 적들과 남쪽으로부터 새로 기여드는 적들을 모조리 족쳤다.

맹렬한 총 반공격전에서 인민군부대들은 미제침략군 제8군 사령관놈을 비롯하여 수많은 적을 살상포로하고 전투기술기재들을 빼앗거나 파괴하였다.

우리 인민군대의 반공격에 질겁한 전쟁우두머리 맥아더놈은 미국이 조선에서 승리를 얻으리라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참담한 손실을 당하였다, 조선에서 흘리는 미국사람의 피는 더욱 많아질것이다라고 하면서 비명을 질렀다.

영국, 뛰르끼예를 비롯한 추종국가 통치배들속에서도 심한 동요가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부대들은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여 그해 12월말까지 공화국북반부의 적강점지역을 해방하고 38° 선이남까지 밀고나갔다.

반공격—공격해오는 적을 소멸하기 위하여 방어로부터 공격에로 넘어가는 군사행동.

추종국가—큰 세력을 가진 나라에 붙어서 자주성이 없이 덮어놓고 따라가는 나라.

4.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갱도전법 창조

미제는 조선전쟁 1년동안에 돌이킬수 없는 참패를 당하였다.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삼키려던 미제는 1951년 6월에 이르러 저들이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38° 선계선에 주저앉게 되였다.

미제는 이미 당한 참패를 어떻게 하나 봉창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무력을 끊임없이 늘이면서 전선동부와 중부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동시에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쳐들어오려고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으로 하여 전선은 날을 따라 더욱 긴장되여갔으며 전쟁은 인차 끝날수 없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꿰뚫어보시고 진지방어전을 벌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선차적임무는 전선을 공고히 하는것입니다. 미제의 대규모적인 무력증강책동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이 장기성을 띠게 된 조건에서 완강한 진지방어전을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은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벌려 차지한 계선을 견지하고 적들을 끊임없이 타격소멸하는 한편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하는것이였다.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튼튼한 진지에 의거하여 차지한 계선을 지키는것과 함께 습격전을 비롯한 여러가지 전법으로 많은 적을 소멸하기 위한 새로운 전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벌리기 위하여 독창적인 갱도전법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진지방어전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을 끊임없이 소멸하자면 무엇보다도 적의 폭격과 포격으로부터 군대와 무기를 믿음직하게 보위해야 하였다.

그때까지 전쟁들에서 사용된 방어진지는 보통 지상에 전호, 화점, 포진지 및 차단물 등을 설치한 진지였다.

그런데 이러한 진지는 적의 맹폭격과 포사격으로부터 군대와 무기를 잘 보호할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게 산에 굴을 뚫고 그에 의거하여 싸우는 갱도전법을 창조하시였다.

갱도전법은 적들이 폭격과 포사격을 할 때에는 갱도안에 들어가있다가 적들이 공격해오면 나가 족치고 전투가 없을 때에는 갱도안에서 무기를 정비하고 휴식과 학습, 문화생활을 하며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싸움방법이였다.

갱도전법의 우월성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은 전연과 해안의 중요고지들에 갱도진지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갱도공사를 빨리 다그칠수 있도록 폭약과 자재, 설비들을 보장해주시였을뿐아니라 몸소 갱도공사장을 찾으시여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어느 한 구분대의 갱도공사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험하다고 앞을 가로막아나서는 일군들에게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겠는가고 하시며 경사가 급하고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작업장으로 들어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 갱도를 뚫다가 사고를 내면 파지 않는것보다 못하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사고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폭발물을 다루는데서 엄격한 질서를 세워야 한

다고 강조하시였다.

다른 공사장을 찾으시여서는 몸소 착암기를 잡으시고 솜씨가 서툰 전사에게 착암기 다루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서 몸소 갱도안에 꾸릴 병실도안까지 그려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안대로 병실이 건설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점심식사도 미루시고 현장으로 나가시였다.

이날 갱도병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문에 접철을 달면 좋기는 하겠지만 고지에서 어떻게 접철을 구하겠는가고 하시며 농촌집처럼 돌쩌귀를 만들어 다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침대우에는 돗자리대신 산마다에 흔한 구름나무로 노전을 엮어 깔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선과 해안의 중요고지들에는 갱도를 기본으로 하는 견고한 방어진지가 튼튼히 꾸려져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갱도전법과 함께 여러가지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민군부대들에서 활용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경험에 기초하여 중기관총, 경기관총 지어 보총과 같은 저격무기로 적비행기를 쏘아 떨구는 비행기사냥군조활동을 발기하시고 모든 부대들에서 널리 받아들이게 하시였다.

이에 따라 부대들에 비행기사냥군조들이 조직되여 수많은 적비행기를 쏴떨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 비행기사냥군조에서는 중기관총으로 단 하루동안에 3대의 적비행기를 쏴떨구고 한달동안에 무려 11대를 떨구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비행기사냥군조활동이 대중적으로 벌어진 결과 이 활동이 시작되여 두해동안에 저격무기로 수천대의 적비행기를 쏴떨구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공중우세》를 자랑하며 낮추 떠서 마음대로 돌아치던 적비행기들은 겁에 질려 하늘높이 떠다니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그것도 주로 낮보다 잘 보이지 않는 밤에 날아다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땅크습격조활동을 발기하시고 적땅크에

대한 습격활동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땅크습격조들은 적진속에 깊이 들어가 반땅크지뢰를 묻거나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적땅크들을 습격하여 파괴하였으며 모여있는 땅크들을 불의에 습격하여 까부시기도 하였다.

땅크습격조활동에 의하여 주체41(1952)년 한해동안에만도 200여대의 적땅크가 파괴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명사수들로 저격수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전선부대의 중대들에 조직된 저격수조의 저격수들은 백발백중의 사격으로 주체41(1952)년 한해에 거의 1만 7 000명의 적들을 소멸하였다. 저격수활동으로 적들은 자기 진지에서조차 마음놓고 다니지 못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이 공격해오는 적들을 모조리 소멸하는 한편 습격조를 무어 적들을 족치게 하심으로써 전선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게 하시였다.

습격조들은 적 방어진지와 지휘부, 통신소, 포진지 등을 들이쳐 적들에게 큰 손실을 주었으며 적들을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탁월한 전법들은 미제의 《기술적우세》가 맥을 추지 못하게 하였을뿐아니라 인민군대가 전쟁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최후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였다.

1211고지방어전투

우리의 방어진지를 허물어보려고 날뛰던 미제는 드디여 1951년 8월 《하기공세》를 벌렸다.

교활한 미제는 전선서부에 적지 않은 병력을 들이밀고 이곳에서 먼저 공격을 시작하면서 마치도 그쪽이 주공격방향인듯이 가장해나섰다. 그러면서 은밀히 큰 병력을 전선동부로 끌어들이고 동해에 수많은 군함들을 집결하여 원산, 통천으로 쳐들어올 준비를 다그치고있었다.

적들의 교활한 책동을 미처 가려보지 못한 일부 지휘관들은

놈들이 전선서부를 노리고있다고 하면서 전선서부의 방어에 힘을 넣을것을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적들의 잔꾀를 환히 꿰뚫어 보시고 적의 공세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전선서부가 아니라 동부를 노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전선서부에서 분주탕을 피우는것은 우리를 속여넘기려는 잔꾀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견하신대로 그때 적들의 진짜 목적은 원산, 통천일대로 쳐들어오는것과 동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선동부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계속하여 공화국북반부 전 지역을 점령하려는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서해안의 일부 방어부대들을 재빨리 전선동부에 옮기는 한편 전선동부와 동해안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꾸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철하게 판단하신대로 적들은 얼마후 전선동부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

적들은 10여만명의 대병력과 1 000여대의 비행기, 수많은 땅크와 함선들을 동원하여 한달동안이나 발악적인 공격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갱도에 의거하고있는 인민군대의 튼튼한 방어진을 허물지 못하고 참패만을 거듭하였다.

적들의 《하기공세》는 산산이 짓부셔지고말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련이어 적들의 《추기공세》를 짓부시기 위한 1211고지방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하기공세》에서 녹아난 미제는 그해 가을에 또다시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1211고지방향으로 쳐들어올 준비를 갖추었다.

이것이 바로 적들이 떠들어댄 《추기공세》였다.

그때 적지 않은 지휘관들은 전선동부에서 얻어맞은 미제가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어 전선서부로 쳐들어오지 않겠는가고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도 적들이 노리는 주타격방향은 《하기공세》때와 마찬가지로 전선동부이고 거기에서도 1211고지일대라는것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1211고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지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211고지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고지입니다. 만일 1211고지를 적들에게 내주게 되면 금강산을 비롯한 많은 지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211고지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뒤에는 의거하여 싸울만 한 고지가 없기때문에 원산까지 적들에게 내여주게 되고 놈들의《추기공세》도 격파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몸소 포화속을 헤치시며 1211고지방위자들을 찾아가시였다.

1211고지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1237.3고지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공세를 파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방어진지들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고 습격조활동을 강화하며 박격포를 비롯한 곡사포들을 늘이고 직사포는 고지우에 올려다놓고 적들을 족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장마비에 도로가 마사진 조건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지원을 받아 도로를 빨리 수리하여 군수물자수송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후 고지에서 싸우는 전사들을 위하여 이곳에 《화선휴양소》를 내오게 하시였다.

어느날 깊은 밤에는 장거리전화로 군단장을 찾으시고 전투원 한사람 한사람이 다 귀중한 혁명전우, 보배들이라고 하시면서 벌써 선기가 나는것 같은데 더운 밥과 따끈한 국을 먹도록 해주며 잠자리도 춥지 않게 미리미리 보살펴주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러시고도 전사들의 생활을 념려하여 1211고지용사들에게 많은 콩을 보내주어 콩나물도 길러먹고 두부도 해먹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에 끝없이 고무된 인민군군인들은 1211고지를 목숨으로 지켜 싸웠다.

적들은 《최대의 폭격》, 《최대의 포격》을 떠벌이면서 1211고지에 하루에도 3만～4만발의 폭탄과 포탄을 퍼부었으며 수많은 땅크의 엄호밑에 련속 공격해왔다.

놈들은 대대가 녹아나면 련대를, 련대가 녹아나면 사단을 내모는 식으로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파도식으로 공격해왔다.

그러나 1211고지방위자들은 불바다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며 영웅적으로 싸웠다.

민청원 리수복영웅을 비롯한 인민군용사들은 조국은 곧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 철석의 신념을 심장에 새기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불뿜는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었다.

적들의 총탄에 심한 부상을 당한 한 전투원은 수류탄묶음을 안고 적진속으로 굴러들어가 육탄으로 원쑤들을 쓸어눕혔고 한 통신병은 끊어진 전화선을 자기 몸으로 이어 부대의 지휘통신을 보장하였다.

전투에서 녹아난 적들은 자기 병사들의 시체로 산을 쌓고 피로 강을 이루게 한 1211고지를 바라보기만 하여도 마음이 상한다고 하여 《상심령》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고지 골짜기에 한번 들어서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오지 못한다고 하여 《함정골》이라고 불렀다.

1211고지방위자들은 이처럼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가며 영웅적으로 싸워 조국의 고지를 끝까지 지켜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적들의 《하기 및 추기공세》는 여지없이 짓부셔졌으며 미제침략자들은 또다시 된타격을 받게 되였다.

1211고지방어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전법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라는것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5. 전시 당의 강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승리를 위하여 당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수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자면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우리 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기간 3차례에 걸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여시고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고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이며 그를 질적으로 튼튼히 다지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워 전투력을 높이시였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었다.

그리고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 첫 시기부터 당안에서 나타난 무규률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당안에 혁명적규률이 전에 비하여 강화되게 되였으나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무규률적이며 자유주의적인 현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이모저모에서 계속 나타나고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간고한 시련이 닥쳐왔던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반당종파분자들은 전략적인 후퇴의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자 당의 지시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일부 견실하지 못한자들도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며 적후투쟁을 벌릴데 대한 당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고 제 한목숨을 유지하는데 급급하였다.

지어 일부 당조직들은 전략적후퇴를 조직적으로 할데 대한 당의 지시를 어기고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무규률적이며 자유주의적인 행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데 커다란 지장을 주었다.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자면 당안에 나타난 무규률적인 현상을 없애고 강철같은 규률을 세워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를 소집할것을 결심하시고 일군에게 회의준비를 잘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러나 당시 과업을 받은 반당반혁명분자는 이 구실 저 구실

대면서 회의준비를 잘하지 않고있었다.

현지에 나오시여 회의준비정형을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의 자그마한 집에서 밤을 지새우시면서 회의보고문을 몸소 작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준비가 갖추어지자 주체39(1950)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 나타난 온갖 무규률적이며 자유주의적인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폭로비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당의 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내놓으시였다.

당의 규률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당에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실천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자면 당의 규률을 약화시키거나 위반하는 현상과 무자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후 당, 국가 및 군사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 나타난 무규률적이며 자유주의적인 현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게 하시였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게 하시였다.

사상투쟁과 사상교양과정에 당안에 혁명적규률이 서게 되고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강철같은 규률이 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는것과 함께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시였다.

당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적인 자리에 앉아있던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당규률을 강화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결정을 집행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는 어긋나게 일하고있었다.

이자들은 자그마한 결함도 크게 문제를 세우면서 수많은 당원들을 무리로 처벌하여 당대렬에서 내보내고있었다. 더우기 다른 나라 당처럼 로동당에는 로동자당원이 많아야 한다고 하면서 전선과 후방에서 잘 싸우고있는 농민들과 지식인들을 당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동자들에 대하여서도 교양이 부족하다느니, 일한 년한이 모자란다느니 하면서 그들을 입당시키는 사업을 잘하지 않았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당원들이 희생되여 당원수가 줄어든데다가 결함이 있다고 하여 출당시키고 새로 받아들이지는 않다보니 당이 약화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사업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체40(195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당문을 닫아매는 관문주의를 극복하고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들을 당에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 사람이나 망탕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입당시킬 때에는 반드시 사람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당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수한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이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당대렬을 늘이는것과 함께 신입당원들을 교양하기 위하여 당세포를 강화하고 핵심들을 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당내규률을 세운다고 하면서 결함을 범한 당원들에게 무턱대고 책벌을 주는 현상을 하루빨리 고칠데 대해서도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가 있은 다음 당대렬을 늘이고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결정관철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고 잘못된 점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시면서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전선과 후방에서 잘 싸운 사람들이 당에 들어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안에 신입당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맞게 그들을 교양하고 단련시키기 위하여 당세포를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당세포는 당원들이 직접 당생활을 하는 기층조직이다. 그런것만큼 당세포를 강화해야 전당을 강화할수 있다.

당세포를 강화하자면 당원들을 교양하고 군중을 조직동원하는 세포위원장을 비롯한 핵심들을 잘 키우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세포핵심들을 잘 키우도록 하시는 한편 여러 지방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세포들의 사업을 친히 알아보고 지도하여주시였다.

주체41(1952)년 6월 어느날 구성군의 산간농촌 당세포사업을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룡천군 하장리(장산리) 당세포사업을 지도하시였다.

하장리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원들이 모내기정형을 총화하고 김매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당세포총회를 한다는것을 아시자 곧 회의장으로 가시였다.

방안에 조용히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 한쪽에 자리를 잡으시고 보고와 토론을 주의깊게 들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가 끝나자 당세포총회가 아주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당원들이 문제토의에 적극 참가하여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았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이어 당안에서 자기 비판과 호상비판을 잘하며 당원들이 당의 위임분공과 결정을 무조건 끝까지 집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하장리 당세포총회를 지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락원기계제작소를 찾으시여 주철직장 당세포총회를 친히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100만명이상의 당원을 가진 당으로 되였으며 당세포들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대렬을 늘이는 한편 당을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가 있은 후 당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옴으로써 정치사상적수준이 어리고 조직적단련이 부족한 당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였다.

당을 질적으로 강화하자면 수준이 어리고 단련이 부족한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해야 하였다.

그러나 당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던 종파분자들은 당을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지 않고있었다.

당대렬이 빨리 늘어난데 맞게 당을 질적으로 강화하지 않고서는 미제의 군사적공세를 짓부시고 전쟁의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1(195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를 여시고 당을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원들의 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당성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원들의 당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이 당과 혁명의 리익을 견결히 지키며 특히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방해하는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당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원들의 당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당사상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교양, 계급교양, 애국주의교양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가 있은 후 당을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당적으로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토의사업을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게 하시였다.

이 과정에 당원들의 당성이 높아지고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전당적으로 진행된 날카로운 사상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안에 오래동안 숨어있으면서 미국놈의 간첩노릇을 하던 박헌영, 리승엽 등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적발되고 놈들의 범죄행위가 날날이 폭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

의후 당원들의 당성이 높아지고 반당반혁명간첩도당이 폭로분쇄됨으로써 당의 통일과 단결이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당중앙위원회가 해당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여는 회의.

6. 전시생산과 전후복구건설 준비

전시생산

전시생산을 잘하는것은 전선과 후방을 공고히 하고 전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전시생산을 잘하여야 전선에 무기와 탄약, 식량을 넉넉히 보내주고 인민들의 생활도 안정시켜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전시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로동계급을 전시공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생산을 계속하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불비속을 헤치며 여러 공장들을 찾으시여 생산을 높이도록 로동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시였다.

주체40(1951)년 2월 어느 한 군수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포신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공장의 당면임무는 박격포와 기관단총생산을 늘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무기와 탄약을 더 많이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자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의 로동계급은 《후방도 전선이다!》라는 전투적구호를 들고 원쑤와의 결전을 벌리는 기세로 전시생산을 다그쳐나갔다.

그들은 적비행기의 폭격으로 하여 정전될 때에는 손으로 피대를 돌려 포탄을 깎고 산골짜기에 작은 용광로를 만들어놓고 쇠물을 뽑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편 큰 공장들이 파괴되고 적들의 폭격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작은 공장들을 많이 내오고 생산협동조합들도 조직하게 하시였다.

이에 따라 곳곳에 작은 공장들이 건설되여 지방의 자재와 원료들을 가지고 생활필수품을 많이 생산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전시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쟁시기 공업총생산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농민들을 전시식량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시식량증산을 위한 투쟁은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식량이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무기와 탄약도 많아야 하지만 식량도 충분히 보장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 농촌은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되여있었다.

전선에 식량을 보내주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자면 농촌에 힘을 넣어야 하였다.

이런 실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우수한 력량을 농촌에로!》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우수한 일군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을 농촌에 보내시였으며 몸소 여러 농촌들을 찾으시여 농민들을 식량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1(1952)년 5월 대동군 원화리를 찾으시여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형편과 마을형편을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그리시고는 농민들과 함께 씨앗도 뿌리고 거름도 주시면서 식량을 많이 생산해야 전쟁에서 이길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품앗이반과 소겨리반을 무어 서로 힘을 합치면 일하기도 헐하고 소와 농기구도 합리적으로 쓸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널리 조직하라고 하시였다.

농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전시식량증산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논밭머리에 대피호를 파놓고 사람은 물론 소까지 위장을 해가면서 농사를 지었다.

농민들은 품앗이반과 소겨리반들을 뭇고 서로 힘을 합쳤으며 녀성들은 전선에 나간 남자들을 대신하여 논발갈이를 맡아하는 녀성보잡이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전쟁의 어려운 속에서도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끝냈으며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수품과 생활필수품, 알곡생산이 늘어나 우리 인민은 전쟁이 아무리 오래 계속되여도 능히 이길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시생산을 늘이는 한편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제때에 보장해주고 상품값을 계속 낮추게 하시였다.

주체42(1953)년부터는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게 하시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애육원과 학원에 보내여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면서 공부시키게 하시였다.

살림집과 세간살이를 다 잃은 사람들에게는 집과 옷, 식량을 해결해주고 살아갈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게 하는 은정을 베푸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속에 우리 나라에서는 그처럼 어려운 전쟁시기에도 굶어죽거나 얼어죽은 사람, 거리를 헤매는 고아들이 하나도 없었다.

품앗이반—지난날 개인농민들이 서로 도우며 일하기 위하여 조직하였던 협동적로동형태.

소겨리반—지난날 개인농민들이 소를 같이 쓰면서 농사일을 서로 도와주기 위하여 조직하였던 공동로동형태.

전후복구건설 준비

전선에서는 피어린 싸움이 계속되고 후방에는 적비행기들이 쉴새없이 달려들어 폭탄을 퍼붓고있었다. 그야말로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이 온 강산이 불구름에 휩싸여있었다.

조선전쟁은 참으로 세계전쟁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가장 가렬한 전쟁이였고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매우 힘겨운 전쟁이였다.

우리 인민은 그 누구나 전쟁 하나만을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벌써 승리할 래일을 내다보시며 전후복구건설을 구상하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9(1950)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 성들과 각급 인민위원회들에서는 앞으로 전쟁이 끝나면 인차 인민경제복구건설에 착수할수 있도록 지금부터 필요한 준비사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며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구상을 더욱 무르익히시였다.

평안북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락원기계제작소 주철직장 10명의 당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전쟁이 끝나면 파괴된 공장과 농촌, 도시를 복구건설해야 하겠는데 로력과 자금도 모자라고 기술도 딸리여 곤난이 많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들은 한 녀성당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 수령님께 정중히 말씀올리였다.

《수상님! 념려마십시오. 우리가 싸워 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일제놈들이 그렇게 마사놓고 간것도 우리는 2～3년동안에 다 복구해가지고 잘살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끝나면 또 복구해가지고 잘살수 있으니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녀성이 올리는 소박한 말을 들으시며 비록 모든것이 마사지고 불타버렸지만 이런 로동계급, 이런 인민에

게 의거한다면 전후복구건설도 능히 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복구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전후복구건설준비를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복구건설준비를 하는데서 평양시복구건설준비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주체40(1951)년 1월 적의 대폭격이 있은 후 어느날이였다.

적들의 폭격에 의하여 재더미속에 묻힌 평양의 거리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후복구건설준비를 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일본새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지금부터 평양시를 일떠세울 준비를 잘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설계가들을 최고사령부에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미제침략자들이 하나를 마스면 우리는 열, 백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특히 평양시를 그전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현대적인 문화도시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설계초안이 완성되였을 때에는 설계일군들을 다시 부르시여 작전지도에 공격의 화살표를 그으시던 색연필로 대성산과 모란봉, 남산에는 공원을, 보통강 토성랑자리에는 유원지와 주택거리를 형성하도록 표시하여주시면서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몸소 완성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구체적인 지도에 의하여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가 완성되고 뒤이어 각 도 소재지들과 도시들의 복구건설설계들이 만들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편 공업부문 복구건설준비를 다그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기계제작공업기지를 창설하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시였다.

기계공장들을 건설하는것은 전후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였다. 기계가 있어야 복구건설에 필요한 기중기와 같은 여러가지 설비와 기계들을 만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희천, 구성을 비롯한 여러곳에 기계공장들의 터전을 잡아주고 그 건설사업을 지도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40(1951)년부터 큰 규모의 공작기계공장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으며 화학공장, 세멘트공장, 벽돌공장 등 중요공장들에서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간부들을 키우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민족간부들을 키우기 시작한다면 복구건설사업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전선에서 싸우는 교원들과 학생들을 부르시여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하여 전선에서 적들의 《하기공세》를 짓부시기 위한 가렬한 싸움이 벌어지고있을 때 전선의 군인들이 후방의 대학으로 가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을 새로 내오고 기술자들을 키워내게 하시였다.

그뿐아니라 포연속에서 진행되는 대학사업이 념려되시여 몸소 여러 대학들을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순천군 백송리에 자리잡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안북도에 나가있는 김책공업대학, 평양사범대학, 중앙당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과 간부양성기관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훌륭한 민족간부들을 더 많이 키워내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전쟁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과학자들이 연구사업을 계속할수 있게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주시였으며 주체41(1952)년 12월에는 과학원까지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의 포화속에서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작성되고 복구건설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였다.

기계제작공업—여러가지 기계, 기구, 설비, 공구, 계기 같은것을 생산하는 중공업의 핵심부문.

7.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

미제의 《신공세》 격파

새로 미국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전쟁미치광이 아이젠하워는 1953년에 들어서면서 모험적인 《신공세》준비를 다그쳤다.

《신공세》의 목적은 서해안의 한천과 평양, 동해안의 원산을 련결하는 지역을 점령하여 우리의 전선과 후방을 끊어놓고 기본전선의 인민군부대들을 《포위소멸》하는것이였다.

미제는 《신공세》를 벌리기 위하여 조선전선에 수많은 군함과 비행기, 무기와 군대를 끌어들이였다.

이와 함께 남조선괴뢰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쟝지에스(장개석) 도당의 군대까지 끌어들이려고 책동하였다.

정세는 실로 엄중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최후결사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조성된 정세를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사전을 벌려 적들의《신공세》를 짓부셔버리고 미제침략자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참패를 안길것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군대와 인민을 미제의 《신공세》를 짓부시기 위한 결사전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때 우리 당중앙위원회는 전체 당원들에게 붉은 편지를 냈습니다. 우리는 전당이 결사적으로 싸우자고 결심하고 갱도를 파고 결사전을 준비하는데 달라붙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2(1953)년 1월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하시였다.

편지는 전체 당원들에게 적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출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만일 적들이 《신공세》를 감행한다면 모두가 떨쳐나서 그를 짓부셔버리고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과 후방을 몸소 찾으시여 군대와 인민들을 최후결사전에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주체42(1953)년 2월 동해안을 방어하고있는 한 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눈길을 헤치시며 마식령산줄기의 높은 고지에 있는 지휘감시소에 오르시였다.

고지에서 쌍안경으로 동해안의 크고작은 섬들과 바다에 떠있는 적군함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신 후 우리 무력의 배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이곳 지휘관들에게 해안방어에서 섬들을 잘 리용해야 하며 고사포는 비행기를 잡는데만 쓸것이 아니라 적군함도 소멸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적들이 상륙작전을 벌리면 한놈의 원쑤도 이 땅우에 들여놓지 말고 바다에서 철저히 소멸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 어느날에는 깊은 산골에 자리잡은 군수공장을 찾으시여 무기와 탄약을 더 많이, 더 잘 만들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선현지지도와 당중앙위원회 편지에 고무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짧은 시일안에 전선과 후방, 해안방어진지들이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해군부대들은 동서해안에 기뢰를 설치하여 적군함들이 해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비행기들로 꾸려진 공군부대들은 출격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

이 시기 적들은 《신공세》준비를 갖추고 그것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신공세》에 앞서 인민군대의 방어가 얼마나 강한가를 알아보며 땅바닥에 떨어진 제놈들의 《위신》을 추켜세워보려고 철원서쪽에 있는 정형고지로 공격해왔다.

이때 적들은 저들이 인민군대를 어떻게 《소멸》하는가를 보라고 여러 나라 기자들과 외교관들까지 불러다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정형고지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들이 정형고지로 공격해오려고 한다는것을 보고받으신것은 놈들이 쳐들어오기 12시간전이였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포병부대를 신속히 철원쪽

으로 이동시키고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게 하시였다.

적들은 언덕과 같은 자그마한 정형고지에 수백대의 비행기와 대포들을 동원하여 무려 수십만발의 폭탄과 포탄을 마구 퍼부었다.

이제는 고지에 더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한 미제는 땅크들을 앞세우고 수많은 병력을 돌격에로 내몰았다.

때를 기다리고있던 인민군포병들은 적들에게 무자비한 포사격을 가하여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고지의 견고한 갱도안에 있던 인민군군인들은 적들이 기여오르자 불벼락을 안기고 드세찬 반돌격으로 놈들을 모조리 족쳐버렸다.

미제의 《모범전투》는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놈들은 또다시 세계앞에서 톡톡히 망신만 당하였다.

적들은 품을 들여 준비한 전투에서조차 패배를 당하자 만일 《신공세》를 벌린다면 한놈도 살아나지 못하게 되리라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미제가 요란스럽게 준비한 《신공세》기도는 처음부터 된타격을 받고 중간에서 깨지고말았다.

주체42(1953)년 2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국해방전쟁에서 탁월한 군사사상과 지략으로 불멸의 위훈을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드리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

351고지공격전투

요란하게 준비하던 《신공세》기도가 완전히 깨여지고 막다른 골목에 이른 미제는 하는수없이 오래동안 끌어오던 정전담판을 다시 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미제는 정전담판을 하면서도 제놈들에게 리롭게 정전협정을 맺어 《영예로운 정전》을 실현해보려고 국제적으로 폭격을 하지 않게 되여있는 저수지, 병원, 학교까지 마구 폭격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제놈들에게 굽어들게 하자는 속심에서였다.

한편 남조선괴뢰도당을 부추겨 정전을 결사반대하고 단독으로라도 《북진》을 하겠다는 소동을 벌리게 하였다.

이 어리석은 기도를 버리고 적들이 무릎을 꿇게 하려면 미제에게 보다 강한 타격을 주며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는 격으로 날뛰는 남조선괴뢰도당에게 된매를 안겨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42(1953)년 5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세차례의 강력한 타격전을 몸소 조직지휘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전직전에 리승만이 단독〈북진〉을 고창하여나섰을 때 우리는 괴뢰군에게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이 전선도처에서 적들에 대한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게 하시였다.

명령을 받은 인민군용사들은 멸적의 기세드높이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집중적인 타격전을 련속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집중적인 타격전을 지휘하시면서 351고지공격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351고지는 적들의 중요한 지탱점이였다.

적들은 숱한 품을 들여 이곳을 그야말로 《요새》로 꾸려놓고 《서울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351고지는 내여줄수 없다.》고 하면서 고지를 지켜내려고 발악하였다.

주체42(1953)년 6월 2일 인민군용사들은 위력한 포사격의 지원밑에 351고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총창을 비껴든 인민군군인들이 공화국기발을 앞세우고 만세를 웨치며 고지로 돌격해올라갔다.

요소요소마다에 숨겨놓았던 적의 중기화점과 철조망들이 인민군군인들의 앞을 가로막아나섰고 적들은 죽기내기로 악을 썼다.

인민군군인들은 돌격하다가 적의 철조망이 나타나면 그우에 엎디여 전우들이 자기 잔등을 밟고 통과하게 하였으며 적의 화구가 앞을 막아나서면 서슴없이 자기 가슴으로 화구를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었다.

그리하여 적들이《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떠들던 351고지를 공격을 시작한지 15분만에 점령하였다.

눈깜빡할사이에 351고지를 빼앗긴 적들은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적들은 351고지를 되찾기 위하여 2척의 순양함을 비롯한 10여척의 각종 함선, 수백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폭격과 포사격을 가하면서 반돌격해왔다.

그때마다 인민군용사들은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기며 희생적으로 싸웠다.

351고지전투원들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전투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축하문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축하문을 받아안은 전투원들은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적들과의 결사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351고지용사들은 50여일간이나 감행된 적들의 발악적인 반돌격을 물리치고 351고지를 끝까지 지켜냈다.

인민군대의 세차례에 걸친 강력한 타격전으로 만신창이 되게 얻어맞은 적들은 더는 일어설수 없게 되였다.

미제는 하는수없이 정전담판장에 기여나와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말았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력사적의의

1953년 7월 27일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은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문에 도장을 찍었다.

그처럼 가렬처절하였던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저들의 륙해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 남조선괴뢰군과 일본군국주의무력을 포함하여 200만명이 넘는 큰 병력과 숱한 최신무기를 다 동원하였다. 그리고 맥아더를 비롯하여 오랜 전쟁경험을 가진 여러놈의 전쟁두목들을 련속 갈아대며 일찌기 전쟁력사에서 볼수 없었던 야수적인 전쟁방법과 수단을 다 썼다.

그러나 미제가 얻은것은 시체와 죽음뿐이였다.

적들은 조선전쟁에서 156만 7 120여명의 군대를 잃고 막대한 전투기술기재들을 잃었다.

이것은 미제의 100여년간의 피묻은 침략전쟁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가장 큰 손실이였고 수치스러운 참패였다.

하기에 정전협정문에 서명한 당시 《유엔군》사령관놈은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참패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였다.

《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띠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 종합전과	
적 살상 및 포로	156만 7 120여명
그중 미제침략군	약 40만 5 500명
괴뢰군	113만 960여명
추종국가군대	3만 660여명
저격무기 로획	92만 5 150여정
각종 포 파괴 및 로획	7 690여문
적 함선 격침,격파	560여척
땅크, 장갑차 파괴 및 로획	3 250여대
자동차 파괴 및 로획	1만 3 350여대
비행기 격추, 격상 및 로획	1만 2 220여대

참으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는 돌이킬수 없는 대참패를 당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께 공화국영웅칭호를 삼가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이 전인민적인 영웅적투쟁을 벌려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자기 조국을 수호한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혁명전쟁이였습니다.》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또한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졌으며 우리의 혁명력량이 더욱 강화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는 미제의 새로운 세계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세계평화를 지켜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하기에 세계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세계혁명의 위대한 령도자》,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높이 우러르며 끝없이 존경하였다.

제 5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조직령도

〔주체42(1953).7－주체49(1960).12〕

1.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제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3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앞에는 파괴된 나라의 경제를 빨리 복구발전시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겨야 할 과업이 나섰다.

그런데 우리의 앞길에는 수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으로 공장, 기업소를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가 무참히 파괴되고 도시와 마을은 재더미로 되였다. 집과 세간살이를 잃은 인민들에게는 먹을것과 입을것, 쓰고살 집이 모자랐다.

경제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자재, 로력과 기술 등 모든것이 부족하였다.

게다가 미제는 조선은 앞으로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며 전쟁이 끝난 다음날부터 또다시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날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어려움속에서도 당이 있고 주권이 있으며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는 이상 우리는 다시 일떠설수 있다고 굳게 믿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후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전쟁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석단을 내리시는 길로 강남요업공장을 찾으시였다.

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일떠선 강남요업공장에

서는 벌써 생산을 시작하고있었다.

공장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많은 벽돌을 생산하여 복구건설장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강남요업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해제철소와 평양방직공장, 강선제강소를 련이어 찾으시였다.

강선제강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이 가져온 의자를 밀어놓으시고 무너진 벽체우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로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의 파괴정형을 알아보시고 제강소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워 복구건설에서도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힘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보여주자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가시는 곳마다에서 공장의 파괴정형과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리고 로동자, 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복구건설방도를 의논하시였으며 그 가능성을 가늠해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주체42(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를 여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후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이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무엇보다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였다.

중공업은 철과 기계, 석탄과 광석, 전기와 세멘트 등을 생산하는 공업이다.

따라서 중공업을 먼저 복구하고 빨리 발전시켜야만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과 살림집들을 복구건설할수 있으며 복구건설된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다음으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이였다.

경공업과 농업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천과 신발 등 생활필수품과 식량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부문이다. 따라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전쟁으로 어렵게 된 인민생활을 빨리 추켜세우고 앞으로 더 높여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로선이였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경공업부터 먼저 발전시켜 자금을 모은 다음 중공업을 발전시키거나 중공업부터 먼저 발전시킨 다음 경공업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한것과는 달리 전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복구건설단계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복구건설단계를 반년내지 1년으로 하는 준비단계, 3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단계,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단계로 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농촌에서 점차 농업협동화를 하며 주체43(1954)년부터 경험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할데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가장 옳바른 길을 따라 전후복구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제6차전원회의후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복구건설을 위한 준비단계의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을 튼튼히 꾸리고 인민대중을 당의 두

리에 굳게 묶어세워 그들을 전후복구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시여 복구건설의 방도들을 가르쳐주시며 전체 인민이 복구건설에서 높은 애국적열의를 내도록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준비단계의 과업을 불과 다섯달동안에 끝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3개년인민경제계획〔주체43(1954)—주체45(1956)〕을 수행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3개년계획의 기본과업 (1954-1956)
·전쟁에서 파괴된 경제를 빨리 복구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전쟁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3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여러 부문 회의들을 여시고 3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시였다.

특히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게 하시였다.

그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물젖은 종파분자들은 인민생활이 어려운데 중공업건설에 치우친다느니, 기계에서는 밥이 나오지 않는다느니,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정책을 실시해본 일이 없다느니 하면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반대해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중공업을 먼저 복구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중공업가운데서도 제철소와 제강소들을 빨리 복구하도록 하시였다.

제철소와 제강소들을 빨리 복구해야 복구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철강재를 제때에 생산하여 보내줄수 있었고 기계도 만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해제철소와 강선제강소를 여러차례 찾으시여 공장의 복구건설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복구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정전직후 황해제철소를 찾으시여 제철소의 복구건설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3(1954)년 6월 또다시 제철소를 찾으시였다.

황철의 로동계급은 그 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낮에 밤을 이어 복구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1년도 못되는 사이에 50t짜리 평로자리에 100t짜리 평로를 건설하였다.

쇠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광경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호평로에서 쇠물이 쏟아지는것을 보니 힘이 솟고 신심이 생긴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철소로동계급에게 인민경제복구발전에서 철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해설해주시면서 황해제철소는 전후경제건설의 《1211고지》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제철, 제강소들이 빨리 복구되여 강선제강소에서 전후 40일만에 첫 쇠물을 뽑은데 이어 황해제철소에서 련속 쇠물을 뽑음으로써 복구건설에 필요한 철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철소, 제강소들의 복구와 함께 기계공업발전에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우리 나라의 기계공업은 원래 약한데다가 그것마저 미제의 폭격으로 다 파괴되여 새로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나라의 기계공업형편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구성을 비롯한 여러곳에 새로 기계공장들을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구성공작기계공장이 건설되고 수많은 기계공장들이 복구확장되여 여러가지 기계들이 생산되게 되였다.

이밖에도 세멘트공장, 발전소, 탄광, 광산 등 중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이 빠른 시일안에 복구건설되고 정비되여 생산에 들어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복구발전에도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전쟁기간 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하여 큰 경공업공장들이 모두 파괴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전후 우리 나라에서는 천과 신발 등 생활필수품이 매우 부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많은 자금을 돌려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킬수 있는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경공업공장건설장들을 찾으시여 건설사업을 지도해주시였다.

전후 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파괴된 공장을 일일이 돌아보시고나서 일군들에게 공장을 언제까지 복구할수 있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일군들은 5년은 걸려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방직공장 하나를 복구하는데 5년이 걸린다면 전쟁에서 파괴된것을 다 복구하려면 몇십년이 걸려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면서 5년이 아니라 두달에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놀라면서 똑똑한 대답을 올리지 못하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두달동안에 복구건설할수 있는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후에도 여러차례 이 공장을 찾으시여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시며 공장을 짧은 기간에 복구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경공업공장건설장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복구건설사업을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국의 수많은 경공업공장들이 복구건설되여 생산을 시작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파괴된 농촌경리를 복구하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농촌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파괴된 논밭과 관개시설들을 복구하는 한편 협동조합을 널리 조직하고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파괴된 도시와 마을들을 복구건설하는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이미 전쟁시기에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시고 평양시복구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끝나자 인민들을 혁명의 수도 평양시복구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러시고는 평양시복구건설이 시작된 다음날부터 건설장을 끊

임없이 찾으시여 현지에서 건설사업을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4(1955)년 4월 어느날 이른새벽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일하고있는 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오매에도 그립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된 학생들은 기쁨에 겨워 만세를 웨치며 달려왔다.

그러는 그들을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직 인민들이 새벽잠을 자고있는데 그렇게 떠들면 되겠느냐고 타이르시였다.

학생건설자들과 인사를 나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사장을 돌아보시며 공사를 빨리 끝내도록 고무해주시였다.

정녕 복구건설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에서 학교와 살림집건설을 앞세우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전후 그처럼 어려운 형편에서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대폭 올리게 하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물건값을 낮추게 하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인민은 힘찬 투쟁을 벌려 3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전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쟁의 상처를 가시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전쟁전 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2. 전후 인민군대 강화

이 땅우에 전쟁의 포연은 가셔졌지만 나라의 군사정치정세는 여전히 긴장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정전협정문에 서명하고 돌아앉자마자 남조선괴뢰도당과 함께 《정전은 휴식이다.》, 《싸움은 이제부터다.》라고 하면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늘이였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임의의 순간에 또다시 전쟁의 불이 달릴 위험이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꿰뚫어보시며 언제나 철칙으로 견지해오신 선군의 원칙에서 인민군대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42(1953)년 10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기회에 전후 군건설의 전략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전후 군건설의 전략적과업은 우선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하여 간부군대로 만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를 간부군대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를 간부군대로 만든다는것은 군관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인들이 한등급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그들의 수준을 높인다는것을 의미한다.

전후 군건설의 전략적과업은 또한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것이였다.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한다는것은 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키고 최신군사과학과 군사기술에 토대하여 그 위력을 더욱 강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 군건설의 전략적과업을 제시하심으로써 선군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후 군건설의 전략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간부군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를 위하여 인민군부대들에서 훈련조직과 지도를 잘하도록 하시고 인민군초소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면서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몸소 지도해주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분계선가까이에 있는 인민군구분대의 한 초소를 찾으시였다. 구분대에서는 동기전투훈련이 한창 벌어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여러가지 정황을 주시면서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정황을 능숙히 처리하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해주신 다음 훈련을 실속있게 하여 모든 군인들이 한등급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게 준비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동무들은 당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하오. 훈련을 잘해서 모두가 간부군대가 되여야 하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초소를 떠나시면서 《초소는 동무들에게 맡기오.》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분계선초소의 군인들은 수령님께서 찾아오셨던 그날을 영원히 전하기 위하여 초소의 바위에 《1954년 12월 10일》이라고 한자한자 정성담아 새기였다.

그리고 전투정치훈련을 더욱 강화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교육기관들을 새로 내오며 확장, 보강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또한 인민군대를 간부군대로 만드는데서 지휘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군사기술적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후 인민군대의 간부화는 적극 다그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정전직후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만 남은 조건에서 전후복구건설을 하면서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방공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미 마련된 군수공장들을 더욱 확대하고 현대적기술로 꾸리는 한편 새로운 군수공장들을 건설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자립적인 국방공업이 꾸려지고 이에 따라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는 현대화되여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군건설의 전략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였다.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대안에 당적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그리고 인민군대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해나가는데서 앞장에 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에 따라 인민군군인들속에서《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전투회상기》학습이 생활화되고 초소와 훈련장마다에서는 《유격대행진곡》을 비롯한 혁명가요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당적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났다.

전후 인민군대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당의 군대로 준비되고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강화됨으로써 미제와 내외반동들의 온갖 공세를 걸음마다 짓부셔버리면서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할수 있게 되였다.

3. 사회주의협동화

농업협동화

농업협동화는 개인농민들이 가지고있는 땅과 농기구, 부림소 그리고 로력을 모두 합쳐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일한것만큼 분배를 받게 하는 농촌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이다.

개인농경리를 협동화하여야 농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는 전후에 와서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3년간의 전쟁으로 우리 나라 농촌은 혹심하게 파괴되고 농민들의 처지는 매우 어렵게 되였다.

농촌에는 부림소와 농기구가 얼마 없었고 청장년들이 군대에 나가 로력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개별적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없었으며 전후 매우 어렵게 된 식량문제도, 농민생활문제도 풀수 없었다. 나아가서는 빨리 발전하는 공업에 농업을 따라세울수

없었으며 전반적인 나라의 경제를 성과적으로 발전시킬수 없었다.

전후 우리 나라에는 농업협동화를 맡아할 혁명력량도 충분히 마련되여있었다. 우리 농민들은 전쟁의 불길속에서 각성되고 혁명적으로 단련되였다. 그리고 전쟁시기 품앗이반, 소겨리반을 뭇고 집단적으로 일하는 과정에 서로 힘을 합쳐 농사를 짓는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화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농업협동화방침은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였다. 다시말하여 나라의 공업을 발전시켜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줄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는것이였다.

그때까지는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농촌에 충분히 보내줄수 있게 공업이 발전된 다음에야 농업협동화를 할수 있는것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이 바라고 또 협동화를 할수 있는 력량이 있을 때에는 공업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릴것이 아니라 먼저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화에서 지켜야 할 원칙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농민들에게 농업협동화가 좋다는것을 해설해주고 직접 제눈으로 보게 하여 그들이 스스로 조합에 들어오게 하는 자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빈농들에게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부농을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개조하는 계급정책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당과 국가가 협동조합들을 잘 지도하고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농업협동화방침을 내놓으신

다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화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하며 일군들이 일정한 경험도 쌓도록 하기 위하여 경험적단계를 정하고 주체43(1954)년부터 매개 군에 빈농과 핵심들로 시범적으로 협동조합을 몇개씩 뭇도록 하시였다.

협동조합규모도 처음에는 15～20호정도로 작게 하고 점차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40～100호정도로 늘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동조합을 뭇는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많은 일군들을 여러곳에 내려보내시고 자신께서는 몸소 중화군 삼정리에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 여러개의 농업협동조합을 뭇게 하시고 조합이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신날에도 쉬지 않고 또다시 삼정리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동조합들의 포전을 돌아보신 다음 조합관리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협동조합을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먼저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여름에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여 농사일을 보살펴주시였으며 조합들이 한해농사를 훌륭히 지은 가을에도 찾아주시였다.

협동조합이 조직되여 첫해 농사를 잘 지은 이곳 농민들은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봄에 나갔을 때에는 걱정이 앞서 고개를 숙이고 바라보더니 여름에 나갔을 때에는 농사가 잘되여 희색이 만면하였고 가을에 나가보니 농민들은 너무 기뻐 입이 귀밑까지 이를 지경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중화군 삼정리의 농업협동조합들은 협동화의 경험적단계에서 본보기단위로 되였으며 전국이 따라배우게 되였다.

시범적으로 무은 농업협동조합들은 첫해 농사부터 개인농에 비해 그 우월성을 뚜렷이 나타냈다.

주체43(1954)년 첫해 농사에서 협동조합들은 개인농들보다 알곡을 정보당 10～50% 더 생산하였으며 현금수입은 2～7배나 더 높이였다.

협동조합의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자 빈농민들은 물론 중농들도 저마다 조합에 들어오겠다고 하였다.

이 기간에 일군들도 많은 경험을 쌓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농업협동화운동을 대중적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3(1954)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여시고 농업협동화를 대중적단계로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다.

농업협동화에서 적용한 협동조합의 형태

첫째 형태－토지와 농기구를 통합하지 않고 일만 공동으로 하는 로력협조반이다.

둘째 형태－토지를 통합하고 공동으로 농사를 하면서 토지와 로동에 의하여 분배하는 반사회주의적형태이다.

셋째 형태－토지를 비롯한 기본생산수단을 모두 공동소유로 하고 오직 로동에 의해서만 분배하는 사회주의적형태로서 가장 높은 형태이다.

전원회의후 협동조합에는 중농들까지 광범히 들어오게 되여 모든 농촌들에서 협동조합을 뭇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일부 일군들은 자원성의 원칙을 어기고 모든 농민들을 마구 끌어들여 협동조합을 뭇는 사업을 한시에 와닥닥 해치우려고 하였으며 조합도 크게 뭇고 형태도 높은 수준의 협동조합형태로만 하려고 하였다.

또 일부 농민들은 비교적 잘사는 사람들끼리 협동조합을 따로 무으려고 하였고 조합에 들여놓은 부림소와 농기구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바로잡아주시고 몸소 원화리를 비롯한 여러 지방들에 나가시여 협동조합을 뭇는 사업과 무어진 협동조합들의 사업을 이끌어주시였다.

주체44(1955)년 11월 중순 원화농업협동조합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도 여기 조합원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함께 농사를 잘 지어 조합을 발전시켜보자고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은 매우 빠른 속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여 주체45(1956)년말에 이르러서는 농민들 거의 모두가 조합에 들어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이미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을 더욱 튼튼히 하시면서 농업협동화를 완성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까지 조합에 들어오지 않고 도시주변에서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희망하는대로 농업협동조합이나 생산판매협동조합에 들어가게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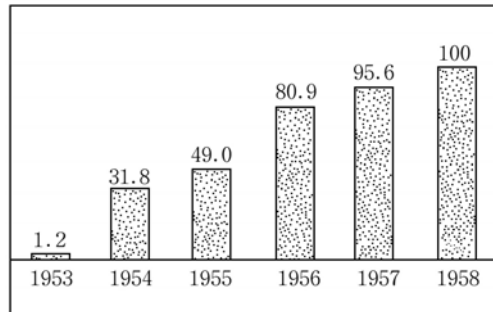
산골들에 몇집씩 널려 사는 농민들은 농사도 하고 축산도 하는 종합작업반을 내오고 거기에 망라되여 일하게 하시였다.

전쟁때 새로 해방된 지역들에서는 농민들이 협동조합이 좋다는것을 알도록 선전도 하고 제눈으로 직접 보게도 하여 조합에 스스로 들어오게 하시였다.

농촌경리의 협동화 (%)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농업협동화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주체47(1958)년 8월까지 농업협동화가 끝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화가 끝나자 리안에 조직된 여러개의 조합을 통합하여 리를 한개의 협동조합으로 만드시였다.

농업협동화가 끝남으로써 우리 나라 농민들은 온갖 착취에서 영원히 해방되였으며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에 농업협동화와 함께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수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본격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수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는 이미 전쟁전부터 진행되였다.

그러므로 수공업자들은 협동화가 우월하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특히 그들은 전쟁으로 하여 얼마 안되던 재산마저 잃었기때문에 협동화를 하여 서로 로력과 생산도구 등을 합쳐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수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협동화를 적극 지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헤아려보시고 전후에 수공업자들로 생산협동조합들을 널리 조직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무어진 생산협동조합들이 은을 낼수 있게 국가에서 원료와 자재, 자금 등을 대주면서 적극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생산협동조합들은 무어진 초기부터 은을 내게 되고 조합원들의 생활은 빨리 펴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는 주체45(1956)년에 이르러 거의 끝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수공업과 함께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은 수공업자들과는 달리 크든작든 근로자들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였다. 때문에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완전히 없앨수 없고 기업가들과 상인들자체도 사회주의근로자로 만들수 없었다.

전후시기 우리 나라에는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었다.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은 전쟁시기 미제의 폭격에 공장을 비롯한 재산을 거의다 잃어 수공업자들과 별로 차이가 없게 되였다.

그들도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산도 제대로 할수 없었고 살아가기도 힘들었다.

그러므로 개인기업가들과 상인들도 우리 당이 이끄는 협동화를 지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상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수탈하지 않고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은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고 그들을 협동조합에 받아들여 사회주의근로자로 교양개조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방침에 따라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업에서도 농업협동화에서처럼 기업가들과 상인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에 들어가게 하는 자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그들이 협동조합에 들여놓은 기계나 자재들은 꼭 값을 치르어주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후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기업가들은 수공업자들로 조직된 생산협동조합에 들어갔다.

로동을 해보지 못한 상인들은 판매협동조합 또는 생산판매협동조합을 뭇고 그것을 점차 생산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업가, 상인들을 협동조합에 받아들이는 사업과 함께 그들을 사회주의근로자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같이 벌려나가시였다.

기업가, 상인들은 지난날 남을 착취하며 살아왔기때문에 자본주의사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특별한 힘을 넣는 한편 그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여러 생산협동조합들을 찾으시여 조합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며 당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46(1957)년 8월 개성직물생산협동조합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합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모두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일도 잘하고 생활도 잘해나가도록 보살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커다란 감동을 받은 한 녀성조합원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던 자기의 과거생활을 솔직히 말씀올리였다.

그는 본래 평양에서 살았는데 전쟁시기 남조선으로 도망가는 남편을 따라 개성까지 가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며 살다가 조합에 들어온 사람이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조국이 통일되면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된다고 하시면서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남편을 보란듯이 만나기 위해서도 일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아이들도 공부를 잘시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후 원산철공생산협동조합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동조합원들에게 우리 당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 성분을 따지지 않고 다같이 공산주의사회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조합원들은 당을 따라 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속에 개인상공업자들은 사회주의근로자로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47(1958)년 8월 농업협동화와 함께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빛나게 실현되여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지게 되였다.

개인상공업자—간단한 도구와 설비를 가지고 자기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와 크지 않은 공장을 가지고 로동자들을 시켜 상품을 만들거나 상품을 전문적으로 말아 파는 기업가와 상인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

4. 주체확립에서의 결정적전환

주체를 확립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결심을 하며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를 세우는데서 기본방해로 되는것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였다.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큰 나라, 발전된 나라들을 섬기고 따르면서 무엇이나 큰 나라들이 하는대로 하려고 하였다.

이자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는 커다란 지장을 받아왔다.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의 책동은 전후시기 더욱 심하였다.

당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물젖은 종파분자들은 우리의것은 다 나쁘고 큰 나라의것, 남의것은 다 좋다고 하면서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본따려고 하였다.

지어 이자들은 우리 당의 새로운 로선이나 정책이 나오면 그것이 다른 나라의것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보고 맞지 않으면 덮어놓고 반대하였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나왔을 때에도, 농업협동화의 새로운 방침이 나왔을 때에도 그것을 다른 나라의 로선과 정책에 맞추어보았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책에도 없으며 다른 나라에서 해본 경험도 없다고 시비하며 반대하였다.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의 책동은 사상사업에서 더욱 심하였다.

그때 사상사업부문에 들어앉아있던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연구하고 해설할 대신 남이 하는 소리를 맹목적으로 따라외웠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것을 그대로 내려먹이고있었다.

그림도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보잘것 없는 그림을 걸어놓게 하고 사람들의 사진도 우리 나라의 영웅들이나 명인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학자나 작가들의 것을 걸게 하였다. 지어 선전화와 경제발전도표까지도 다른 나라의

것을 붙이게 하였다.

교육에서도 남의것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다.

큰 나라의것이라면 무엇이나 통채로 삼키던 나머지 그 나라 책들의 차례가 뒤에 붙었다고 하여 그것까지 본땄으며 다른 나라의 지리교과서를 그대로 번역하여 쓰다보니 몽골이 우리 나라의 동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대주의와 교조주의현상은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 나라의 발전에 큰 해독을 끼치고있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제때에 짓부시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현대수정주의까지 들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로부터 주체44(1955)년 12월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인가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바로 조선혁명이며 따라서 사상사업은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우선 우리 나라의 력사,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를 깊이 연구하고 널리 선전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또한 우리

의것을 성실히 연구하고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제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사상사업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를 세우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때부터 사상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된바람이 불었다.

당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이 전면적으로 고쳐지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혁명전통을 해설한 책들이 대대적으로 출판되였으며 우리 나라의것을 위주로 하여 선전선동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문학예술분야에서도 우리 나라의 현실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생동하게 그린 책들과 그림, 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교육사업에서도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우리 혁명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가진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사상사업뿐아니라 정치와 경제, 국방의 모든 분야에서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사대주의—큰 나라, 발전된 나라를 섬기고 받들며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스스로 낮추 보고 멸시하는 사상.

교조주의—자기의 구체적인 현실이나 조건을 타산하지 않고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옮겨놓는 그릇된 사상.

5.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3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3개년계획이 완수될 날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다음 단계의 목표인 5개년계획의 휘황한 전망을 제시해야 하였다.

한편 현대수정주의로선에 대한 립장을 밝혀야 하였다.

그때 쏘련당에서는 현대수정주의가 나타나 미제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면서 저들의 그릇된 사상과 로선을 다른 나라들에 들이먹이고있었다.

이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립장을 똑똑히 밝혀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4(1955)년 12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음해 4월에 당대회를 열것을 결정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당대회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도록 하기 위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한편 당대회장 건물을 새로 꾸리는 사업으로부터 경축공연, 대표들의 숙소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준비밑에 주체45(1956)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우선 우리 당의 대외정책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련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미제의 침략책동과 일본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제국주의와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적극 지지성원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우리 당 대외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인 정책이였다.

당시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미제와 싸우기를 꺼려할뿐아니라 놈들을 두둔하면서 다른 나라들까지 싸우지 못하게 방해를 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적극 지지한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또한 지난 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짧은 기간에 완성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3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3개년계획기간에 협동화와 복구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총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사회주의기초건설을 끝내기 위한 5개년인민경제계획〔주체46(1957)－주체50(1961)〕의 기본과업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부문들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공업화의 기초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며 경공업과 농업생산을 새로운 수준에로 높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속 향상시켜야 할것입니다.》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도시와 농촌에서 협동화를 끝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으며 인민들의 입고 먹고 쓰고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것이였다.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우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협동화를 끝내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3개년계획기간에 수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가 거의 끝나고 농업협동화는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도 절반이상이 협동조합에 들어오게 되였다.

따라서 5개년계획기간에는 도시와 농촌에서 협동화를 완성해야 하였다.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또한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는것이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는다는것은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할수 있도록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튼튼히 꾸린다는것이다.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
(1957-1961)

· 사회주의협동화를 완성하며
·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튼튼히 닦으며
·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것이다.

이와 같이 협동화가 완성되고 공업화의 기초가 닦아지면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이 끝나게 된다.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또한 인민들의 입고 먹고 쓰고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5개년계획은 우리 나라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뒤떨어진 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만들기 위한 전투적강령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또한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대회에서 제시하신 과업은 대회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당대회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다시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당 제3차대회는 제국주의자들과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제국주의자들과 끝까지 맞서싸울 우리 당과 인민의 결의를 밝힌 대회였으며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완성할데 대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준 력사적인 대회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5개년계획의 휘황한 목표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아가게 되였다.

현대수정주의－수령의 역할을 거부하고 수령의 권위를 헐뜯으며 계급투쟁을 부인하는 반혁명적사상.

사회주의기초건설－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기 위한 사업.

6. 종파도당 폭로분쇄

종파분자들은 오래전부터 저마다 파를 만들고 우리 혁명대렬에 끼여들어 못된짓을 많이 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도 그랬고 해방후에도 혁명과 건설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특히 생사를 판가리하던 조국해방전쟁시기 박헌영을 두목으로 하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당과 국가를 해치려고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놈들의 극악한 범죄행위는 여지없이 폭로분쇄되였다.

전후 나라안팎의 정세가 복잡해지자 또 다른 종파분자들이 머리를 쳐들고 날뛰기 시작하였다. 그자들이 바로 최창익을 두목으로 하는 종파분자들이였다.

놈들은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투쟁을 벌리고있을 때 뒤에서 당정책을 시비하고 반대하며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의 책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을 떠나시자 극도에 달하였다.

주체45(1956)년 6월 평양을 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시면서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고계시였다.

최창익을 두목으로 하는 반당종파분자들은 이 기회를 타서 반혁명적음모를 꾸미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 외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45(1956)년 8월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먼저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의 사회주의나라방문에 대한 총화를 하시였다.

보고가 끝나자 회의참가자들은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정부대표단이 외국방문에서 거둔 성과를 열렬히 지지찬동하였다.

그런데 종파분자들만은 우리 당정책을 시비하면서 당에 도전하여나섰다.

이렇게 되자 전원회의참가자들은 반당종파분자들의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이자들을 단호히 징벌할것을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참가자들의 일치한 의사에 따라 이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당을 반대하여 정면에서 도전하여나섰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음모책동은 짓부셔지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없이 심각한 전원회의였지만 여유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다 토의하고 전원회의를 마치시였다.

8월전원회의에서 폭로분쇄된 종파도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반대하고 혁명전통을 헐뜯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여온 반당반혁명분자들이였다. 또한 놈들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여러 종파의 잔여분자들이 손을 잡은 련합적인 종파도당이였다. 이자들은 외부세력을 등에 업은 사대주의자, 수정주의자들이였으며 미제와 손잡고 당과 정부를 뒤집어엎으려고 한 극악한 반혁명도당이였다.

그러므로 이 종파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은 반종파투쟁인 동시에 반사대주의투쟁, 반수정주의투쟁, 반혁명과의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8월전원회의가 있은 후 종파잔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힘있게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종파가 어떤것이고 그 해독성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려주며 그 사소한 현상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리게 하시였다.

8월전원회의가 있은 후 어느날 강선제강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부 로동자들이 나라안팎의 복잡한 정세와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강소 로동자들은 종파라는것이 무엇이고 그놈들이 어떻게 책동하였으며 당과 혁명에 얼마나 큰 해독

을 주었는가를 잘 모르고있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종파에 대하여 잘 알아야 그와의 투쟁을 강력히 벌릴수 있다고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제강소 로동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종파분자들이란 어떤 놈들이고 놈들이 당을 반대하여 어떻게 책동하였는가를 그들에게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종파놈들의 속심과 죄행을 똑똑히 알게 된 로동자들은 격분을 금치 못하며 저저마다 일어나 종파놈들을 전기로속에 처넣겠으니 강선에 보내달라고 한결같이 제기하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반종파투쟁의 불씨를 심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당적으로 종파분자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종파잔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잔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서 주동분자들은 치고 그밖의 사람들은 교양개조하도록 하시였다.

종파와 관계있는 사람들가운데는 놈들의 속심을 모르고 종파분자들이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일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종파분자들의 죄행과 책동을 잘 인식시켜 그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새 출발을 하게 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분자들에게 맹종맹동한 사람들을 친히 만나 일깨워주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날 설계일군들과 주택건설문제를 놓고 의논하신 일이 있었다.

그때 설계일군들은 지난날 종파분자들의 말만 듣고 일을 잘못한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풀이 죽어있는 설계일군들에게 건설부문사업을 책임지고있던 놈들이 종파책동을 하면서 내리먹였으니 동무들이야 별수 없지 않았겠는가고 하시면서 한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죄송스러워 하는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이 종파분자들을 무턱대고 따른것은 몰라서 그랬다고 하시며 오늘부터 새 출발을 하여 당의 뜻대로 일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47(1958)년 3월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여시고 그동안 진행하여온 반종파투쟁을 총화하시고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당중앙을 옹호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당의 단결을 고수하기 위하여 당중앙을 옹호하는것입니다.》

당중앙을 옹호하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된것은 종파분자들이 바로 당의 령도권을 노리고 당중앙의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반종파투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며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8월전원회의와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놈들이 뿌려놓은 사상여독을 가셔버리였다.

그리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이 굳건히 다져지게 되였다.

반종파투쟁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당대표자회—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새롭게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따라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는 각급 당조직대표들의 회의.

지방주의—같은 고향, 같은 지방의 사람들끼리 무원칙한 관계를 맺고 한패가 되여 다른 지방사람들을 업수이 여기고 밀어내치거나 자기 지방만을 내세우며 당의 통일단결을 방해하는 사상.

가족주의—친척, 친우, 동창 등 몇몇 사람들끼리 무원칙한 관계를 맺고 서로 싸고돌면서 당과 혁명, 조직의 리익보다 자기들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는 비조직적이며 비원칙적인 사상.

7.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

천리마대고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3개년계획은 2년 8개월에 완수되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46(1957)년부터 당 제3차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5개년계획은 3개년계획에 비할수 없이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였다.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선 우리에게는 자금과 자재가 모자랐으며 인민들의 생활도 아직은 펴이지 못하였다.

5개년계획이 이처럼 어려운 속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이여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방조를 주기 바랐고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서 돈을 꾸어오자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거나 돈을 꾸어주려는 나라는 별로 없고 우리 인민이 5개년계획을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라와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미제침략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려고 새로운 무기를 끌어들이면서 리승만괴뢰도당을 전쟁에로 부추기였다.

종파잔여분자들은 음으로 양으로 당정책을 반대하면서 쏠라닥거리였다.

한편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종파놈들을 통하여 수정주의를 불어넣으려고 책동하면서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였다.

뿐만아니라 우리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부닥친 난관앞에 겁을 먹고 동요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높은 속도로 밀고나가기를 주저하

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다.

참으로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렇다고 하여 난관앞에 주저앉을수 없었으며 전진속도를 늦출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닥친 난관을 뚫고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믿고 그들의 힘을 동원해야 한다고 보시였다.

주체45(1956)년 11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선제강소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지금 우리 형편은 매우 어렵다고 하시면서 종파놈들은 제각기 자기 상전을 등에 업고 당을 반대하고있으며 리승만은 미국을 믿고 우리에게 덤벼들려고 한다, 우리는 누구를 믿겠는가, 당신들 로동계급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난관을 뚫고나가자고 로동자들에게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높이 부르며 그 어떤 어려운 과업이라도 맡겨달라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로동계급, 이런 인민에게 의거한다면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다고 더욱 굳게 확신하시였다.

주체45(1956)년 1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개년계획수행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와 같이 혁명력량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고 반혁명세력과의 투쟁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다음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은 주체46(195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사회

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이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증산하고 절약하여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완수하자!》라는 구호를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전국각지의 중요공장과 농촌들에 내려보내시고 자신께서는 그해말 강선제강소로 다시 나가시였다.

강선제강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강소 지도일군들과 모범로동자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을 알려주시였다.

그러신 다음 우리는 지난날 어렵게 살아왔고 지금도 부족한것이 많은 조건에서 남이 한발자국 걸으면 열발자국을 걷고 남이 열발자국을 뛰면 백발자국을 뛰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강선제강소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다음해에 강재를 계획외에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공무동력을 강화하고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마련해놓으면 분괴압연기 보수기일을 단축하여 강재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강재 1만t을 더 생산할수 있는 예비까지 하나하나 찾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강선제강소 로동계급이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을 높이 추켜들어 그것이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는 불길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자기들을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에서 힘과 용기를 얻은 강선의 로동계급은 수령님의 교시를 기어이 관철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 혁신의 불길을 높여나갔다.

그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려 생산에서 기적적인 비약을 일으켰으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 질풍같이 내달리였다.

마침내 강선땅에 천리마대진군의 첫 봉화가 타오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선제강소를 찾으신데 이어 전국의 중요공장, 기업소들과 농어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전체 인민들을 천

리마대진군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와 현지지도에 끝없이 고무된 전국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갔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한해에 6만t밖에 생산할수 없다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생산하였으며 김책제철소 로동계급은 년간 19만t밖에 생산할수 없다던 용광로에서 27만t의 선철을 뽑아냈다.

이러한 혁신의 불길속에서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이 빛나게 완수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첫 대고조는 이렇게 일어났으며 이때부터 천리마운동이 시작되였다.

온 나라에 천리마운동의 불길이 타올라 도시와 농촌은 날로 변모되고 인민생활이 빨리 높아졌다.

천리마운동의 불길속에서 적들의《반공》공세도, 반당분자들의 공격도 다 짓부셔졌으며 우리를 비방하던 나라 사람들도 더는 입을 벌리지 못하였다.

> **천리마운동**
>
> 천리마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이다.

세상사람들은 이때부터 우리 나라를 《천리마조선》으로 부르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천리마대고조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혁명적대고조—혁명과 건설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에 인민대중의 혁명적기세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상태.

기계공업의 급속한 발전

주체47(1958)년 8월 사회주의협동화가 완성되여 우리 나라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가 서게 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인민앞에는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다그쳐 5개년계획을 하루빨리 수행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여기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중공업 특히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기계화할수 있는 기초를 닦는것이였다.

당시 우리 나라 기계공업은 아직 전기기관차와 굴착기,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계를 생산보장할만 한 수준에 올라서지 못하고있었다.

게다가 현대적인 기계생산문제를 놓고 시비하는자들과 대담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혁명적기풍이 부족한 보수주의자, 소극분자들이 나타나 기계공업발전에 지장을 주고있었다.

사대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은 현대적인 기계생산을 신비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들에서 사올것을 바랐다.

이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 뜨락또르와 같은 기계를 생산하는것은 아직 때가 이르고 또 조금씩 만들어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다가 쓰는것이 더 낫다고 떠들어댔다.

현실은 낡고 뒤떨어진것, 소극적이며 보수적인것을 짓부시지 않고서는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계를 자체로 생산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인 주체47(1958)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기계공업과 금속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기계공업과 금속공업부문 일군들속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신비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극복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9월전원회의후 현대적인 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계공업부문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리게 하시는 한편 수많은 기계공장들을 몸소 현지지도하시면서 로동계급을 현대적인 기계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주체47(1958)년 10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뜨락또르를 우리 자체로 생산할 구상을 안으시고 기양농기계공장(금성뜨락또르공장)을 찾으시였다.

낫이나 호미와 같은 작은 농기구를 만들던 이 공장은 이때에 와서는 여러가지 중소형농기계를 만들고있었다.

이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에 뜨락또르를 만들어 보내주어야 하겠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할수 없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그들모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것은 이 공장이 생긴지 몇해밖에 되지 않았고 기껏해서 중소형농기계밖에 만들지 못하는 공장에서 뜨락또르를 만든다는것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이였기때문이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자면 뜨락또르가 적어도 3만 5 000대는 필요하다, 그것을 사오려면 한해에 3 500대씩 들여온다 해도 10년이 걸릴것이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사온것은 다 못쓰게 되여 1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와야 할것이다, 그러니 사오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수 없으며 또 누가 그렇게 주려고도 하지 않으니 남을 쳐다보지 말고 대담하게 자체의 힘으로 뜨락또르를 생산하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기양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뜨락또르생산에 떨쳐나섰다.

기술자들은 뜨락또르를 뜯어놓고 부속품들의 도면을 하나하나 그렸으며 로동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제품을 만들었다.

간고한 투쟁속에서 35일만에 뜨락또르를 만든 이곳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께 이에 대한 보고를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뜨락또르를 세심히 보아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 인민의 기상을 담아 《천리마》호라고 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자동차를 자체로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덕천자동차수리공장(승리자동차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자동차생산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시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자동차를 우리라고 왜 못 만들겠는가고, 항일유격대원들이 야장간에서 맨주먹으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원쑤를 족치던 그 정신으로 투쟁하면 자동차도 우리의 손으로 능히 만들수 있다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덕천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신심을 가지고 돌격전을 벌려 40일만에 우리 나라에서 첫 화물자동차를 만들어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밖에도 락원기계공장, 북중기계공장, 룡성기계공장, 서평양철도공장(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등 여러 기계공장들을 찾으시고 굴착기, 불도젤, 대형공작기계, 전기기관차를 자체로 생산하도록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하여 락원의 로동계급은 굴착기를, 북중의 로동계급은 불도젤을 새로 만들어냈으며 룡성의 로동계급은 8m타닝반과 3 000t 프레스를 만들어냈다.

서평양철도공장의 로동계급은 증기기관차도 만들어보지 못한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인 전기기관차를 생산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모든 기계공장들에서 현대적기계들의 시제품을 생산하고 대량생산에로 넘어가자 기계생산에서 기본인 공작기계가 부족하게 되였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현대적기계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48(1959)년 3월 경성아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줄을 생산하는 자그마한 공장에서 낡은 선반기로 공작기계를 만들고있는것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이 귀중한 싹을 살려 전국적으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한해사이에 계획외에 1만 3 000여대의 공작기계가 더 생산되여 공작기계문제가 풀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가 산산이 깨여지고 혁명적대고조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금속공업을 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업화와 기술혁명에서 첫째로 중요한것은 현대적기계설비를 만들어내는것입니다. 그런데 기계를 만드는데는 철이 있어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대적기계들과 공작기계들을 만들어내자면 더 많은 철을 생산해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주체47(1958)년 10월 몸소 강선제강소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그들이 강재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도록 고무해주시였다.

뒤이어 성진제강소와 청진제강소,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할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5개년계획기간의 4년동안에 강철, 강재생산은 3배이상으로 늘어났다.

나라의 공업의 왕인 철과 기계문제가 풀리자 전력, 화학 등 중공업의 다른 부문들도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천리마대고조는 한층 더 높아지게 되였다.

소극성－혁명과 건설사업을 대담하게 밀고나가지 못하고 전진과 혁신을 방해하는 사상이나 사업태도.

보수주의－낡고 뒤떨어진것에 매달려 새롭고 선진적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진과 혁신을 방해하는 사상.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모든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매개 공작기계가 기본과제를 수행하면서 한대이상의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대중적혁신운동.

지방공업의 급속한 발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개년계획기간에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을 돌리시였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정전직후에 비하여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이 시기에 와서 인민들은 여러가지 질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요구하였다.

인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자면 경공업공장들을 많이 건설하고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였다.

그런데 그때 우리 나라에는 큰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할수 있는 자재와 자금이 모자랐다. 그러므로 적은 자재와 자금을 가지고 소비품생산을 늘일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지방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식료품과 소비품을 생산하는 중소규모의 경공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이 문제를 풀것을 구상하여오시였다.

주체44(1955)년 9월 평안북도 창성군으로 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령길에서 힘겹게 짐을 이고지고 가는 농민들을 보고 차를 멈추시였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더운 날에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게 된 녀인들은 어쩔줄 몰라하다가 산열매를 따가지고 령너머 삭주장으로 팔러 간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길가에 내려놓은 광주리며 베자루에 넣은것을 만져보시며 이 고장에 어떤 열매와 산나물이 많고 또 그것을 어떻게 리용해왔는가를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창성군을 다시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 지방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도를 의논하시다가 과일단물병들과 과자통들을 내놓고 맛을 보게 하시였다.

모두들 무엇으로 만든것인지 맛이 대단히 좋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이 고장에 흔한 찔광이의 즙

을 짜서 만든것이라고 알려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여기에는 골짜기마다 찔광이와 같은 산과일이 많은데 앞으로 기계를 차려놓고 그것들을 따다가 즙을 짜서 시원한 시롭도 만들고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만들면 농민들의 수입이 높아질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주체47(1958)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우리 당의 정책은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것이다.》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다같이 발전시키는것은 국가에서 자금을 적게 들이고 지방의 예비를 널리 동원하여 짧은 시일안에 인민소비품을 해결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매개 시, 군에 한개이상의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가 있은 후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 군들에 몸소 나가시여 지방산업공장 건설사업을 지도해주시였다.

주체47(1958)년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강도 우시군을 찾으시였다.

당시 이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하여야 하겠다고 걱정은 하면서도 아직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일군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방산업공장건설을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자강도안의 일군들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공장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초가집도 좋고 창고 한쪽 구석도 좋으니 거기에 독이나 몇개 가져다놓고 남새 같은것을 가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일용품공장은 걸상이나 몇개 가져다놓고 깎고 두드리고 자르는데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간단한 일용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속담에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빨리 일을 시작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국도처에서 지방산업공장건설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야장간 하나 변변한것이 없어 호미 한자루를 벼리려고 수십리 령길을 두셋씩 넘어가고 사탕 한알도 도시에서 들여와야 맛볼수 있던 두메산골군에 식료공장과 직물공장, 일용품공장, 가구공장, 종이공장, 농기구공장 등 지방산업공장들이 솟아났다.

당중앙위원회 6월전원회의후 몇달 안되는 동안에 지방의 자재와 로력으로 1 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새로 일떠섰으며 1년후에는 2 000여개로 늘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갓 건설된 지방산업공장들을 점차 현대적인 공장으로 발전시켜나가시였다.

처음에 건설한 지방산업공장들은 이름이 공장이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직물공장이라야 남의 집 웃칸에 2～3대의 베틀과 물레를 가져다놓고 실을 뽑아서 하루에 천을 몇십자씩 짜고 식료공장은 헛간에 가마나 독, 망돌 등을 놓고 엿 같은것을 만들고있었다.

공장이 이렇게 꾸려지다보니 모든 일을 손로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을 기계화하며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빨리 높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와 군에 있는 중앙공장들이 지방산업공장들을 맡아서 도와주게 하시였다.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려 만들어낸 기계들을 지방공업에 많이 보내주시는 한편 도마다 지방산업공장을 도와줄수 있는 종합기계공장을 하나씩 꾸리게 하시였다.

또한 지방산업공장 로동자들을 큰 공장에 보내여 기술도 배워오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하고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이 점차 기계화되면서 현대적공장으로 변모되여갔다.

그리하여 주체49(1960)년에는 우리 나라 소비품생산액에서 지

방산업이 절반을 차지하게 되였으며 그것은 5개년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지방산업공장—지방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여러가지 소비품을 생산하여 자기 지방의 수요를 보장하는 공장.

수리화의 기본적완성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화가 완성되자 농촌기술혁명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하여야 농사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기술혁명에서 논과 밭에 물을 대는 수리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는데 중심을 두시고 이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논에 물을 대는 관개공사는 거의 완성되고있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논보다 밭이 더 많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는 가물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려 밭곡식은 잘된다고 해야 1정보에서 고작 1～2t밖에 내지 못하였다.

논과 함께 밭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자면 밭관개체계를 세워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밭관개를 대대적으로 벌릴 구상밑에 이미전부터 그 준비사업을 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밭관개의 경험을 쌓고 본보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황해남도의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주체46(1957)년 12월 황해남도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농업협동조합열성자회의를 지도하시면서 논만 늘이려고 하지 말고 밭에도 물을 대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도랑물과 샘물도 리용하고 저수지물도 리용하여 높은 등성이밭에까지 물을 댈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밭관개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한달후에는 밭관개의 시범단위를 꾸리기 위하여

신천군 새날농업협동조합으로 나가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먼저 농민들의 살림집으로부터 상점까지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조합의 살림살이를 세심히 보살펴주신 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밭에 관수를 하면 높은 소출을 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에서는 앞으로 모든 밭에 관수를 실시할것을 생각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조합에서 먼저 해보고 전국적으로 내밀자고 하는데 한번 혁명을 일으켜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밭관수란 말그대로 모든 밭에다 물을 주는것인데 도랑을 째고 언덕밭에는 양수기를 놓고 물을 퍼올리면 된다고 그 방법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이튿날 이른새벽에는 협동벌이 한눈에 안겨오는 산언덕에 오르시여 지형을 살피신 후 뒤따라온 관리위원장을 데리고 눈덮인 산과 들을 돌아보시면서 양수장자리와 물길을 짼 자리를 친히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이 조합의 밭관개공사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며 설계일군들과 기술자들을 파견해주고 자동차와 양수기, 전동기와 같은 기계설비들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이곳 농민들은 봄밭갈이전으로 관개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리하여 재령강물을 여러 단으로 퍼넘겨 높고낮은 밭들에 물을 댈수 있게 되였다.

밭관개를 한 덕으로 이해도 가물이 심하였지만 농작물이 아주 잘 자랐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농사형편을 알아보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다시 이 협동조합에 내려가시였다.

포전을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왕가물에도 푸르싱싱히 자라고있는 밭곡식들을 보시고 관리위원장에게 동무네 조합은 이제부터 흉년을 모르는 조합으로 되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협동조합의 밭관개경험을 신문에도 내고 농촌일군들을 많이 보내여 견학도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9월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전국에 일반화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관개공사를 대대적으로 벌릴것을 예견하시고 관개건설에 요구되는 설비들과 자재들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주체47(1958)년 9월전원회의에서 가까운 년간에 수리화를 기본적으로 끝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모든 힘을 100만정보의 관개면적확장에로!》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9월전원회의가 있은 후 100만정보의 관개면적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각도에 파견하여 관개건설을 책임지고 지휘하게 하시였으며 자재와 설비를 제때에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그러나 관개공사가 예견했던것보다 너무 빨리 진행되기때문에 미처 설비와 자재를 보장할수 없었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 문제를 로동계급에게 호소하여 그들의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해보자고 하시였다. 이어 일군들과 마주 앉으시여 어느 공장에서는 무엇을 얼마 만들어 보내주고 어느 공장은 어느 협동조합을 도와주는것이 좋겠다고 분담까지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관개공사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한편 친히 현지에 나가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중화군 력포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의 밭관개정형을 상세히 알아보신 다음 이제는 하늘신세를 지면서 농사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밭관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관수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실정에 맞게 밭관수를 완성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뒤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서군, 온천군, 룡강군 등 평안남도안의 여러곳을 찾으시여 밭관개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군중적운동으로 중소규모의 관개공사를 벌리면서 대규모의 관개공사도 계속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9월전원회의 직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양관개공사를 다그쳐 1계단공사를 다음해 5.1절까지 끝내고 련이어 2계단공사를 벌리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어지돈관개공사도 적극 다그쳐나가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기양관개와 어지돈관개를 비롯하여 큰 규모의 관개공사들이 짧은 기간에 완공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9월전원회의후 불과 여섯달동안에 37만 7 000정보의 관개면적이 새로 늘어났다.

이것은 해방전 우리 나라 관개면적의 3배이상이나 되는것이며 해방후 13년간에 늘인 관개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것이였다.

관개공사는 그후에도 힘있게 벌어져 수리화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당 제4차대회전까지 우리 나라에서의 수리화는 기본적으로 완성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기간에 5개년인민경제계획도 빛나게 완수되였다.

우리 인민들은 모든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힘찬 투쟁을 벌려 5개년계획을 1년이나 앞당겨 주체49(1960)년까지 넘쳐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쌓아지고 농촌경리가 빨리 발전하였으며 인민생활도 급속히 향상되였다.

8. 혁명전통교양과 사회주의교양

혁명전통교양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치시면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착취와 압박을 직접 받아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대오에 들어서고있었다. 이러한 새 세대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 혁명의 대를 꿋꿋이 잇게 하자면 그들을 우리 당

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였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책동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헐뜯으면서 없애버리려고 책동하였다.

이 모든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47(1958)년 2월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 장병들앞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혁명전통교양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전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희생적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을 계승하며 그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계승해야 할 혁명전통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계승해야 할 혁명전통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전통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그 내용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주체의 사상체계와 혁명정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전통을 계승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우선 오가잡탕이 아니라 오직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전통만을 순결하게 계승하는것이다.

또한 혁명전통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은 반드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혁명전통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7(1958)년 5월에 몸소 보천보와 삼지연을 비롯한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돌아보시

면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잘 꾸리고 그것을 통하여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그 다음해에는 혁명전적지답사단을 현지에 보내시여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귀중한 자료들과 사적물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리하여 혁명전통교양에 리용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시여서는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지들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을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기관, 기업소, 농촌과 학교들에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꾸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혁명전통과 혁명력사학습을 일상적으로 할수 있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대대적으로 출판하게 하시였으며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영화, 소설, 노래들도 많이 창작하여 보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보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주체49(1960)년 3월 어느날 《로동신문》에는 한 항일혁명투사에 대한 글이 실렸다.

기사를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희생된 날에 즈음하여 그에 대한 글을 낸것은 잘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같은 날에 희생된 다른 항일투사들도 신문에 내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들모두는 열렬한 애국자들이며 혁명투사들이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투쟁업적을 잘 써서 길이 전하며 후대교양에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였으며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투쟁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고 천리마의 진군이 더욱 다그쳐지게 되였다.

사회주의교양

사회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리형태는 사회주의적으로 다 개조되였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아직도 많이 뒤떨어지고있습니다. 어제까지 자본주의적경리에서 살던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개인주의, 리기주의의 잔재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섭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근로자로 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었다.

그러나 근로자들속에는 아직도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개인주의, 리기주의와 같은 사상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먹고 잘살려고 하며 남의 덕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개인주의, 리기주의가 있어가지고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할수 없었다.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사회를 유지할수 없고 공고발전시킬수도 없었다.

이것은 당시 수정주의를 하던 나라들의 실태가 잘 보여주고있었다. 그 나라들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하지 않아 돈밖에 모르는 리기주의가 자라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 맞게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47(1958)년 11월 사회주의교양의 내용을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똑바로 알려주는것이다.

사회주의우월성을 잘 알아야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이 제도를 뒤집어엎으려는 원쑤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일할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교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새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것은 멸망한다는 진리를 알려주는것이다.

낡고 썩은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새로운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져야 사회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있다.

사회주의교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뿌리빼고 집단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사회와 인민,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열렬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밖에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정신, 로동을 사랑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교양의 내용을 밝혀주시면서 여기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라고 하시였다.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계급의 립장에 서서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교양을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정책을 잘 알려주는것과 함께 항일혁명투사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게 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혁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참다운 애국자이며 혁명가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용감히 싸운 혁명가들에 대한 글을 많이 써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교양을 생산현장에서 힘있게 벌

려 실지 사업과 생활에서 그 은이 나타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천리마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도록 하시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뒤떨어진 사람들을 선진분자, 적극분자로 교양개조해나가게 하시였다.

그리고 천리마기수들속에서 나타나는 자그마한 모범도 귀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키워 널리 일반화하게 하시였다.

평양제사공장의 나어린 한 처녀작업반장이 작업반성원들을 교양개조하여 천리마작업반으로 만든 다음 뒤떨어진 작업반에 자진하여 옮겨가서 그 작업반을 또 천리마작업반으로 만드는 사실을 아시게 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친히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소행을 높이 치하하시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해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같이 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자면 사람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며 꾸준하게 교양하여야 하며 특히 결함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따뜻이 대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군중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교양이 긍정적모범을 적극 따라배우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하시였다.

사회주의교양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며 서로 돕고 이끄는 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되였다.

흥남비료공장병원에서는 온몸의 48%에 3도화상을 당한 한 어린 소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 실습중에 있던 대학생들과 입원환자들까지 앞을 다투어 자기 피와 살을 바쳐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아름다운 소행이 발휘되여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자강도의 한 녀교원은 걷지 못하는 소녀를 2년이상이나 업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키고 다리도 고쳐주어 대지를 활보하게 하여 만사람들을 격동시키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아름다운 소행이 날에 날마다 수없이 꽃펴나 우리 사회는 하나의 대

가정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계급교양—지주, 자본가계급과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며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지키는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

9.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창조

5개년계획기간에 우리 나라에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공업과 농업이 빨리 발전하였다.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적인 기계와 설비로 그쯘히 갖추어졌으며 그 규모도 비할바없이 커졌다. 농촌에서도 협동조합들의 규모가 커지고 농기계들도 많이 들어갔다.

따라서 지도사업도 여기에 맞게 따라세워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크게 자라난 공장, 기업소와 협동조합들에서 생산을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함경북도, 평안남도의 여러 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현지지도과정에 일군들이 종전에 비할바없이 발전한 공장, 기업소와 협동조합들을 그에 맞게 잘 지도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일군들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이후에도 여전히 낡고 뒤떨어진 방법대로 일하고있었다.

그러다나니 크게 발전한 공장, 기업소들이 제대로 은을 내지 못하고있었다.

농촌에서도 리로 통합된 큰 조합을 지난날 개인농민들을 지도하던 방법대로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지시나 주고 독촉이나 하였지 구체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런 사업방법으로는 크게 발전한 경제를 옳게 이끌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 환경에 맞는 사업방법을 창조하기 위하여 주체49(1960)년 2월 청산리와 강서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함박눈이 내리는 이른 아침에 청산리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숫눈길을 밟으시며 로인내외가 살고있는 집과 한 녀성작업반장의 집을 찾으시였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지난해에 알곡과 현금은

얼마나 분배받았으며 분여받은 알곡으로 1년동안 먹을수 있는가, 아침에 무슨 밥을 해먹었으며 김장은 넉넉히 담그었는가를 다정히 물으시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농장원들의 살림집을 먼저 돌아보신 다음 리당위원회 사무실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내 형편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며칠전에 이곳에 보내시였던 당중앙위원회 일군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시였다. 련이어 리안의 초급일군들, 핵심당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해가 저물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리내형편을 료해하시였다.

료해과정이 계속되던 어느 일요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이 념려되여 오늘 하루만이라도 휴식하실것을 간절히 말씀올렸다.

일군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간청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이 지금 큰 살림을 꾸려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는데 내가 그들을 도와 걸린 고리를 풀어주지 않고서야 어찌 백날을 쉰들 피곤이 풀리며 편할수 있겠는가고 하시며 당원들이 모인 곳으로 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녀성당원이 드리는 방석을 밀어놓고 여기가 좋다고 하시면서 맨 방바닥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나를 한집안식구처럼 생각하고 다 앞으로 나와 앉으라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모두 오붓이 모여앉아 농사일을 진지하게 의논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리사업의 결함들을 속속들이 알게 되시였다.

리당위원장은 빈번히 열리는 회의와 강습에 참가하고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군에서 요구하는 문건을 만드는데 시간을 다 빼앗기다나니 조합원들을 교양하고 동원시키는 사업은 거의나 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리일군들은 농사에 힘을 집중할 대신 건설이요, 양어요, 기름짜기요 하는 부차적인 일에 매달려 돌아가며 똑똑한 계획도 없이 농사를 주먹치기로 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결함이 왜 나타나게 되였는가를 여러모로 분석해보시였다.

결함의 주요원인은 혁명과 건설이 천리마의 속도로 빨리 발전

하는데 비하여 일군들의 수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안의 형편을 알아보신 다음 리의 사업을 직접 지도하고있는 강서군당과 군인민위원회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당시 군당에는 매개 리에 정상적으로 내려가서 도와줄수 있는 일군들이 있었으나 리에는 내려가지 않고 모두 사무실에 앉아 리에서 올려보낸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도에 올려보내는것과 같은 문건놀음으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군인민위원회에서도 일군들이 군당보다 더 많았지만 군당에서와 같이 사무실에 앉아 리에 지시를 주고 독촉이나 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와 강서군의 사업을 료해하시면서 리일군들의 수준을 빨리 높이자면 군에서 리에 내려가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세우고 웃사람이 아래사람들을 도와줄수 있게 사업방법을 고쳐야 한다고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나타난 결함과 그 원인을 찾아 해결대책을 세워주는 지도사업의 산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와 강서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아래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산리당총회를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당총회를 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회를 열고 회의에 내놓을 문제들을 토의하게 한 다음 리당위원장이 회의보고를 직접 준비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보고서가 준비된 다음에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래단위 회의들에서 충분히 토론한 다음 리당총회를 열게 하시였다.

이처럼 회의준비를 철저히 갖춘 다음 리당총회를 진행하니 당원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제기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산리당총회뿐아니라 군의 여러 회의들도 모두 이렇게 실속있게 하도록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를 운영하는 방법만 아니라 당사업과 경제사업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배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기간에 당정책강습도 조직하고 일군들과 당원들을 만나시여 당의 의도를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과정은 그야말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과정이였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와 강서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걸린 고리를 어떻게 풀어주고 아래 일군들을 어떻게 도와주며 정치사업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15일간에 걸쳐 청산리와 강서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로운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기본내용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청산리방법의 주요내용은 무엇보다도 우가 아래를 진심으로 실속있게 도와주며 상하가 합심하여 일하는것이다.

또한 사무실에 앉아서 독촉하는것이 아니라 늘 현장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는것이다.

그리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이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 다음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당사업이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진행되는 정치사업, 사람들과의 사업으로 되였다.

또한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도 지도가 아래에 접근되고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게 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일반화되는 과정에 혁명과 건설에서

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청산리정신—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대중령도에 관한 사상.

청산리방법—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그들에 의거하여 모든 일을 해나가도록 하는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업방법.

10. 해외교포운동의 발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결성

일본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은 지난날 조선을 강점한 일제놈들의 탄압과 략탈로 더는 조국땅에서 살수 없어 살길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 징병이나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도 일본에서 사는 조선동포들을 업신여기면서 천대하였으며 민족적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탄압하였다.

재일동포들은 일본반동놈들의 온갖 책동을 반대하여 일찍부터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그 투쟁은 조국이 해방되고 공화국이 창건된 후 보다 힘차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운동은 옳은 지도사상을 가지지 못하고 옳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여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 시련은 한때 재일조선인운동에 끼여들었던 교조주의자들때문에 더 심하였다.

이자들은 일본에 사는 조선동포들이 일본사람들과 같이 오직 일본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갔다.

이것은 일본반동정부에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는데 좋은 구실을 주었으며 그것으로 하여 재일동포들은 초보적인 권리마저 빼앗기고 탄압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시기에 재일조선인

운동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은 자기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다른 나라에 사는 동포들은 자기 나라 혁명이 발전하고 그 힘이 강해야 자기들의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릴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이 조선혁명에 이바지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자면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참다운 조직을 무어주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4(1955)년 5월 우리 공화국의 주체적인 해외공민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를 무어주시였다.

총련이 무어진 결과 재일조선인운동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에 기초하여 동포들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으며 참다운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총련은 일본의 각지에 지방본부와 지부, 분회를 두고 청년단체, 녀성단체와 상공인단체, 문화예술단체, 출판보도기관을 가진 강력한 해외교포조직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총련이 수행할 기본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하며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는것이였다. 그리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의 기본과업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총련대표단이 조국에 올 때마다 친히 만나주시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하고 구체적인 보살피심속에서 총련은 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로, 일본반동정부가 함부로 다칠수 없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권위있는 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재일조선공민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입니다. 또한 재일동포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계속 보내줄것입니다.》

재일동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자녀교육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재일동포들은 자기 자식들이 민족교육을 받게 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의 방해책동과 또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없어 그처럼 바라는 소원을 풀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민족교육을 주는것을 단순한 교육사업이 아니라 민족을 지키고 동포들을 도로 찾는 중요한 애국사업으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복구건설이 끝나가고있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5개년계획의 첫해 국가예산을 토의하기 위한 내각회의가 열리였다.

회의에서 국가예산의 세부항목까지 하나하나 따져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항목이 왜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그 항목은 예견은 하였으나 자금이 너무 긴장해서 국가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림시계획에 따로 넣어 집행하려고 한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의 민족적의무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이것은 한두번 보내주고 그만둘 일이 아니라 일본에 우리 동포들이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 한 계속 보장해주어야 할 일이므로 국가예산에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새로 내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이 방금 재더미를 털고 일어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5개년계획에 들어서던 주체46(1957)년부터 해마다 재일동포들에게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은

정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조국에서 새로 만든 실험실습기재들, 교구비품들을 보내주도록 하시였고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여 백두산의 부석과 보천보의 흙이며 조국의 진귀한 새들과 짐승들의 박제품 지어 향기로운 파일과 꽃씨까지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재일동포들은 일본땅에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교육체계를 세워놓고 후대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아들딸로, 믿음직한 민족간부로 키울수 있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끊임없이 돌려주시였다.

재일동포들이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입으면 못내 걱정하시며 그때마다 막대한 원호금과 원호물자를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재일동포들이 애국사업과 과학, 교육, 문학예술활동에서 성과를 거두면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면서 영웅칭호를 비롯한 여러가지 명예칭호와 높은 국가표창을 수여하도록 하시였다. 모범적인 일군들에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영예를 안겨주고 나라의 정사를 토론하는 회의에도 참가하도록 하는 영광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해발아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애국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게 되였다.

해외교포운동－해외동포들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을 뭇고 벌리는 운동.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

일본땅에서 살고있는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는 사회주의조국으로 돌아오는것은 자나깨나 잊을수 없는 간절한 숙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이 절절한 소원을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귀국의 길을 열어주는것을 숭고한 민족적의무로, 동포애적의리로 여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동포들은 날로 륭성발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자기 조국에 돌아와 국내동포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돌아와 새 생활을 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줄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 민족적의무로 생각합니다.》

재일조선공민들이 희망에 따라 자기 조국에 돌아오는것은 누구도 막을수 없는 그들의 권리이며 또 일본당국은 마땅히 그들의 귀국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고있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남조선괴뢰도당과 한짝이 되여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오는것을 한사코 반대하여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7(1958)년 9월 우리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일본당국에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을 빨리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강경히 요구하도록 하시였다.

이에 고무된 재일조선공민들은 총련의 지도밑에 일본각지에서 군중집회와 시위, 귀국요청 등 귀국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였다.

일본의 진보적인 사람들도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지지하여나섰다.

안팎으로 궁지에 빠진 일본당국은 부득이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문제를 토의하는 회담에 응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마침내 두 나라사이에 회담이 열리게 되였다.

할수없이 회담에 나오기는 하였지만 일본당국은 여러가지 구실을 붙이면서 회담을 지연시키고 파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담에 참가하는 우리 대표단성원들에게 회담을 처음부터 주동적으로 끌고나갈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척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48(1959)년 8월 마침내《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이 맺어지게 되였다.

재일동포들의 귀국이 실현되게 되였다는 소식은 삽시에 동포들이 사는 일본땅 모든 곳에 퍼져갔으며 그들은 앞을 다투어 귀국을 신청해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귀국협정이 맺어지자 지체없이 내각회의를 여시고 귀국하는 동포들을 잘 맞이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게 하시였으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잘하도록 하시였다.

그들이 쓰고 살 아늑한 집을 미리 마련해놓도록 하시였으며 쌀과 부식물 지어 간장, 된장에 이르기까지 없는것이 없이 다 갖추어놓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주체48(1959)년 12월 첫 귀국선이 일본의 니이가다항을 떠나 조국에 도착하였다.

이때로부터 일본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던 재일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세상사람들은 이 사실을 두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재일조선공민들이 사회주의조국으로 돌아오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에 돌아온 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귀국선이 도착하자 바쁘신 모든 일을 뒤로 미루시고 조국에 돌아온 동포들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멀리 떨어졌던 자식들과 만난 어버이심정 그대로 그들과 따뜻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력사에서 해외공민들이 자본주의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 집단적으로 이주한 실례는 없다고 하시면서 지난날에는 재일동포들이 천대받고 굶주려도 누구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은 공화국의 떳떳한 해외공민으로서 조국에 돌아와 조국인민들과 함께 사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감격에 목메여 흐느끼는 동포들을 정겹게 둘러보시며 조국의 현실과 조국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해주기도 하시고 그들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차근차근 일러주기도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조국에 돌아온 동포들이 어떻게 사는지 걱정되시여 몸소 여러 가정을 방문하고 친어버이사랑을 베풀

어주시였다.

첫 귀국선이 도착한지 며칠 안되던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에 돌아와 평양시에 살고있는 한 젊은 부부의 가정을 찾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부부를 앞세우고 부엌에 들어서시여 찬장이며 쌀독을 하나하나 열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이 다 자기 희망대로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였다는 말을 들으시고 소원대로 되였다니 기쁘다고 하시면서 공부를 잘하라고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려워말고 알리라고 당부하며 그 집을 떠나시였다.

지난날 일본땅에서는 근심걱정을 하지 않는 날이 없던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속에서 입을 걱정, 먹을 걱정, 살림집걱정 그리고 일자리 구할 걱정, 자식 공부시킬 걱정, 병치료 걱정, 세금걱정 등 온갖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중학교 제 4 학년용)
제 3 판

집 필 부교수 강홍수,
부교수 림학성,
부교수 최동수, 리선숙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계순희 콤퓨터편성 전명희
장 정 류명심 교 정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2 판발행 주체 97(2008)년 5 월 31 일
3 판인쇄 주체 101(2012)년 월 일 3 판발행 주체 101(2012)년 월 일

교－12－보－565 값 원